



2006학년도

碩士學位(Th. M) 請求論文

칼빈의 경건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歷史神學專攻

장 유 석



칼빈의 경건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

指導教授 박 희 석

이 논문을 碩士學位(Th. M)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6년 11월 17일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總神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歷史神學專攻

장 유 석



장유석의 碩士學位(Th. M)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박희석

審査委員

박영실

審査委員

안인섭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06년 11월 17일

總神大學校 大學院



감사의 글

먼저 은혜로 이 과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과정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인데, 처음부터 은혜로 출발하게 하시고 2년 동안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배울 수 있도록 하시며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 써 세우시고 지켜주신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지도교수이신 박희석교수님의 사랑과 자상하신 가르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동기를 부여하시고 치밀하게 가르치시고 지도해 주셔서 “경건”에 관한 이해에 있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다만 교수님의 깊은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학문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논문작성에 큰 부족함이 있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부심이신 박영실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훌륭하신 가르침도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사랑으로 학기 내내 돌봐주셨으며 학문에 대하여 도전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또 안인섭교수님의 사랑과 세밀한 지도하심이 있어 기쁜 마음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을 위해 조언해 주시고 학문적 지원을 전혀 아끼지 않으셨던 예인교회 신종철목사님께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지원이 있어 논문을 끝까지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돌보시지 않고 오직 자식을 위해 전적으로 희생하시고 기도하셨고 지금도 그러하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신뢰는 언제나 저의 자랑이었고 용기의 원천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고단함을 돌아보지 않고 안팎에서 내조해 준 사랑하는 아내 김경래에게 감사드립니다.

장유석목사



목 차

제1장 서론	①
제2장 칼빈의 경건	1
제1절 경건의 정의	1
제2절 하나님을 향한 경건	5
1. 하나님의 주권	5
2. 십자가를 지는 삶	10
3. 영생을 소망함	12
제3절 이웃을 향한 경건	14
1. 사랑	14
2. 이웃 사랑은 마음에서 우리나라와야 함	16
제4절 경건훈련의 방법: 말씀	16
제5절 경건훈련의 장(場): 교회	17
제6절 칼빈이 유럽 청교도들에게 끼친 영향	21
제7절 결론	22
제3장 청교도의 경건	24
제1절 영국의 청교도 운동	24
제2절 청교도들의 경건	25
1. 윌리엄 퍼킨스의 경건	25
2. 리차드 십스의 경건	30
3. 존 카튼의 경건	33
4. 존 오웬의 경건	36
5. 리차드 백스터의 경건	40
제3절 청교도의 경건	47
1. 청교도의 경건의 특징	47



2. 청교도 영성의 특징	49
3. 청교도의 경건과 부흥	51
제4절 독일 경건주의에 끼친 영향	53
제5절 결론	54
제4장 독일경건주의	56
제1절 배경	56
제2절 슈페너	57
1. 슈페너의 생애와 사상	57
2. 경건한 소원	60
제3절 프란케	63
1. 프란케의 생애와 사상	63
2. 할레대학과 경건주의 모임	64
제4절 진젠돌프	67
1. 생애	67
2. 모라비안 공동체의 태동과 발전	70
3. 그의 업적 및 신학	75
제5절 모라비안 공동체	77
1. 경건 실천의 공동체	77
2. 형제애로 뭉친 공동체	82
3.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에 끼친 영향	85
제6절 미국 대각성운동에 끼친 영향	88
제5장 미국 대각성운동 속에 나타난 경건	91
제1절 데오도르 야코부스 프렐링하이젠	91
제2절 조나단 에드워즈	95
제3절 조지 헛필드	101



제6장 한국교회에 끼친 경건	107
제1절 무디의 부흥운동	107
제2절 초기 선교사들의 경건	108
1. 언더우드	108
2. 곽안련	110
3. 마포삼열	112
제3절 경건주의 신앙	113
1. 사경회	113
2. 새벽기도	116
제4절 한국교회의 경건주의자	121
1. 길선주	121
2. 박형룡	124
3. 박윤선	128
제5절 제자훈련	134
제7장 맺음말	143
참고도서목록	147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교회는 초창기부터 경건주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 그것은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적 입장이었고 신앙의 특색이었기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의 신앙은 구프린스톤의 신학적 바탕 위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 한국교회는 이런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 경건한 모습을 견지할 수 있었다.

경건은 경건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기 전에도 이미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특히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관하여 다양하게 다루었고 그 자신도 경건한 삶을 살았다. 칼빈의 영향은 제네바 시민에게, 그리고 망명한 영국인들에게 영향을 줌으로써 청교도 시대를 열게 되었으며 칼빈에게서 받은 강한 경건적 요소가 청교도들의 사상과 삶에 투영되고 있다. 청교도들의 경건은 독일 경건주의에, 독일 경건주의가 미국 대각성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영국의 감리교 부흥도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회도 초기부터 경건적 영향을 가지고 출발하여 오늘날 놀라운 성장과 부흥에 이르렀다.

역사가들은 경건주의가 형식화된 국가 종교에 대한 반동이며 독일의 30년 전쟁에 대한 염세적 반응이라고 보았다.¹⁾ 그러나 경건주의는 17세기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 전역사 속에서 늘 경건한 흐름으로 이어져 왔으며 오늘날에까지 이르고 있다. 교회는 시대마다 경건을 향하여 나아갔고 개인들도 전 생애를 통해 성경에 계시된 대로 경건을 향한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은 대개 독일 경건주의와 모라비안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마치 경건이 그들의 전유물인 양 오해되기도 했으며, 17-18세기 경건주의에 대한 비난과 오해라는 틀 속에서 현대의 경건생활을 이해하는 시도도 종종 있어 왔다. 슈토플러는 경건주의

1) 박용규, 『근대교회사』 (서울:총신대학출판사, 1995), p.194

에 대하여 가해지는 오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경건주의는 너무 주관적이어서 말씀보다는 신비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것과, 둘째 경건주의는 느낌과 감정적 즐거움에 빠져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경건주의는 금욕주의적이라는 오해가 있으며, 넷째 경건주의는 극단주의 혹은 열광주의라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²⁾

한국교회의 경건도 이러한 오해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그간 한국교회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던 경건한 열정이 마치 극단적 보수주의에서나 가능한 일로 치부되고 있음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또한 경건주의에 큰 빛을 지고 있으며 경건이라는 용어자체도 한국교회에 낯설지 않음을 고려해 볼 때 경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제2절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경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경건에 관한 중요한 인물들을 다루면서 각 시대마다의 경건의 흐름과 그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여 궁극적으로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중심으로 그의 경건사상을 연구함으로써 경건이 독일경건주의를 넘어 이미 칼빈에게서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칼빈의 경건사상이 후대 청교도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영국 청교도들이 칼빈에게서 영향을 받는 과정과 이후 중요한 청교도들을 개별적으로 연구하여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청교도들과 여러 경로로 관계를 맺어온 독일 경건주의의 선구자들의 모습과 슈페너와 프란케 그리고 진젠돌프에 이르기까지 독일의 경건주의의 부흥과정과 경건의 모습을 연구하고, 웨슬리와 영국의 부흥에 영향을 준 모라비

2) 에르네스트 슈토펠러, 『경건주의 초기역사』, 송인설, 이훈영역(서울:솔로몬,1998),pp.32-37



안의 경건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웨슬리와 영국의 부흥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영향을 주는 과정과 미국 대각성운동 주역들의 삶과 신앙에 나타난 경건을 고찰하며, 칼빈에게서 비롯된 경건이 미국 대각성운동 주역들의 가르침과 신앙 속에 녹아 있음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초기 내한 선교사들의 신학을 보고 그들에 의해 초기부터 유입된 칼빈주의적 사상과 경건을 고찰하며, 특히 한국교회 속에서 위대한 경건주의자들의 신앙과 삶의 경건성을 개별적으로 고찰하며, 20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경건주의적 요소들을 통해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있는 몇 가지 모습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맺음말에서는 서구교회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경건”의 흐름을 칼빈에게서 출발하여 영국 청교도와 독일경건주의를 지나 미국 대각성운동과 한국교회로까지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세속화가 은밀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이제 누구도 그 흐름을 역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회의 대형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종교란 꼭 필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경건을 향한 열정만큼은 필요에 미치지 못하여 허울뿐인 종교가 한국교회를 덮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실들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무엇보다 경건을 회복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논문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경건의 실체를 이해하고자 하며 과거에 대한 관찰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여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 칼빈의 경건

제1절 경건의 정의

존 칼빈은 경건이란 단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을 규정하고 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두려움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이다. 참된 경건이란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진실한 감정이다. 이 같은 경건을 가진 자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성급하게 어떤 신(神)을 고안해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그에게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찾으며 그가 자신을 보여주고 선언하는 모습 그 대로를 받아들인다.”¹⁾

칼빈은 계속해서

“또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요일4:18)는 사도요한의 말씀의 뜻은, 두려움이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으로 신자들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까 염려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형벌만 받지 않는다면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자기들에게 복수하실까 무서워서 그가 진노하신다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겁내는 것은 어느 때든 그것이 자기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는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요, 징벌이 마치 목을 누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징벌을 받을 일을 저

1) 존 칼빈 Catechism(1537), Ford Lewis Battles의 번역편집 (Pittsburg::Pittsburg Theological Seminary, 1972), p2



지르지 않도록 훨씬 더 조심하는 법이다.”²⁾ 라고 하였다.

자녀가 일차적으로 꾸중을 두려워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뜻에 거역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부모의 꾸지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조심하여 행동하는 것처럼, 경건이란 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실치 못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태도라는 차원에서 시작되고 있다. 불신자들이 신에 대하여 갖는 두려움은 자신들의 죄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본성적 두려움인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경건에 이를 수 없고 단지 불신 가운데 두려움만 가질 뿐이라는 것이다. 칼빈의 말을 더 들어보자.

“경건이란 것은 곧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유익들을 아는 데서 생겨나는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를 향한 사랑이 하나로 결합된 상태를 뜻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으로 양육을 받으며, 자기들의 모든 선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따라서 하나님이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려 하지 않는 법이다. 자기들의 완전한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서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실하게 드리지 않는 것이다.”³⁾

또 계속하여 경건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신을 아무렇게나 꿈꾸지 않고 오직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성격을 아무렇게나 그 신에게 갖다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붙

2) 존 칼빈 『기독교강요』 최종판, 원광연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3.2.27 이하 기독교강요는 위의 책과 동일

3) 기독교강요 1.2.1



잡는 것으로 만족한다. 또한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은 겉길로 빠지지 않도록, 혹은 분별없이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조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서, 그를 자신의 인도자요 보호자로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그에게 온전히 내어 맡긴다.⁴⁾

경건이란 단어를 파악하기 위해 칼빈의 주석을 살펴보자. 시편주석(119:78 이하)에서 그는 경건의 참된 본질이 신자들의 두 가지 표적, 즉 1)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존경과 순종 2) 하나님을 주인으로 두려워함과 섬김에 나타난다고 가르쳤다.⁵⁾ 이것은 불신자의 두려움과는 전혀 다른데 불신자의 두려움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에 기초하기 때문이다.⁶⁾ 지식 또한 크게 말해 경건의 개념 속에 들어간다. 예레미야 주석(10:25)에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경건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매요 경건이 있다는 증거다⁷⁾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경건에 이르는 첫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건으로 향하는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에 이르도록 우리를 모아들이시기까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데 있다는 것이다.”⁸⁾

칼빈은 또한 경건과 사랑을 연관시켰다. 에스겔서 강해(18:5)에서 그는 경건을 사랑의 뿌리라고 말했다.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외를 뜻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들이 형제들 가운데서 바르게 살 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⁹⁾

4) 기독교강요 1.2.2

5) 『구약성경주석』에서 시편119:78주석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0), 78

6) 기독교강요 3.2.27

7) Ford Lewis Battles 『칼빈이 보는 참된 경건』, p3

8) 기독교강요 2.6.4

9) 존 칼빈, 『에스겔주석 18:5』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태도와 이웃을 향한 태도 사이에 맺어있는 관계는 신명기 주석(5:16)에서 더 분명하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이교도들은 pietas(경건)라는 단어를 아버지, 어머니, 기타 우리를 돌보며 다스리는 모든 권위있는 자들에게 적용했다. pietas는 적절히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다. 칼빈에 따르면 이교도들은 영적인 소경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섬김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시험해보시기 원하신다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행정장관, 기타 우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그의 인격을 대표한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조소하고 거부한다면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다름 없다.”¹⁰⁾

물론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이웃에 대한 태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정신은 마땅히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역설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사람에게 대한 사랑보다는 높은 차원에 속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보다 높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칼빈에게서 경건이란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웃에 대한 태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람에게 대한 사랑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대한 사랑도 그에 못지 않게 강조되어야 하고 “신자들은 자신들끼리 서로간의 의를 존중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¹¹⁾는 것이다.

(마22:34-38주석 보충)

이제 위에서 서술한 바를 따라 경건의 두 측면, 즉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사람을

10) 존 칼빈, 『신명기주석 5:16』

11) 『에스겔주석 18:5』 이것은 칼빈이 십계명(기독교강요 2.8.11)과 주기도문(3.20.35)에 적용했던 이중구분(하나님과 사람)이다.



향한 경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하나님을 향한 경건

1. 하나님의 주권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이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앙과 삶의 주인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신자의 삶에 대한 완전한 규범이 이미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질서 정연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 주님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훈련시켜서 율법에 제시되어 있는 그 규범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신 것 같다. 그 주요 원리는 바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곧 영적예배로” 드리는 것이(롬 12:1) 신자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는 권면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계획하거나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²⁾

칼빈은 경건의 시작을 먼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로 이해하고 있다. 신자의 삶은 이 세상에 무심코 던져진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며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지 분명하다. 신자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 자신의 행동을 좌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 피조 되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계획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육체를 만족시키고 또 그것을 목표로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계명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12) 존 칼빈 『Christian life』, 원광연역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p17



계속하여 칼빈의 말을 들어보자.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살고 그를 위하여 죽자(롬 14:8). 그러니 그의 뜻과 그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각 부분마다 그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자. 자기가 자기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권과 경영권을 자기 자신에게서 취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위대한 전진의 모습이었는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듯이, 유일한 피난처는 다른 의지와 지혜를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와 지혜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첫 걸음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능력과 정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말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성령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야말로 생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데, 철학자들은 이것을 전혀 몰랐다.”¹³⁾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의존적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장되며 월권적 행위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온전히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게 된다.

사도바울도 인류의 교만을 내리치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참조 시 14:1-3;53:1-3)¹⁴⁾

13)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p18

14) 기독교강요 2.3.2

만일 이러한 상태가 인류가 처음부터 받은 것이라면 우리의 본성에서 선한 것을 찾으려는 것 자체가 헛된 일일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사악한 특징들이 각 사람에게서 다 나타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히드라(hydra: 희랍신화에 나오는 머리가 아홉 달린 뱀. 머리 하나를 자르면 머리 둘이 돌아남. 근질이 불가능한 고질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임)가 각 사람의 가슴 속에 잠복해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¹⁵⁾

그렇다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 즉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경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인간 편에서의 자발적인 헌신과 순종이 없을 때에도 결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경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칼빈은 이런 점에서 신자 스스로 자신을 날마다 부인해야 함을 강조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기부인은 우리의 본성적 정욕을 죽이는 것과 육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충동과 제안들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욕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그 자체의 본성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이기적 사랑에 스스로 갇히고 하나님 및 이웃의 요구나 그들과의 교제를 물리치는 경향이 항상 있게 된다. 그러므로 자아는 모든 기독교인이 부딪혀야 하는 최초의 그리고 가장 집요하고 가장 당혹케 하는 문제요, 폭풍의 눈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내면적인 반역이 더욱 거세게 우리 안에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다. 우리 자신의 본성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당혹감과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가 정복하기에는 너무나도 넓고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도덕적 활동의 영역을 찾을 필요가 전혀 없다. 우리 자신의 심령이 악과의 가장 피나는 투쟁을 벌여야 하는 전투장이다.¹⁶⁾

15) 기독교강요 2.3.2

16) 로날드 S. 윌레스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나용화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88),p.81

신자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이 자신 안에 자리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건을 향한 신령한 순례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17)경건함은 세상의 부패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며, 또한 참된 거룩함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육체의 소욕과 완전히 작별을 고하고, 정욕을 죽이고 재갈 먹이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칼빈의 경건은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건한 신자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관심사를 뒤로 제쳐 놓고서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신실히 순종하고자 애써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 부귀, 권력을 사모하는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아무도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심지어 신자들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온전히” 자기를 드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육체의 욕심에 끌려 결국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칼빈은 신자의 삶을, 모름지기 그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훈련받고, 그런 자세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세상의 영광을 향한 모든 야망과 갈망 그리고 그 이외에 더 은밀한 악심까지도 다 제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온 마음의 의도를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헛된 생각을 피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할 것을 그렇게도 강조하셨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 교만이나 허식이나 뽐내고 싶은 것이나 탐욕, 욕심, 화려함을 좋아하는 것이나 기타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온갖 악행들의 여지가 없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추하기 그지 없는 죄악에 빠지거나 아니면 덕스러운 모습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칭

17)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p.21

찬을 바라는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만다.¹⁸⁾

기독교인은 자신을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제사장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에 감사의 희생제사 행위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일들과 소유물들을 드려야 한다. 흔히 칼빈의 기도문에 보면 기독교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 드리고, 자신과 자기의 모든 지체들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데 힘을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¹⁹⁾

그런 까닭에 칼빈은 기독교적 생활을 사는 첫 번째 조건으로서 거짓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 기독교적 생활의 기초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제사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선행들과 미덕이 헛것이 된다. 칼빈 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과 외적행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의무를 강조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과 손, 우리의 존재를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사람의 영혼 속에는 무수한 악이 숨어 있으므로 이런 상태를 치료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곧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주께서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데 온 마음을 쏟는 것이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런 일들을 추구하는 것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 십자가를 지는 삶

신자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기에 신자의 인생은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18)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p.19

19) 존 칼빈 『스가랴주석 7:4-9, 8:13, 미가주석 5:10-15』

20)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p.47

이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신자의 삶의 모델이며 신앙의 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향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경건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전 생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²¹⁾ 칼빈은 신자들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스도에게서 찾는다. 주께서 택하시어 함께 교제를 나누실 만큼 존귀히 여기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힘들고 수고하며 어려움을 겪는 삶을 위하여, 온갖 재앙이 가득한 그런 삶을 위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런 뜻을 장자(長子)이신 그리스도에게 먼저 시행하셨고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적용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친애하시는 분이셨고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자(마 3:17)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전혀 부드럽게나 너그럽게 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성자(聖子)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는 십자가로 시험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그야말로 일종의 끊임없는 십자가였던 사실을 보게 된다. 사도는 이에 대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히 5:8).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악조건에 복종하셨는데 어찌서 우리는 그런 상태를 모면하려 한단 말인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인내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더욱더 그의 모범을 따라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사람들이 불행이나 재앙으로 여기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온갖 악행의 미궁(迷宮) 속을 통과하여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으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리로 옮겨가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²²⁾

21) 존 칼빈 『빌립보서주석 3:10』



기독교인의 경우 삶의 일상적 고통들도 십자가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²²⁾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백성들의 생활에서 그와 같은 고통들을 성화시킬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도 그것이 관련되게 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도록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당하는 일상적인 환난들 외에도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표들로서 그들이 당해야 하는 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징벌까지도 겪어지도록 되어 있다.²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은 나머지 인류보다도 ‘많은 종류의 악’을 더 많이 당한다.²⁵⁾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롬 5:3-4)는 사도바울의 말을 보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신자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참조, 고후 1:4),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인내로 견디는 동안 이러한 약속이 과연 사실이라는 것을 몸소 느끼고 체험한다. 그러므로 인내를 통하여 성도는 하나님이 과연 그의 약속하신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정말로 주신다는 체험적인 증거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이 또한 강건해진다.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하여 갖는 그릇된 생각을 뒤집어엎으며,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위선의 껍데기를 여지없이 벗겨내며, 저 위험한 육체에 대한 신뢰를 제거시키며, 또한 우리를 낮춤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승리에 이어서 소망이 생겨난다. 주께서 과연 과거에 약속하신 바를 이제 실행하였으니 미래에도 그렇게 성실하시리라는 신뢰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 일이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²⁶⁾

22) 기독교강요 3.8.1

23) 기독교강요 3.8.1

24) 존 칼빈 『베드로전서주석 4:17』

25) 존 칼빈 『히브리서주석 11:37』

26) 기독교강요 3.8.2

십자가는 신자의 인내를 시험하며 훈련하여 순종하게 한다. 우리의 육체의 본성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명을 벗어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조금만 부드럽게 대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여지없이 그 명을 벗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과연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이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²⁷⁾ 우리는 십자가를 인내의 태도로 짊어지되²⁸⁾ 그러한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더욱 촉진되고²⁹⁾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강권해진다.

3. 영생을 소망함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영생을 소망하게 하는 큰 뜻이 있음을 본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만나는 고난을 통해 신자는 결국 내세와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

“어떠한 환난이 압박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 환난에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 곧, 우리로 하여금 될 수 있는 대로 현세의 삶을 무시하고, 그리하여 내세의 삶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자극을 받는 데 익숙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한 애착에 종으로 매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미 잘 알고 계시므로, 우리가 거기에 너무 강하게 붙잡혀 있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가장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시 일깨우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흔들여 없애고자 하신다. 사실 우리 중에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늘의 영원한 복락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라는 소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온통 이 세상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27) 기독교강요 3.8.5

28) 존 칼빈 『마태복음주석 24:9』

29) 존 칼빈 『욥기 설교 42:9-17』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인간이 아둔한 것이다. 인간은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의 허망한 빛에 눈이 부셔서 그 이상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 마음 역시 탐욕과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그 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들 위로 올라서지를 못한다. 결국, 인간의 영혼 전체가 육체의 온갖 유혹거리에 걸려 이 땅에서 찾는 행복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상태를 교정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 삶의 온갖 비참한 상태들을 증거로 제시하시므로써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이 헛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만드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스스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깊고 영구한 평화를 추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전쟁과 소요와 약탈과 이런저런 상해(傷害)로 인하여 고통 받도록 허용하시기도 한다.”³⁰⁾

이 세상의 삶이 주는 헛된 것에 대한 목상은 자연히 영생을 소망하게 한다. 칼빈은 이 땅의 삶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 사라지는 것과 비례해서 더 나은 삶을 사모하는 마음도 늘어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³¹⁾ 신자는 죽음을 생각하며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동안 미래의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더 깨어 있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한다. 장차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할 때에 현재의 삶은 무시해 버려도 무방하며, 오히려 철저하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것이 삶 전체에 대한 비판과 부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므로 전적인 부정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칼빈은 이 땅에서의 삶을 경시하되 단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속하게 만든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라고 밝힌다.³²⁾ 비록 현재의 삶이 영생에 비추어 본다면 보잘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분을 따라야 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주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셔서 배치하신 초소와 같은 것이므로 주께서 다시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 바울은 사실 육체의 죽

30) 기독교강요 3.9.1

31) 기독교강요 3.9.4

32) 기독교강요 3.9.4

쇄에 매여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롬 7:24).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어느 쪽이라도 취할 자세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빌 1:20-24).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므로 우리의 삶과 죽음의 시기에 대해서는 주께 맡겨 버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강한 열정을 가지며 그것을 계속하여 목상하며, 또한 미래에 올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서 죄로 얽어매는 이 땅의 삶을 멸시하며, 언제 주께서 부르시든지 간에 기꺼이 이 삶을 마감하기를 사모해야 한다.³³⁾

제3절 이웃을 향한 경건

1. 사랑

칼빈에게 있어 경건은 이웃을 향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남을 위하여 수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롬 12:10, 빌2:3).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이웃들을 위한 일이며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좋아하고 신실한 태도로 그들의 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령들을 지키기가 어렵다. 우리는 모두 우리들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높여야 하며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해도 좋은 어떤 선물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기로 삼아 우리 마음은 교만해진다. 우리는 교만으로 부풀어 있다.³⁴⁾ 자기를 사랑하고 높이려 하는 이런 경향은 신자의 마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

33)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pp.57-58

34) 존 칼빈 『칼빈의 경건』 이형기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p.86



로 힘을 다하여야 한다. 사도바울도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허물을 살피고 교만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도리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갖고 대해야 하는데, 특히 다른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높여야 하며 혹 부족한 것이 보이거나 실수할 때에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칼빈에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항상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 교회의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것 외에 다른 관심을 갖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의 선의와 친절을 보여 주는 방법으로 삼도록 하자.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따라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서 그 청지기의 임무를 올바르게 시행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면,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열심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열심과 합칠 수 있게 되며,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열심을 이웃의 유익에 대한 열심에 굴복시키게 될 것이다.”³⁵⁾

2. 이웃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함
 신자는 오직 사랑의 의무를 다할 때에 비로소 자신을 죽이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³⁶⁾ 칼빈에게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의무가 포함된다. 신자는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수평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되고 전적으로 이타적 삶을 살게 되는 바,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기초라 할 수 있다.

35) 기독교강요 3.7.5

36) 기독교강요 3.7.7



제4절 경건훈련의 방법: 말씀

칼빈에게 있어 경건은 말씀에 의한 지도를 받아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한다.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훈계가 우리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아주 유순한 정신으로 그것의 가르침에 자신을 맡기어 그것의 교훈에 의해 다스림 받고 단련되는 자이다.³⁷⁾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는지의 여부가 하나님 자신을 두려워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실한 시금석이다.³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거짓 없는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랑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이다.³⁹⁾ 완고한 마음은 말씀을 멸시하는 마음으로서 그 말씀을 경외와 순종으로 받아서 들을 때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과 대조를 이룬다.⁴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지도받고 고취되는 생활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추구함에 있어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바른 마음이 외형상의 행동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딘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다.⁴¹⁾ “아무도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의(義)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신적권위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다.”⁴²⁾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37) 존 칼빈 『시편주석 19:7』

38) 존 칼빈 『시편주석 50:17』

39) 존 칼빈 『시편주석 119:159』

40) 존 칼빈 『시편주석 95:8』

41)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p.271

42) 존 칼빈 『누가복음주석 1:6』

기독교강요에서 칼빈은, “참된 신앙이 우리에게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과 또한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올바르게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것을 경건한 자세로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참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완전하며 모든 면에서 충족한 믿음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식도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들을 돌아보신 것이 분명하다.”⁴³⁾

제5절 경건훈련의 장(場): 교회

칼빈은 경건을 포함한 개인의 성화와 신앙생활의 성장 및 양육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며, 경건에 있어서 교회의 기능을 강조한다. 기독교강요를 보면, “유형교회에 대하여 강론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적이므로 교회의 유일한 호칭인 ‘어머니’로부터 교회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아니 얼마나 필요한가를 배우기로 하자. 왜냐하면 우리가 사멸할 육체를 벗고서 천사같이 될 때까지는, 교회가 모태에서 우리를 잉태하여 태어나게 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서 우리를 길러주지 않는 한. 요약하자면 그녀의 책임과 지도 아래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다른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⁴⁴⁾

이처럼 경건도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지도 아래 훈련되어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은 신자의 의무가 된다. 비록 가건교회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전히 충성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그 자체의 구별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는 선택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충실하고자 할 때, 교회와는 무관하게 사는 불경건한 사람들의 사립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일상생활에서 다소간 세심하게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⁴⁵⁾

43) 기독교강요 1.6.2

44) 기독교강요 4.1.4

“바울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사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엡 4:10-13)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자기들의 백성을 한 순간에 완전히 만드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이 오로지 교회의 교육을 통하여 장성한 자들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⁴⁶⁾ 즉 교회야말로 신자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며 신자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부르심 대로 온전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의 경건은 먼저 교회 속에서 이뤄지며 교회를 통하여 발전하게 된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몹쓸 태도는 바로 배교자들의 태도인데,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서, 양 떼들을 우리에서 몰아내어 늑대들의 입에 던져 넣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인용한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이다. 곧, 교회는 오로지 외적인 설교를 통해서만 세워지며, 또 성도들은 오직 하나의 끈에 의해서만 묶여지며, 하나로 연합하여 배우고 전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엡4:12).⁴⁷⁾

“그러므로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집’이라 부른다는 사실은(딤후3:15)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바울의 말은 곧,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에서 멸한바 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사역과 수고를 통하여 그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순결하게 지켜지기를 바라셨고, 또한 자신이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한 가족의 아

45) 존 칼빈 『고린도전서주석 10:25-30』

46) 기독교강요 4.1.5

47) 기독교강요 4.1.5



버지이심을 스스로 드러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엡5:27) 그의 신부로, 또한 ‘그의 몸이요...충만함’(엡 1:23)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은 범상한 칭찬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교회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⁴⁸⁾

칼빈에게 있어 경건은 교회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는 ‘어머니’로서 신자를 잉태하며 가슴으로 양육하여 경건한 신자를 만든다. 그러므로 신자가 교회에 충성을 다함은 거룩한 의무가 된다.

우리가 교회에 충성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전교회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택되고 구별된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성화와 구원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 즉 모든 사람이 이후로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며, 넘어진 자들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얻는 일에 힘쓸 것을 전제한다.⁴⁹⁾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⁵⁰⁾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별됨이나 특권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모든 열심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팔을 내민 것처럼, 우리의 팔을 내밀어 그들을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⁵¹⁾ 하나님의 공훈을 덧입은 기독교인은, 시편 기자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외치는 전파자“가 되어야 한다.⁵²⁾ 우리가 하나님께

48) 기독교강요 4.1.10

49) 존 칼빈 『히브리서주석 10:24』

50) 기독교강요 4.15.3

51) 존 칼빈 『에베소서설교 4:15-16』

52) 존 칼빈 『시편주석 51:16』

화목된 것은 "각자 자기가 받은 그 은총을 자기 형제들로 받아 누리도록 힘쓰게 하려는데 있다"⁵³⁾ 천국교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인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인도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⁵⁴⁾

이러한 증거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열망에서 나오는 결과다.⁵⁵⁾ 우리의 이웃과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그의 나라를 제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범위와 능력을 또한 제한하는 것이다.⁵⁶⁾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바른 길로 자기 혼자 걷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세계를 바로 그 길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다"⁵⁷⁾

제6절 칼빈이 유럽 청교도들에게 끼친 영향

칼빈이 제네바에서 활동할 당시 그의 영향력은 제네바를 넘어서 전 유럽에 이르게 된다. 당시 제네바의 인구는 대략 9천명 정도였지만 칼빈이 제네바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의 인구는 그것을 훨씬 넘어섰다. 유럽 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제네바로 몰리면서 제네바는 거의 두 배 정도의 인구가 되었다.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인 회중도 있었으며, 메리 튜더 여왕이 통치하던 기간에슨 존 나스가 영도하는 영국인 회중도 추가되었다. 그리고 칼빈과 그의 동료 교사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유학 온 학생들이 있었

53) 존 칼빈 『시편주석 32:8』

54) 존 칼빈 『빌립보서주석 2:16』

55) 존 칼빈 『시편주석 51:14-15』

56) 존 칼빈 『디모데전서설교 2:5-6』

57) 존 칼빈 『욥기설교 4:1-6』

다. 그들의 출신지는 다양했지만 주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이탈리아 출신들이었다. 그들 중 다수는 후에 귀국하여 본국에서 종교개혁 사업을 수행하였다. 아카데미가 건립된 이후에는 학생들의 유입이 더욱 많아졌는데 이제는 신학 뿐 아니라 법학도 공부하고 일반적인 교육을 이수하려고 몰려왔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이 고향에 돌아갈 때 그들은 칼빈의 사상도 가져가서 이를 선포했고 그 결과 화형주에 묶이는 것으로 생애를 마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⁵⁸⁾

제네바의 칼빈은 조국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의 동포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조국교회에 참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랐다. 기독교강요 서문에 기록된 ‘프랑스 1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1535년에 벌써 프랑스의 ‘빈곤하고 작은 교회’를 돕거나 위로하는 장면을 서술한 구절이 나온다. 1536년에는 라틴어판 기독교강요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다시 1537년에는 그 책을 요약해서 ‘신앙교육과 신앙고백’이라는 책으로 출간한 것도 바로 조국 프랑스의 국민을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맥락에서 취한 행동이기도 했다.⁵⁹⁾ 당시 제네바에서 삼 년간 체류하다 돌아온 금세공 직공인 클로드 르 펠트르를 파리모임에서는 설교자로 세웠으며, 많은 위그노들이 외출할 때 주머니 안에 붙어성경이나 기독교강요 사본, 또는 제네바나 바젤에서 건너온 개혁주의 소책자들 넣고 다녔다.⁶⁰⁾

영국에서도 메리 여왕 치세 기간 동안 대략 800 여명이 대륙으로 피신했는데 그 중 약 삼분의 일이 제네바로 갔다. 존 나스가 시무했던 제네바의 영국인 교회에는 무려 233명이 회중으로 등록했을 정도였다. 1558년 11월 메리 여왕이 죽자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제네바역 성경과 제네바의 종교개혁 경험, 그리고 칼빈의 휘하에서 익혔던 매우 강력한 성서신학을 가지고 왔다. 이들은 조국에서 이러한 종교개혁적 유산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엘리자베스 여왕에 의해 좌절되었다. 중도적 입장에 있던 엘리자베스는 귀환망명자들의

58) 스탠포드 편저, 홍치모, 이훈영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p.52

59)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p.88

60)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p.89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많은 개혁가들을 실망시켰다. 절반만 개혁된 교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칭교도’로 낙인찍혔다.

16세기 칭교도들의 사상과 경건은 무엇보다 칼빈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설교와 기독교강요출판, 개인서신의 왕래와 소책자발간 등은 망명하여 제네바에 머물러 있던 많은 개혁가들의 경건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고, 이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종교개혁적 노력을 통해 칼빈의 사상과 경건을 이어가게 되었다.

결론

칼빈은 경건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규정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선 하나님께 불순종함 자체가 두렵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자발적으로 경건한 삶을 지향한다. 또한 경건은 수직적 관계를 넘어서서 이웃을 향한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친절을 통해 경건을 이루게 된다. 만약 신자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게 되고 전적으로 이타적 삶을 살아야 한다.

경건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 훈련되어진다. 그러므로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되어진 생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될 뿐이다. 경건은 인간 편에서 새롭게 고안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므로 모든 경건은 말씀에 의해서만 훈련되어야 한다. 또한 경건한 신자는 교회 속에서 잉태되어 교회의 가슴으로 키워지므로, 신자는 교회에 충성을 다해야 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적극 동의하고 참여하여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교회를 넘어 세상 구원을 위해 전심전력 하게 된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제3장 청교도의 경건

제1절 영국의 청교도 운동

영국에서의 기독교 부흥은 종교개혁 바로 직후에 일어났다. 영국¹⁾에서의 청교도 운동이 경건의 회복을 교회가 세상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독일에서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 조항의 글을 내다가 붙임으로 전 세계를 뒤덮는 도화선이 출발되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다. 존 칼빈은 파렐 ‘당신이 나와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심판하기를 원한다’는 천둥 같은 경고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공포가 임하는 것을 느꼈고,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었다. 청교도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경건의 회복을 가져온 청교도 운동을 시작했다. 종교개혁 그 자체는 오순절 성령강림의 때에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용솟음쳤던 약동기로서 사도시대에 기록된 실례들에 의하면 3천 명이 하루에 개종했으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道)에 굴복하게’ 되었고 그 이상 잘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이 준비할 정도였는데 그 이후의 가장 거대한 부흥운동이 청교도운동이었다. 성령이 능력의 날에 피부어질 때, 그 결과가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다. 죄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는 열심, 그리고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리에 대한 의뢰 등은 불가피한 결실들이다.²⁾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에서 사도시대의 승리가 반복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종교개혁의 모든 성공도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그 때에 종교개혁의 신앙이 회복되었는데, 이는 ‘부흥된 기독교’라 불릴 수 있다. 이를 따랐던 청교도들이 진리의 이 분야에 주었던 관심은 오고 또 오는 시대에 폭넓게 영향을 미쳤으며 영어권 세계에 개신교 신앙의 부흥을 위한 유서 깊은 학교라고 불릴 수 있는 비결을 주었다.³⁾

1) 영국이라는 이름은 사실상 남쪽의 잉글랜드, 서쪽의 웨일즈, 북쪽의 스코틀랜드, 서쪽 섬인 북아일랜드를 합친 국명이다.

2) 박영호 『청교도 실천신학』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년, p.98

제2절 청교도들의 경건

1. 윌리엄 퍼킨스(Wiliam Perkins)의 경건

칼빈주의는 영국 종교개혁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고, 후에는 청교도운동에 영향을 준 주요 동력이 되었다. 칼빈은 개인적으로 영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신학은 여러 경로로 영국에 전해졌고 그 힘을 발휘했다. 칼빈주의는 에드워드 6세의 통치 기간 중에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퍼져나갔다. 에드워드 6세는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따라서 영국은 외국 개신교도들의 파란처가 되었다. 대륙에 살고 있던 많은 칼빈주의자들은 영국으로 들어왔고 이들은 금세 영국교회와 대학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버렸다. 칼빈이 죽은 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도 영국에서 칼빈의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으며 후계자인 데오도르 베자(Theodore Beza)에 의해 계속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퍼킨스의 가르침을 분석했다. 왜냐하면 그는 영국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핵심적 인물이었으며 영국 청교도 형성의 기틀을 닦았기 때문이다.⁴⁾

켄달(R.T.Kendall)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칼빈에게서 이탈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의하면, 청교도들을 칼빈의 정신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은 베자였으며 특별히 그의 스콜라주의였다는 것이다. 켄달은 칼빈으로부터 이탈하여 베자의 영향력 아래로 간 자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퍼킨스를 지적한다. 켄달에 의하면, 청교도들이 신자의 성화된 삶을 그렇게 강조한 것도 베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였다.⁵⁾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을 의심할 때 칼빈은 그리스도만을 가리키지만 반면에 베자는 그들의 성화된 삶을 가리킨다. 퍼킨스는 베자의 결론을 따랐다.⁶⁾

3) 『청교도 실천신학』 p.99

4)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도서출판하나,1996), p.96

5) R.T.Kendall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p.199

6) 『Calvin and English Calvinism to 1649』, pp.79-83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오넬 그리브(Lionel Greve)는 칼빈과 퍼킨스가 자신들의 신학의 일반적인 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점이 있음을 주목한다. 그러한 유사점은 그들의 영성의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영성에 관한 퍼킨스의 개념은 객관적 차원과 주관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객관적 차원이 그의 신학적 형성에 관계된 것이라면 주관적 차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해와 관계있다. 그가 이 두 차원을 연결시키는 방식은 그의 영성의 독특한 전망을 보여준다.’⁷⁾

계속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윌리암퍼킨스의 영성은 많은 점에서 칼빈의 그것과 유사하다. 경건의 기초로서 신 중심성을 강조한 것은 쉽게 나타난다. 그러나 퍼킨스가 인간의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다라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신(神) 중심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칼빈처럼 그는 역동적이고 상관적인 관계에서 신학과 영성을 지키려 했다. 더욱이 칼빈의 경건과 유사한 점은 교회, 예배, 성례전과 기도 등에 대한 그의 이해에까지 확대될 수 있다. 그는 동일한 용어 내지는 최소한 유사한 용어들까지도 사용하는 정도였다.”⁸⁾

칼빈이나 퍼킨스 모두 영성을 은혜와 치리의 상관관계로 보았다. 그러나 퍼킨스는 은혜를 언약의 차원에서, 치리를 양심의 차원에서 해석했다. 그러므로 영성에 대한 퍼킨스의 생각은 언약과 양심의 상관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 언약은 하나님의 선택을 전파하는 수단이다. 반면 양심은 치리의 형태로서 실제로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수단이었다.⁹⁾

7) Lionel Greve 『Freedom and Disciplin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William Perkins and John Wesley』 p.165

8) 『Freedom and Disciplin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William Perkins and John Wesley』, p.213

9) 『Freedom and Disciplin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William Perkins and John

따라서 칼빈과 퍼킨스의 차이는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각기 다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차이인 것이다. 교리는 앞서 세운 전통 위에 의지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시대의 요구를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따름이다. 신학화의 작업은 한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래의 때에는 새로운 관심과 질서가 앞선 시대의 것을 넘어서 발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될 것이다. 신학의 근본은 달라져야 할 필요가 없다. 건전하게 세워진 신학 전통의 기본교리를 기초로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연구할 수 있고 당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칼빈과 퍼킨스의 관계에 적용시킬 수 있다.¹⁰⁾

그러므로 퍼킨스가 비록 칼빈보다는 베자의 영향을 받았음이 사실이지만, 베자 또한 칼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퍼킨스는 칼빈에게 빚지고 있으며 칼빈의 사상 또한 퍼킨스의 영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여기서 퍼킨스의 걸작인 「황금사슬(A Golden Chain)」을 통해 퍼킨스의 경건과 영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퍼킨스의 유명한 저서, 「황금사슬(A Golden Chain)」은 우리에게 그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예정론에 대한 논쟁이었다. 1579년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던 피터 베로(Peter Baro)는 요나서 강의 시간을 통해 처음으로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쳤다. 베로의 주장은 펠라기안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그러한 견해에 대하여 로렌스 체더튼(Laurence Chaderton)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1595년 피터 베로와 윌리엄 바렛(William Barret)은 퍼킨스의 예정론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¹¹⁾ 퍼킨스의 황금사슬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쓰여진 것이다. 퍼킨스는 서론에서 그 책의 목적을 다음과 같

Wesley』, p.213

10) 『칼빈과 청교도 영성』, p.100

11) M.M.Knappen, 『TPuder Puritanism』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39), p.370

이 소개하고 있다.

“기독교 독자들이여,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예정 질서에 대하여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이어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는 펠라기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보다 먼저 인간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미리 보신 후에, 그 보신 것에 기초하여 인간들에게서 혹 생명을 혹 죽음을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소위 루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인간들이 불신앙 아래에서 그들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은혜를 저버릴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인간 자신의 믿음이나 선행으로가 아니라 오직 그의 자비로 어떤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은혜를 거부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선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거부할 것을 영원 전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반펠라기안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정은 부분적으로는 그의 자비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또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공로와 예측하고 준비한 것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이 예정을 이루어가는 그 원인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즉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멸망, 즉 인간이 타락하며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기쁨 외에 다른 어떤 원인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견해 중에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제가 이의를 갖고 반박하고자 하는 견해이고, 마지막에 소개한 견해는 본인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¹²⁾

이러한 격렬한 논쟁의 성격을 띤 이 책 안에 퍼킨스의 기본적인 신학 교리들이 배어있다. 퍼킨스는 이 책에서 구원론에 대한 탁월한 사상들을 펼치는데,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주장을 통해 경건에 대한 일견을 제시한다.

12) A Golden Chain, ed. Breward, pp.175-176



그리스도와의 연합사상은 ‘세상을 떠난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오게 되는’¹³⁾ 효험 있는 부르심의 일부로 논의될 수 있다. 효험 있는 부르심의 주제는 두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첫째는 선택이며,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호혜적인 내어주심, 또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는 그가 죄인 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금 진실로, 또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죄인 된 인간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나의 것이며 나의 유익을 위해 그를 즐거워 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¹⁴⁾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퍼킨스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결혼관계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결혼 관계에서 이와 유사한 관계를 보게 된다. 남편은 ‘이 여인은 나의 아내요,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도록 내게 그녀를 주었소. 그러므로 나는 그녀를 가지게 되며 그녀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요.’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아내 된 여인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남자는 이제 나의 남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내게 주었으며 이제 나를 그의 아내로 사랑합니다.’¹⁵⁾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며 죄를 회개한 모든 자들은 신비로운 그의 몸의 지체가 된다. 이 연합은 가장 가깝고 실제적인 연합임에 틀림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육체적인 접촉이나 혼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한 영혼이 다른 영혼과 납땀되듯이 연합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또 그들 사이에서 단순한 의견의 일치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오직 동일하신 성령의 사역과 교제에 의하여 연합이 이

13) A Golden Chain, p.225

14) A Golden Chain, p.77

15) A Golden Chain, p.226



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성령님께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다.”¹⁶⁾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되고, 또 우리 편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므로 이 연합은 ‘영적 연합’¹⁷⁾으로 불리어진다. 연합의 본질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살리심을 받고 다시 일어나 하늘에 오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기 때문이며, 심지어 아담의 첫 번째 죄악 안에서 죄로 얼룩진 그 후손들의 죄까지도 친히 담당하셨음을 믿기 때문이다.¹⁸⁾

2. 리차드 십스 (Richard Sibbes, 1577-1635)의 경건

리차드 십스는 청교도 지도자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는 1602년 경 켈브리지 성 앤드류스 대학의 설교자였던 윌리엄 퍼킨스의 후계자였던 베인즈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이 두 사람은 영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청교도적 영성을 각 교회와 대학 속에 심었던 사람이었다. 그는 청교도 운동의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힘썼는데 특히 기금 모금을 위해 수고하여 수많은 변호사들과 부유한 상인들을 통해 청교도들의 설교사역을 재정적으로 도와주었다. 십스는 영국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가지고 노력했지만 그의 성품은 매우 온화하고 부드러웠고, 영국국교회를 떠나지 않은 채, 가능한 한 국교회 안에서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 그는 교회를 파괴하거나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분열 책동주의자가 아니었으며, 신자들의 위로와 격려에 관심을 갖고 인내하며 교회를 개혁하려 했다. 그래서 그의 개혁은 신학적이고 교훈적이라기보다는 ‘목

16) A Golden Chain, pp.77-78

17) A Golden Chain, p.78

18) A Golden Chain, p.78

회와 권고의 차원'19)이었다. 청교도운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의 투쟁, 그리고 수많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대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원한이나 분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지어 그를 박해하던 정부와 교회에 대해서도 충성과 자비로 대했다. 정부의 선한 정책을 공유하고 누리는 일에 그리고 참여하는 일에 적극적이었고 통치자의 행동을 가능한 한 가장 좋게 해석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다. 그의 설교도 매우 부드럽고 은혜로운 특성을 가졌는데, 설교자들이 지나치게 율법주의적으로 설교하는 방식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해 설교자도 그런 방식으로 설교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십스의 설교방식은 대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이었다.²⁰⁾

십스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를 결혼관계 속에서의 연합과 교제의 측면에서 찾으려 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러한 결혼관계를 두 품성 간의 연합이라고 말한다. 결혼에서와 같이 남편의 재산과 소유권은 아내의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의 품성의 그녀의 것이 되는 것, 이는 그녀 자신의 모든 것이 그녀의 남편에게 넘어 가듯이 남편은 자신과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자기의 아내에게 넘기기 때문이다.'²¹⁾ 남편의 모든 소유물이 이제 아내의 것이 되는 이유는 남편의 품성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아내가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남편의 이름을 가지듯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그의 영예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왕과 제사장의 분깃이 된 것이다(계1:5-6). 그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로 함께 나누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의 부요가 우리의 것이 된다.²²⁾

이러한 연합의 유대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격에 대한 칼빈과 퍼킨스의 가르침과 같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죄와 곤궁은 그리스도께로 돌려졌다. 마치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19) 『칼빈과 청교도 영성』 p.153

20) 『칼빈과 청교도 영성』 p.156

21)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2(Edinburgh: James Nichol; London::James Nisbet and Co.; Dublin:W.rOBERTSON, 1862), P.173

22)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2, p.24

책임지실 때 그러한 죄와 곤궁이 그의 것이 된 것과 같다. 우리는 그가 친히 은례로이 취하신 우리의 죄와 곤궁 외에는 아무 것도 그에게 줄 것이 없다. 동시에, 그의 영광과 부요가 마치 우리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의 것이 된다. 따라서 결혼관계의 연합에서 십스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 됨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본다. ‘그는 왕이시며, 교회는 만물의 여왕이기 때문이다.’²³⁾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연합을 통한 보호와 위로가 있다. 십스는 그리스도와 신자들 간의 상호 사랑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한다. 우리를 거저 사랑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단순히 그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다. 십스는 이를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비유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식이 그들을 사랑하기 전에 자식을 먼저 사랑한다. 실제로 사랑은 불과 흡사한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만은 비유사성이 있다. 그것은 불은 올라가지만 사랑은 내려간다는 것이다.’²⁴⁾

십스의 진정한 관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성격을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연합을 설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사상을 그리스도와의 실제적 교제 사상에 대한 그의 관심의 기반으로 삼았다.²⁵⁾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연합은 교제의 기초’²⁶⁾가 되는 것이다. 십스에게 연합은 교제와 분리할 수 없으며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보았다.

십스에게 있어 경건이란 곧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며 애정이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데서 시작하며 지성뿐만 아니라 감정과 마음을 합하여 그리스도에게 반응하는 것이다. 십스는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분’으로 묘사한다. 그는

23)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2, p.26

24)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2, p.174

25) 『칼빈과 청교도 영성』 p.160

26) 『칼빈과 청교도 영성』 p.174



그것을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들, 즉 지혜와 능력과 선과 사랑 등을 숙고해 보자. 그러한 것들은 그를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입고 우리와 결혼하며 우리의 성품을 그의 성품과 합하도록 하셨다(그럼으로써 그는 우리를 그와 영적인 유대 속에서 합하게 하셨다). 그의 온유함과 인자하심을 숙고해 보자. 자신에게 온 자들에게 등을 돌리지 않은 그를 숙고해 보자. 이는 우리로 그를 높이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²⁷⁾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경탄 속에서 신자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연합하게 된다.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목상하고, 그래서 그 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할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충만하게 된다. 십스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애정이 그리스도에게 흘러가도록 하자. 그와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는 그가 사랑스러운 분이므로 그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의 약속, 그의 인도하심, 그의 조언, 그의 자녀, 그의 성례는 모두 사랑스럽다.²⁸⁾ 그리스도는 현관에 만족하지 않고 벽장 속으로 들어오신다. 그는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더욱 친밀한 애정과 사랑을 위해 맞이하여야 한다. 친밀함 외에는 아무 것도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²⁹⁾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3. 존 카튼(John Cotton, 1584-1652)의 경건

카튼은 케임브리지의 청교도들과 영적으로 친밀한 형제관계를 유지했다. 케임브리지에 오자마자 퍼킨스의 설교에 감화를 받았고 리차드 십스를 통해 진정한 회심을

27) 『칼빈과 청교도 영성』 p.138

28) 『칼빈과 청교도 영성』 p.157

29) Richard Sibbes, Bowels, vol.2, p.60



하게 되었다. 십스의 강한 설교에 감명을 받은 카튼은 십스에 대한 각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설교방식도 십스의 설교방식을 닮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튼은 그리스도와의 품성과 신자와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율법적인 조항들을 순종하는 것에 일차적인 강조를 두지 않는다. 순종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며 필수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하지만 교제라는 것은 애정의 관계를 기초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³⁰⁾

“성전인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의 의무들과 거룩한 것들을 지키며 그에게 우리의 모든 희생을 바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에스겔서 44:8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그의 백성에게 죄로 삼으신다.”³¹⁾

하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부수적 산물인 것이다. 율법과 계명과 직분을 열심히 지키다 보면 거기에 파묻혀 버리기가 매우 쉽다. 카튼은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품성 그 자체에게로 쏠려야 한다.³²⁾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그의 거룩한 율법들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것들에 대한 모든 신뢰를 포기하라고 하시거나 그것들을 향해 쏟는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라고 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복된 율법의 사

30) 『칼빈과 청교도 영성』 p.203

31) John Cotton, Christ the Foundation of Life(London, Printed by Robert Ibbittion, 1651),pp44-45

32) 『칼빈과 청교도 영성』 p.203

용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조금은 간격을 두어 말씀, 성례, 하나님과의 사역자들과의 교제 그 자체에서 생명을 찾을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의 보호나 우리를 향한 그의 아버지 같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율법들을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것이다.³³⁾

“따라서 한 마디로 말해 당신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위엣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가, 당신의 교만한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만큼 낮아졌는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위선적인 삶의 방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거친 기질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당신을 그를 보고 느끼고 있는가,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 당신은 그 앞에 당신 자신을 헌신했는가,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정결치 못한 일들로 괴로워하며 주의 율법들을 온전히 지키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당신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는가? 그렇다면 당신을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것이다.”³⁴⁾

카튼의 경건은 외적인 면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내적인 면을 더 강조하고 있다. 신자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무 조항이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에 근거하여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과정 중에 지키게 되는 것이다. 카튼은 율법, 교회, 성례, 성직자 등등 신자의 영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 있을 지라도 신자의 생명력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연합과 교제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모든 성례전적 요소들의 외형적 준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고 그런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33) John Cotton, Christ the Foundation of Life, pp.21-22

34) Christ the Foundation of Life, p.45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카튼의 경건은 청교도적 전통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4.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의 경건

존 오웬은 ‘청교도의 족장’이라는 칭호로 불리며 청교도 운동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는 청교도들의 ‘다윗왕’, ‘대들보이자 족장’, ‘가장 위대한 목사’라고 까지 칭송을 받았다. 제임스 팩커(J.I.Packer) 는 오웬이 ‘영적 거인들의 시대에 살았는데, 그는 그들 모두를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했다.³⁵⁾

그는 전 시대를 통틀어 청교도주의의 영광을 나눈 위대한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칼빈과 종교개혁의 전통적인 교리를 옹호했으며 가장 숭고하고 현실적인 신선함과 헌신적인 봉사에 대하여 중요한 책을 썼다.

오웬은 신자에게 상기시키는 데 결코 실증을 내지 않았던 자기지식의 네 가지 항목이 있다.³⁶⁾

첫째, 그리스도인은 인간이다. 그는 이성적 활동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목적에 따라 이해력과 의지와 감정을 부여받았다. 1) 정신 또는 이해력은 영혼의 선도적 기능이다. 이 기능의 직무는 인도하고 지시하고 선택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눈이다.³⁷⁾ 2)정신이 이해의 능력인 것처럼 의지는 행동의 능력이고 이성적 욕구이다. 즉 정신에 인도되므로 이성적이며 감정에 의해 자극되므로 욕구적이다. 의지는 선의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직 이성적인 선에 따라 선택한다. 하나님은 의지의 당연하고 필연적인 대상이다.³⁸⁾ 3) 감정은 사람들을 특별한 대상으로 이끌거나 또는 물리치거나 하는 선택들을 이끌어내는 정서적 연상의 미들 - 사랑, 소망, 증오, 공포 등 - 을 갖고 있는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다양한 충동들이다. 어느 정도의 감정이 없이는 절재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배에 키가 있는 것처럼 여혼에는 감정이 있다. 만일 숙련된 손이 키를 잡는다

35) 『청교도 실천신학』 p.198

36) 제임스 팩커(J.I.Packer), 『Among God's Giants』 박영호역 『청교도사상』 pp.270-275

37) Owen, Works, VI, 213, 216

38) Works, VI, 254

면 배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³⁹⁾ 무엇이 감정의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사로잡힌다. 우리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닮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인간은 마음으로 선을 알고, 일단 선을 알고 나면 그것을 바라고, 일단 선의 매력을 느꼈을 때에는 그것에 집착하도록 창조되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이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는데 감정이나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하심으로 진리의 설득력이 우리를 압박하게 하심으로 하신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⁴⁰⁾ 감정이 배의 키라면 마음이 키를 잡지 않으면 안 되고 향해 지도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이다. 따라서 교사의 첫 번째 과제는 주정주의(emotionalism)를 피하고 부단히 스스로 마음에 말하며 자기 양떼에게 성경의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오웬은 자신을 교사로 보았으며 그의 출판된 설교와 실천적 논문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원리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사역을 수행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인간이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멀어지게 했다. 죄의 열매는 영혼의 무질서와 인격의 분열이다. ‘정신 기능들은 서로 엇갈리고 정반대로 움직인다. 의지는 정신이 발전하는 선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보통 감정이 주권을 잡고 영혼 전체를 포로로 잡아 이끈다.’⁴¹⁾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이성적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변덕스럽고 서로 모순되는 정욕과 맹목적인 충동들에 의해 혼란되며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다(롬5:6). 왜냐하면 죄의 근원은 창조주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과 반감이며(롬8:7) 창조주를 속이고 도전하고 불순종하려는 비이성적인 선천적 욕망이기 때문이다. 오웬은 내주하는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 본성과 의도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다. 입법자이신

39) Works, VII. 397

40) A Praise from Anglican Article XX.

41) Works, VI, 173

하나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인 복음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은 죄의 법의 직접 대상이다.’⁴²⁾

그러므로 자기비하, 자기정죄, 자기혐오는 영원의 죄의 지배에 직접적으로 반항하는 또 하나의 의무이다. 마음의 구조는 죄의 독성에 대한 훌륭한 해독수단이 아니라... 모든 은혜가 성장하고 변성하게 될 토양이다. 항상 죄를 죄로 바로 느끼고 우리의 선천적인 죄에 대한 흥미를 바로 느끼고 우리의 삶의 행로에서 항상 죄에 대한 쓰라린 기억과 실례들을 갖고 있는 것이 영혼의 가장 좋은 자세이다. 우리 영혼을 항상 애통과 겸손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우리 지혜의 가장 필요 부분이며 복음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제공하는 위로와 기쁨과 일치하며 그 위로와 기쁨을 영혼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입시키는 유일한 길이다.’⁴³⁾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구속을 받은 인간이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빛을 갠시키고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를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영원한 구속언약 가운데 보증인이 되신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오웬은 이 사실을 명확히 보고 있다.

“그들은 복음의 생명과 능력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실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한 조항도 바르게 믿지 않고 있으며 그들의 심령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그의 감정은 그리스도께 이끌리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신앙을 구경거리고 삼는다고 말한다. 그들의 심령은 중보 역할수용과 수행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실제로 감동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에 대해 실제적이며 영적으로 분별있는 감정을 갖지 못한다. 우리 영혼

42) Works, VI. 178

43) Works, VII. 532

의 가장 열렬한 감정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기를 우리가 사랑으로 병이 나기까지 하며 그를 향한 우리 영혼의부단한 활동이 희열과 집착으로 압도되는 것을 단지 환상과 상상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기독교 신앙을 전혀 실제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⁴⁴⁾

넷째로 그리스도인은 중생한 인간, 곧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의 법칙과 순종의 습관이 그에게 주입되었다. 이것이 예언된 ‘마음의 할례’이다. ‘우리 안에 나면서부터 있던 죄의 맹목성과 완고성과 강박성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소유하고 있고 그 편견들로 인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회심을 방해하지만 이 할례로 인해 그 방해 요소들은 제거된다.’⁴⁵⁾

오웬에게 있어 경건은 그의 죄의식과 죄와의 싸움에서 엿볼 수 있다. 오웬에게 있어 죄와의 전투는 매우 중요하다. 죄는 매우 집요하여서 죄가 제거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신자의 죄와의 전투는 평생 이뤄져야 하며 끈질기게 이뤄져야 한다.

“때때로 영혼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가신 동거자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희망한다. 하나님의 어떤 은밀한 기쁨에 근거하여, 은혜의 충만한 공급에 근거하여, 방황으로부터의 귀환에 근거하여, 깊은 고뇌에 근거하여, 철저한 겸손에 근거하여, 불쌍한 영혼은 이제 죄의 법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바라고 시작한다. 그러나 잠시 후 죄는 다시 활동하며 자신의 옛 위험을 회복한다.”⁴⁶⁾

이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주정주의를 피하고 계시된 말씀 중심의 사상 속에서 꽃피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서

44) Works, I. 166

45) Works, III. 324

46) Works, IV. 204

중생한 자가 평생 죄와의 전투를 통해 성화되어가는 일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5.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의 경건

1) 리차드 백스터의 생애

백스터는 1615년 11월 12일 로우턴(Rowton)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그를 종교적으로 잘 훈련시켰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성경역사를 잘 설명해 주었고 비록 백스터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으로 더 안정되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허약한 체질을 가졌기에 규칙적으로 공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개인수업과 독서를 통해 지적 교양을 높여나갔다.⁴⁷⁾ 리차드 십스가 쓴 「상한갈대」를 읽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도 한 그는 Wickstead 목사와 함께 1년 반 동안 생활하면서 개인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그 후 존 오웬 밑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의 부음 소식을 듣고 고향에 돌아온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새 어머니를 맞이했는데, 그녀는 매우 경건하였고 백스터의 경건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⁴⁸⁾ 그는 듀드레이와 브링게노스에서 설교하기 시작했고 1641년 키더민스터의 부목사이자 강사가 되었다. 여기서 2년 동안 사역하다가 시민전쟁이 발발하자 의회 군대에 있는 군목으로서 짧은 기간동안 사역하였다.⁴⁹⁾ 1660년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고 성공회주의자들이 권한을 잡은 후에 비국교도들이 성직자단에서 축출되기 시작했는데 백스터도 1662년 영국교회의 통일령이 있을 후 교회에서 추방당하고 설교권도 박탈당했다. 1685년에는 설교 소란죄로 심문을 받아 감금되기도 했다.⁵⁰⁾ 리차드 백스터는 이처럼 혼란한 시기를 살았으며 어릴

47) Dargon, Edwin C. A History of Preaching, 김남준역, 『설교의 역사』(III), (서울:솔로몬, 1994), pp.170-171

48) N. H. Keeble, ed. The Autobiography of Richard Baxter,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4) pp.7-9

49) 『설교의 역사』(III), p.171

50) 이기문, 『기독교대백과사전』(7권, “백스터”) (서울:기독교문사, 1986) 그는 실제로 두 번 투옥되었는데, 한 번은 짧은 기간 동안이었으며, 또 한 번은 85년 2월28일부터 86년 11월24일까지이다. 두 번째 선고를 내린 사람은 조지 제프리스로 그는 백스터를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그에



때부터의 허약한 체질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저작활동에 충실하였다.

2) 리차드 백스터의 목회

백스터는 대표적인 청교도로서 많은 저서와 사상을 남겼던 목회자였다. 그가 어릴 때 그의 마을에는 4명의 목회자가 있었지만 모두 무지하고 도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설교를 하지 않았고 공동기도서를 읽거나 시편을 읽는 정도에 불과했다. 심지어 대리인을 두어 의식을 집행했고 자신들은 술에 취하여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살았다. 백스터가 살던 주변의 마을에는 대략 12명의 교역자가 있었지만 8년 동안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⁵¹⁾

이런 경험들은 백스터로 하여금 설교에 상당한 관심을 갖게 했고 실천적인 신학에 헌신하게끔 했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설교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다. 다시 말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심정으로 설교했다.⁵²⁾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더 실천적인 목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진리는 실천적일 때 가장 잘 학습된다고 보았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그런 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의 나쁜 건강은 내가 실천신학을 첫 번째로 연구하게 된 원인이었다. 나는 실천적인 순서에 따라 많은 실천적인 책들을 읽고 연구하였고, 나의 영혼을 채우고 개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⁵³⁾

게 씌어진 혐의는 그가 「Paraphrase of the New Testament」(1685)에서 영국 국교회를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51) The Autobiography of Richard Baxter, pp.3-4

52)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서울:이레서원, 2001), p.163

53) J. I. Packer, Among God's Giants. 박영호역, 『청교도사상』(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p.87-88

1638년 집사로 임명되기도 했던 그는 목사로서, 군목으로서 사역하면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 「참된 목자」, 「불신앙인의 초청」, 「기독교의 예배모범」 외에 많은 저작을 남겼다. 오늘날 백스터의 책은 많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의 통찰력과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속에서 경건과 거룩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다. 그는 열렬한 심정을 갖고 있었으며 복음주의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스펀전은⁵⁴⁾ “만일 변론의 기교를 알고자 한다면 그의 「참된 목자」를 읽어라. 리차드 백스터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자이다”라고 말한다. 「성도의 영원한 안식」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백스터의 심정을 문자화한 것이 라면 「참된 목자」는 목사로서의 그의 심정을 문자화시킨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백스터의 강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힘과 영혼을 환기시키는 능력이며 3세기를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

3) 백스터의 경건의 시작

백스터의 경건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시작되고 있다.

백스터는 죄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죄의 본질은 우주의 절대적 주권자에 대한 피조물의 반역이며 불복종이다. 또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가장 고결한 피조물을 타락시키고 지극히 고결한 능력들을 남용시키는 것이며 또 이러한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그 어느 것으로도 씻어버릴 수 없는 얼룩이다. 교회는 죄를 미워해야만 하며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가증스럽게 여기고 쫓아내야 하며 주님의 종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어둠의 무익한 활동들과 우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자신이 피조물을 미워하실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죄가 있을 때뿐이다.”⁵⁵⁾

사탄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망각을 통하여 너무도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54)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지상우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9), p.29

55) Fant&Pison, 20Century of Great Preaching an Encyclopedia of Preaching. 신문구역, 『세계명설교대전집』 2권, (서울:성서연구사, 1984), pp.430-431

인간의 회심은 하나님이 이성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있게 된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불행은 그들이 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것을 위해 그 이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다.⁵⁶⁾ 마찬가지로 목회자들 또한 자기의 죄에 대한 깊은 우려와 조심성이 없다면 죄에 의해 지배될 것이다.

만일 죄 없는 아담이 조심할 필요가 있었고 조심하지 못하여 멸망했다면 우리 같은 죄인은 얼마나 더 조심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설교할 때에도 죄는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마음에는 수많은 반역자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없단 말인가! 우리는 어린아이가 허약할 때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가장 강해 보이는 우리들이 실은 얼마나 약한지! 심지어는 지푸라기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는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 우리를 유혹해서 바보로 만들어 쓰러지게 하고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걱정과 쓸데없는 욕망으로 불타게 하며, 결심을 약하게 하고, 열성을 식게 하며 부지런함을 꺾으려 드는가! 목사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담의 후손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적하는 죄인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근본적인 죄를 증가시켜 왔다. 이와 같이 믿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만일 조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우리를 속일 것이다.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뿌리까지 제거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오만함과 세속성 그리고 수많은 해로운 악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많은 약점들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성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⁵⁷⁾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백스터에게 있어 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죄는 불신자 및 모든 신자, 심지어 목회자의 육체와 영혼 속에서도 강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누구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죄의 불꽃에 휩싸이게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어린시절

56) 『세계명설교대전집』 2권, p.415

57)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지상우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9), pp.84-85

자신이 살던 마을을 담당하던 목회자들의 도덕적 문제들을 겪었던 백스터로서는 목회자가 범하는 죄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과 그것이 미치는 큰 영향 때문에 목회자는 더욱 죄 앞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죄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해야 했다.

“오,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정욕과 열정과 세상적인 것의 추구를 떠나 믿음과 사랑과 열심히 살아가야 하며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보살피지 않고 부패케 하는 것을 정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만일 이러한 작업을 평생을 두고 꾸준히 해나가야 하는 자신의 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어긋나게 되어 당신의 마음은 굽주리게 될 것이다. 또한 만일 우리가 열심을 가장하려 든다면 그 열심에 수반되는 높은 곳으로부터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특히 남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와 묵상에 힘써야 한다.”⁵⁸⁾

백스터에게 있어서 경건의 시작은 자아성찰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에 온전히 새겨져있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자아성찰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피조물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실제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결국 파멸로 치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피조물과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 피조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잃어버리게 되고 특히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에도 도달하지 못한다. 그가 얻은 지식은 공허한 관념⁵⁹⁾이었고 피조물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환상적인 지식인데, 이런 지식은 불행한 지식이다. 실로 모든 사람은 헛된 걸음을 걷고 쓸데없이 마음을 어지럽힐 뿐이다. 바로 여기에서 경건이 시작된다. 경건은 인격적 존

58) 『참된 목자』 p.68

59) 『참된 목자』 p.62

재로 지음 받은 인간이 피조된 계획과 목적에 부합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경건치 못한 것에서 나온 일체의 지식과 행위는 본래의 계획과 의도에서 벗어나 헛된 길에 빠진 것이다. 경건한 사람이⁶⁰⁾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해내는 가장 훌륭한 학생이며 오직 경건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배우거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은 위대하며 그 일을 행함으로써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의해 추구되었지만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만드신 창조주를 위해서 추구되었다. 경건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청교도에게 있어 죄인들의 구원이라는 말은 단지 그들의 회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 가운데 영적 건강과 힘과 헌신적 순종으로의 성장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거룩’까지도 의미했다. 청교도는 이 위대한 말을 경건한 삶의 모든 국면과 범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⁶¹⁾

4) 경건에서의 은혜의 역할

백스터에게 있어 행위는 경건을 이루는 데 있어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 행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경건한 삶을 요구받는 데 따른 진실한 반응일 뿐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성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원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께 드린바 된 사람, 거듭난 사람, 죄의 해악과 죄로 인한 자신의 비참과 피조물의 헛됨과 그리스도의 전적으로 충족하심을 깊이 깨닫는 사람, 뜻을 균형 있게 변화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사람, 약속 가운데 굳게 참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성품으로 자신을 살필 것을 권한다.⁶²⁾

그러나 이것이 경건을 위한 성도들의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백스터는 성도들이 경건을 위해 힘쓰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건을 이

60) 『참된 목자』 p.63

61) 『청교도사상』 p.45

62) 리차드 백스터, The Saint's Everlasting Rest. 김기찬역, 『성도의 영원한 안식』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p.73

루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행위구원이 되기 때문이었다. 백스터는 그의 책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다음과 같이 경건에 있어서 은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의 열매가 성도들의 안식의 가장 뛰어난 영광이다. 참으로 그것은 보혈의 가장 주된 열매, 즉 보혈의 모든 열매들과 그 효과의 목적이자 완성이다.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우리의 구세주는 이 일을 언제나 우리 눈앞에 있게 하시며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여전히 가장 생생하고 또렷하게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보혈의 시냇물에서 세상의 악과 사탄의 올가미와 육체의 유혹과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와 죄책을 진 양심의 고소와 불신앙의 마음을 괴롭히는 의심과 두려움들을 거슬러 헤엄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다.”⁶³⁾

5) 경건의 실천: 목회 현장

백스터의 경건은 그의 목회 현장에서 더 빛을 발한다. 은밀한 기도와 묵상에 깊이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생명과 기쁨을 가진 사람들⁶⁴⁾이라고 믿었던 백스터는 자신의 목회 속에서 그 사실을 실천하였다. 회심은 하였으나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은 그에게 무척 슬픈 일이었다. 성도들이 충분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열심을 내어야 한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 노력하고 이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며,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악을 피하고 신중함과 겸손, 그리고 열성과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그같이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빛이 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이다.⁶⁵⁾

63) 『성도의 영원한 안식』 pp.51-52

64) 『성도의 영원한 안식』 p.58

그러므로 신도들을 갈고 다듬어 그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며, 주를 올바로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목회 사역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더 이상 회심한 자들의 죄를 간과하거나 그 죄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양떼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에 대항하여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옳지 못한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루어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견책을 견디지 못하며, 잘못 행하면서도 경건의 외양을 즐긴다. 목회자들은 죄인들이 아무리 성미 까다롭게 군다하여도 자기의 해야 할 바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형제를 미워하여 그의 죄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그의 영혼이 죄를 탐닉하도록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신중하게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⁶⁶⁾

제3절 청교도의 경건

1. 청교도의 경건의 특징

초기 청교도들의 꿈은 영국국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꿈이 무위로 돌아가자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교회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 경건을 개인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때부터 ‘안식일 준수’, 인격적인 경건, 그리고 ‘건전하고 실천적인 경건을 향한 욕구’⁶⁷⁾와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강조사항들을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람들에는 리차드 그린햄, 리차드 로저스, 헨리 스미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윌리엄 퍼킨스도 이러한 부류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금사슬」에서 ‘그는 명료하고 읽기 쉬운 이야기를 전개했으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칼빈주의적 이해를 배경으로 죄와 중생과 성화를 심리적으로 설명했다.’⁶⁸⁾ 이것을 톤(Toon)은 ‘가족종교’라고 개념 지었다.⁶⁹⁾ 사실상 1590년대에 ‘가족종교’는 청교

65) 『성도의 영원한 안식』 p.113

66) 『성도의 영원한 안식』 p.114

67) Peter Toon, Puritans and Calvinism (Swengel, Pa.:Reiner Publication, 1973), p.20

68) Puritans and Calvinism, p.20

도 영성의 중심적인 특색이 되었다. 가정에서 경건한 삶과 가족을 경건하게 이끌어가는 아버지의 중요성은 안식일 성수를 상당히 강조했던 것과 더불어 그때 당시 청교도 운동의 특징이 되었다.

청교도들이 외부적인 데서 내면적인 방향으로 개혁운동의 스타일을 바꾸자 영성의 스타일도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직접적이고 외부적인 형태의 국가교회를 개혁하겠다는 청교도들의 열정적인 관심은 군주통치와 대조적으로 그들의 정치적인 세력이 미비한 이유로 좌절되었다. 이 때부터 많은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에 대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영성의 변화를 꾀하였다.

그런데 17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의 영성에서 주요한 주제는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차원을 독특하게 강조한 그리스도와의 교제 및 그 분을 향한 헌신에 대한 가르침이었다.⁷⁰⁾ 1604년 햄프턴 공의회(The Hampton Court Conference)는 제임스국왕의 청교도 박해를 일으키는 공식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제임스는 고전적인 칼빈주의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를 따르지 않고 재빨리 우세한 위치에 있던 영국 국교회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는 공의회에서 청교도들의 제안을 일축했다. 국가교회를 개혁하려던 청교도들의 꿈은 물거품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자들의 도덕적인 탁월함과 경건생활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임스 치하에서 청교도들은 당시의 상황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말씀 선포에 힘을 기울였다. 국민들은 고위 성직자들의 손에 있는 교회에 만족하지 않았다. 왕궁의 지배를 받는 교회 사역은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청교도들의 설교는 신선하고 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복음을 간단한 언어로 제시했다.⁷¹⁾

영국에서 시민운동이 일어날 즈음인 17세기 전반부를 통해서 또 다른 전환이 청교도 영성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전환에는 거룩한 삶의 윤리적 행실을 강조하는

69) 『칼빈과 청교도 영성』 P.311

70) 『칼빈과 청교도 영성』 P.306

71) 『칼빈과 청교도 영성』 pp.307-308

종류의 영성으로부터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차원의 영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수반하고 있었다.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까지는 윤리적 영성이 강조된 반면 그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령, 내적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강조는 17세기 전반부를 통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갈수록 힘든 역경과 불안정을 경험함으로써 발전된 것이다. 그들의 선배에게서 따뜻하고 실천적인 영성이 현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스, 카튼, 오웬 등과 같은 후기 청교도들에게서 이러한 애정적인 영성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었다. 이와 같은 강조점의 전환은 급속도로 시민전쟁을 향해 치달음에 따라 영국의 청교도들이 겪던 불안정에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⁷²⁾

2. 청교도 영성의 특징

청교도의 영성은 신비주의자나 로마교회 또는 현대 오순절주의자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청교도들은 신령주의적인 신비주의와 달리 성경교훈의 실천을 통한 경건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신비주의자들은 신적인 존재와 만나 교류하는 것을 신학의 본질로 삼지만⁷³⁾ 청교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여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감으로 경건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신령주의자들이 신과의 존재론적인 합일을 추구한 것과는 달리 청교도들은 윤리적인 변화 즉 성화를 추구하였으며, 로마교회가 성화(聖畵)나 성상을 바라보거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목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고자 했던 것과는 달리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만을 목상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은사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했지만 청교도들은 풍성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청교도의 영성은 로마교회나 오순절주의와 신비주의가 추구하는 주관적인 체험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성경 말씀의 실천에 초점을 맞췄다.⁷⁴⁾

72) 『칼빈과 청교도 영성』 p.318

73) 신비주의자들은 영성을 개발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 속에 완전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락과 함께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만한 모든 것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자연인의 영성개발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고 오직 거듭난 신자들만 논할 수 있다.

청교도들은 매일 성경을 묵상할 것을 독려했다. 청교도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리처드 베이커 경(Sir Richard Baker)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의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이고, 밤에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낮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과 같은 부류가 아님을 보여줄 것이고, 밤에는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임을 드러내야 할 것이다.’⁷⁵⁾라고 말하였다. 더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가 이루어진다(딤후4:5)는 확신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삶의 현장에 실천함으로 성화의 삶을 추구하였다.⁷⁶⁾

청교도의 영성은 구원론적인 데 특징이 있다. 그들의 구원론은 칼빈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의 구원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두철미하게 강조했던 칼빈에 의하면 인간이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하여 찾아 나서지도 못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유스런 은혜로만 부르심을 받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⁷⁷⁾

청교도들에게 구원의 서정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신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인간에게 죄에 대한 뉘우침과 스스로 낮춤이 필요하다. 회심은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성령께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 마음을 열어 참회하도록 이끄신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단계인데, 성화

74) 오덕교, 『언덕 위의 도시』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4, p.276

75) I.D.E.Thomas, compiled, The Golden Treasury of Puritan Quotations(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5), p.32

76) 『언덕 위의 도시』 p.278

77) 『언덕 위의 도시』 p.279

와 관련된 이 부분에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에 의해,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인격적으로 거룩해진다. 죄의 구속력이 약해지고 죄의 지배세력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정욕이 점점 더 약화되어 경건을 실천하게 된다.

성화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 글므로 성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여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영적인 노력을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청교도들은 성화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고 행각하였다. 성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며 죽음의 순간에 영화가 준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청교도들은 성화와 경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⁷⁸⁾

3. 청교도의 경건과 부흥

제임스 패커는 부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나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영적 사망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믿음을 전달하시고 활기 없이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삶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라고 정의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 가운데 옛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에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시고, 마음과 양심이 눈멀고 딱딱하고 차가운 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각성을 주신다. 따라서 부흥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 모임들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또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사회에 신령하고 도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한다. 부흥은 최초의 부흥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이 축복이 지속하는 동안에 유지되는 부흥된 상태로 이어진다. 사도행전의 처음 몇 장을 모범으로 택하여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부흥의 표적들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감과 복음의 진리를 들 수 있다. 곧 죄에 대한 깊은 각성은 깊은 회개로 이어져,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다음에 영의 강력한 자유를 표현하는 언어의 강력한 자유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을

78) 『언덕 위의 도시』 p.280

억제할 수 없이 증거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서 은혜의 역사를 강화하고 급속하게 진행시키심으로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 거꾸러지고, 성령에 의해 변화를 받게 된다.⁷⁹⁾

청교도들은 무엇보다 영국교회가 영적으로 흥하는 것을 보기 원했다. 영국국교회 속에 잠들어 있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죽어가는 영을 살리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자 했다.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여 개인과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며 살게 되기를 소원했다. 청교도 전도자들은 싫지만 듣지 않을 수 없는 청중들을 거느린 목회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교회 출석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생활의 일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회자들에게 있어 회중석에 정기적으로 앉아있는 자들에게 대한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 회중들을 세우는 그들의 보다 넓은 과제의 중요한 부분 이하도 이상도 아니었다. 그들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보다 더 특별하지도 않았다. 즉, 끈기 있고 철저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며 적용하고,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대한 신뢰에 있어 넓은 범위까지 나아가지만 부단히 세 가지 주제로 돌아오는 것이다. 첫째 주제는, 회심되고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의 필요성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였다. 둘째 주제는,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기보좌에서 무거운 짐을 진 영혼들을 구원받으라고 자신에게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였다. 셋째 주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무지한 자기만족으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얻고, 자기 절망을 하고 명석한 머리와 진심의 믿음의 길로 여행할 때 마주치는 오르막과 내리막과 장애와 함정들이었다. 이 세 번째 주제를 나타내는 청교도 방식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진리들에 계속 변화를 주며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 네 가지 진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의무와, 어떤 보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신앙에 안주하는 위험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의 불가능함과, 이 은혜를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79) 『청교도 사상』 pp.39-40

것이였다. 공식적으로는 강단에서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개인적 상담에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비개종자의 당면한 의무를 강조했다.⁸⁰⁾

이처럼 청교도들의 영성과 경건함은 자연스럽게 교회 내의 영적갱신을 일으켰고 그들의 영성은 교회를 넘어 비개종자에 대한 영적, 도덕적 영향을 끼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들의 복음전도는, 죄인의 회심은 신적 권능의 은혜롭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확신의 실천에서 나타나는 일관된 표현이였다.⁸¹⁾

제4절 독일 경건주의에 끼친 영향

청교도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청교도주의는 칼빈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인 교회운동으로써 약 1550년부터 시작되었고 경건주의는 청교도주의의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 ‘개혁과 경건주의’는 약 1665년에, 그리고 ‘루터파 경건주의’는 약 1675년에 출발하였다. 이 경건주의는 청교도주의의 강력한 뒷받침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운동이다. 두 운동은 교회사적으로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를 배경으로 한, 특히 경건주의를 바로 이해하고자 할 때는 청교도주의의 언급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건주의가 일반적으로 루터파 경건주의로 이해되며 그의 창시자 필립 야콥 슈페너만 알려져 있지 개혁과 경건주의가 앞선 시대 그리고 강한 영향을 루터파 경건주의에 주었음에도 거의 사장되어 왔다.⁸²⁾

16세기 영국의 청교도주의는 17세기 경건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많은 개혁교회 경건주의자들이 영국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다.

개혁교회 경건주의자 타핀(Taffin)은 1599년 브라운주의자들(the Brownists)과 서신 왕래를 하였다. 개혁교회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릴 테링크(W. Teellinck)는 여러 차례 영국에 머물렀고 거기서 도드(John Dod)와 힐더샘(Hildersam)의

80) 『청교도 실천신학』 p.523

81) 『청교도 실천신학』 p.516

82) 주도홍 편저, 『독일의 경건주의』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1년), p.152

영향을 받았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한 퓨리턴의 경건을 극적으로 묘사한 바 있는데 그의 회심은 이 청교도의 집에서 일어난 듯하다. 그는 영국 여인과 결혼했으며 영국 회중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으며 퍼킨스의 저술들을 번역하였다. 저지대국가들의 경건주의 운동의 초기 신학자로 간주할 수 있는 아메지우스(Amesius)는 케임브리지에서 수학하였고 퍼킨스의 제자였다. 다음 잘데누스(Saldenus)는 아메지우스의 영향 아래 있었다. 독일 경건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인 네테니우스(Nethenius)는 볼턴(Bolton)과 백스터(Baxter)의 저작을 읽고 작성하였고, 경건주의를 독일에 유입한 운테라이크(Untereyck)는 상당한 시간을 영국에서 보냈다. 라이츠(Reitz)는 사실 경건한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감의 책이었던 그의 「중생의 역사」에서 많은 퓨리턴들의 일생을 요약했는데, 이 중에는 도드, 휘터커, 백스터의 전기도 수록되어 있었다.⁸³⁾ 청교도의 사상과 경건은 이처럼 독일을 포함한 대륙의 경건주의에 영향을 주면서 17세기 경건주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제5절 결론

청교도들은 거룩을 실천하고 확립하며 영국을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사명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었다. 죄를 억제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고 성경에 통달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정기적이며 끊임 없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제임스 팩커는 청교도주의의 진수를 ‘설교와 기도, 선교와 팸플릿,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들의 추구 그리고 가정과 지방 학교로부터 대학들에 이르는 모든 수준에서 자각을 일으키는데 전심전력했던 것’⁸⁴⁾이라고 규정했다. 청교도들은 신앙에 대한 교훈을 부지런히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일에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중심은 경건이었으며 제임스 팩커는 그들의 경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83) 에르네스트 슈투플러 송인설, 이훈영역 『경건주의 초기역사』 (서울:솔로몬, 1993년), pp.200-201

84) 『청교도 사상』 p.458

“청교도의 경건에는 네 가지 특성이 눈에 띈다. 첫째는 겸손이다. 겸손은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거하며 끊임없이 용서받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교화된 자기 낮춤이다. 둘째는 수용성이다. 이것은 자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에 의해 가르침과 수정과 지도를 받는 개방성과 즐거운 섭리들에 의해서 격려를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실망과내적인 황폐의 어두움에 의해서도 연단을 받으려는 자발성과 원숙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평탄한 것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것까지도 바른 모양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믿는 자세라는 의미에서의 수용성이다. 셋째는 송영이다. 이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모든 것을 예배로 변화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열정이다. 넷째는 원동력, 즉 청교도의 진정한 도덕적 행위의 영적 원동력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에 앞서 행해져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게으름과 수동적인 태도를 비신앙으로 정죄하였다.”⁸⁵⁾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믿었다. 또한 인간의 전적타락과 부패로 인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선택한 백성들이 중생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다. 그러므로 경건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에서 시작하여 육체와 싸워 성령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갱신되고 도덕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들이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만 깊이 관여한 듯이 보이고 교회개혁에만 관심을 보인 것처럼 보여 마치 이들에게서 학문적인 깊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 청교도 운동은 주로 목사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들은 대부분 대학출신으로서 당대에 해박한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으며, 라틴어로 진행되었던 논쟁들에서도 뒤짐이 없었고 성경주석과 당시의 신학적 논쟁에서도 뒤떨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도전은 영국국교회 내에서 영적침체 속에 빠진 신자들의 삶에 영적, 지적인 갱신을 불러왔고 장차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위한 길을 열게 되었다.

85) 『청교도 사상』 p.460

제4장 독일경건주의

제1절 배경

17세기 초반 대학과 김나지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다시 등장함으로써 루터교는 교리의 경색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정통주의자들은 루터교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보존하면서 진리를 용인된 문구로 전달하려 했지만 용인된 어법에서 조금만 이탈해도 이단이라는 의심을 받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리는 합리적으로 정리된 명제들에 있다고 여겨졌으며 믿음은 이런 명제들에 대한 개인적인 동의로 이해되었다. 루터교 정통주의는 기독교의 신앙을 신학화 하는데 있어서 도리어 왜곡의 길을 가게 되었다. 성경의 권위를 말하기는 했지만 진정한 권위는 성경에 대한 정통적인 관점에 있는 것이지 성경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정통적 관점의 용인된 표현형태로부터의 이탈은 성경으로부터의 이탈로 여겨졌고 그래서 이단으로 간주되었다.¹⁾ 성경해석은 정통주의 신학체계 안에 표현되어 있는 루터교의 신조의 관점을 통해 이뤄졌으며 성경은 그저 증거본문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 17세기 루터교 정통주의는 중생이후의 성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행위를 통한 의’ 혹은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신앙이라고 비난했다. 그 결과 평신도들은 기독교가 교리적 신념일 뿐만 아니라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설교도 윤리적이 못하고 논증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당시 교회는 국가교회였다. 교회는 세속 통치자의 손에 있었는데, 세속 통치자들의 삶이란 매우 방탕하였고 교회는 이들에 대한 권징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시민들은 출생에서부터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교회의 윤리와 가르침에 따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적 윤리는 일반적인 사회윤리와 다름없는 것으로 여겨져 기독교적 윤리가 이완되어 갔다. 목사들의 설교는 메말라갔고 교인들은 일주일 내내 술과 춤에 취해 있었고 심지어 주일에 조차 이런 일이 난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17세기의 루터교 내에서는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루터교 내의 경건주의 운동의 흥기

1) 에르네스트 슈투플러 송인설, 이훈영역 『경건주의 초기역사』 (서울:솔로몬, 1993년), pP.300-301

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제2절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 1635-1705)

1. 슈페너의 생애와 사상

필립 야콥 슈페너는 경건주의의 창시자이고 독일 개신교사에서 제2의 종교개혁자로 불려지고 있다.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영적성장에 있어 가정의 영적 분위기에 의해 많이 영향 받았으며 유년시절부터 아른트의 「참 기독교에 관한 4권의 책」을 읽었다. 어려서부터 교회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아른트의 경건과 퓨리턴의 경건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1651년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역사학, 철학 그리고 언어공부를 하였으며, 슈미트(Schmidt) 아래에서 신학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은 신학에 있어서 엄격한 루터교인들이었다. 하지만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진 슈트라스부르크에서는 전형적인 루터교 중심지와는 달리 신앙의 실천적 경향이 강하였다. 여기서는 아이들의 종교교육이 다른 곳보다 더 진지하게 취급되었고, 예배가 더 단순했고, 목회적 심방이 규범화되어 있었다. 슈페너는 1659년까지 여기서 공부하고 강의했다.

이 기간에 그는 그의 「독백과 거룩한 명상」을 저술하였는데 이것은 아른트식의 신비주의와 매일의 세세한 경건에 대한 퓨리턴의 관심을 놀랍게 결합시킨 것이었다.²⁾ 1659년 얼마 동안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설교한 후, 슈페너는 1666년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자겸 수석 성직자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19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경건한 소망」을 출판하고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실제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수석 목회자로서 그의 임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중심적인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그 도시의 10여 명의 성직자 모임을 주관하고, 새로운 목회자들을 안수하여 교회로 파송하고, 목회기록을 해 나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한

2) 『경건주의 초기역사』, p.370

시민 정부의 법적인 권위 때문에, 개혁을 시도하려는 그의 자유는 심각한 제한을 받았다. 이는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669년, 후일 출판될 개혁에 관한 소책자 「경건한 소망」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설교를 하였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다정한 친구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앉아 술을 마시다가 카드놀이를 하는 대신, 서로간의 유익을 위해 책을 읽어 주거나 이미 들은 설교 내용 가운데 어떤 것에 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리고 신적인 신비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약한 형제들을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들이 자기의 갈 길을 찾을 능력이 없을 때, 설교자가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악이 힘을 잃고, 축복 받은 주일이 모든 이들의 교회와 넘치는 은혜로 거룩하게 될 것인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교에 대한 월등한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적인 사제의 능력으로 이웃들 사이에서 그들이 받은 은사와 고결한 성품에 따라 개혁을 위해 우리와 더불어 노력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설교자들이 오직 강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³⁾

슈페너는 바리새인 적인 거짓된 경건을 비판하는 설교를 하면서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 들은 설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경건한 삶을 위하여 애쓸 것을 권하였다. 이것이 ‘경건의모임’(collegia pietatis) ‘은밀한 집회’(conventical)에 관하여 슈페너가 말한 최초의 언급이다.

다음해(1670) 8월에 슈페너가 목회하던 교회의 신자 몇 명이 슈페너에게 찾아왔다. 이들은 당시 교회의 타락한 상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부도덕한 오락과 쓸데없는 잡담이 만연하고 있는 것

3) Spener, Erbauliche Evangelisch-und Epistolische Sonntags Andachten, (Frankfurt,1716), p.638

을 보면서 이 몇 명의 신앙인들은 무언가 진실한 성도의 교제를 원하고 있었다.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의 욕구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슈페너 목사를 찾아와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실현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이들의 제안에 대하여 슈페너목사는 자신도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목사관 서제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사적인 소그룹 모임을 열기 시작하였다.⁴⁾

1670년 8월에 시작된 경건의 모임은 주일과 수요일 저녁기도시간 후에 모였다. 여름에는 5시쯤, 겨울에는 4시쯤이었다. 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슈페너가 기도한 후, 신앙 서적을 몇 쪽 읽고 읽은 내용을 슈페너가 요약하여 말한다. 그리고 특히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에 대하여 얘기하였다. 그런 다음 모인 사람들이 읽은 내용에 대하여 자유롭게 질문도 하고 자신의 의견도 이야기하였다. 읽은 내용에 대한 대화가 끝나면 다른 주제도 다룰 수 있었다. 정치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도 대화 거리가 될 수 있었다. 이 모임에서는 지난주일 설교에 관하여 토론하거나, 성경 또는 영감 넘치는 책들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고 묵상하였다. 그리고 날마다 경건한 신앙 서적을 읽었다.

슈페너는 ‘경건의 모임’이 시작된 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임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경건의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 슈페너의 노력으로 모임은 점차 개방되어 갔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1670년 말에 15~20명 정도였고, 이듬해에 참석자가 더 많아지자 슈페너는 동료 목사들에게 많은 종류의 모임을 만들라고 권면하였다. 1675년에는 50명 정도가 되었고 1682년에 교회로 모임 장소를 옮겼을 때에는 몇 백 명이 참석하는 모임으로⁵⁾ 커졌다.⁶⁾

4) Philipp Jacob Spener, Sendschreiben An Einen Cristeyffrigen ausslendishen theologum(Frankfurt a.M.,1677), 영인본 Philipp Jacob Spener Schriften 제 1권(Hilde shei, New York,1979), 733ff. 이 글은 전반적으로 프랑크푸르트의 경건의 모임에 관한 해명을 담고 있다. 특히 766ff를보라

5) 지형은, “소그룹 경건의 모임의 시작” 『그 말씀』 1966년 3월 pp.71-72

6) 프랑크푸르트 경건의 모임이 유명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그 당시 공적인 교회 모임 말고 다른 사적인 모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2) 슈페너의 위치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독

슈페너는 경건의 모임을 자신들이 처음에 가진 생각, 곧 경건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쪽으로 이끌지 않았다. 슈페너는 모임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구경하는 것도 가능했다. 초창기에 모임을 주도했던 식자층이 떠나면서 경건의 모임에는 평범한 사람들 곧 높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해가 감에 따라 슈페너는 참 신자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들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따라서 독일 각 곳에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불리는 모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인적 모임들이 차츰 분파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바벨’이라고 부르며 비난하기 시작했고, 목사들을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고 단정하며 멸시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를 ‘은혜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참석하기를 거부했으며, ‘합당하지 못한’ 목사들이 베푸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금하게 되었다.⁷⁾

2. 경건한 소원(Pia Desideria)

「경건한 소원」은 1675년 슈페너가 40세 때에 프랑크푸르트 수석목사로 있을 때에 쓰였다. 당시 1600년대에 아른트의 진정한 기독교를 비롯하여 그의 책이 대중적으로 읽히고 있었다. 그런데 1675년 프랑크푸르트의 출판업자인 쥘너(Johann David Zunner)가 요한 아른트(Johann Arndt)의 복음서 설교집을 발표하면서 슈페너에게 서문을 써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당시 독일 내에서는 교회개혁의 흐름이 있었고 이에 슈페너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힐 목적으로 서문 2절지 27쪽 분량으로 글을 실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의 요청 때문에 이 서문이 같은 해 가을 책시장에 단행본으로 따로 출판되었다. 그 단행본에 붙은 제목이 바로 「경건한 소원」(Pia Desideria)이었다. 경건과 소원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서문과 본론이다.

일 전역에서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는데, 슈페너는 그 도시의 수석 목사였다. 3) 프랑크푸르트는 박람회 도시였다는 것이다(지형은, “1674년 겨울” 「그 말씀」 1966년 4월, pp.63-64)

7) 배경식 『경건과 신앙』(서울: 한국장로교회 출판사, 1998) pp.171-172

본론은 다시 셋으로 쪼갤 수 있다.⁸⁾

- (1) 교회 현재상태를 ‘진단’함 -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어서 타락함
- (2) 장래 상태를 ‘예측’함 -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나은 교회 상태를 약속하심.
- (3) 교회개혁을 위하여 ‘처방’함 - 6가지 구체적인 제안

서문의 내용은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세 부분으로 나뉘는 본론은 슈페너의 신학사상과 그의 주장을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세 부분을 간략히 고찰한 후 슈페너의 신학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

본론의 첫 번째 부분 - 현재의 타락한 교회 상태를 진단함.⁹⁾ 슈페너는 교회가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파헤쳐 간다. 슈페너는 곧 분석의 대상을 “복음적 교회(Evangelische Kirche) 곧 루터파 교회로 좁힌다. 루터파 교회가 타락하여 비참하게 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그러하다. 첫째는 육체적인 것으로서 페스트, 굶주림, 전쟁 등이다. 슈페너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배려로 본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무섭고 위험한 것은 두 번째 것으로서 영적인 것이다. 슈페너는 영적인 것을 더 큰 문제로 보았다.

성직자의 타락은 두 가지로 나뉜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과 스스로의 상태에서 타락한 모습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나중 것이다. 평민의 타락도 둘로 구분된다. 일반적인 삶에서의 타락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의 타락상이다. 하나님을 섬기는데서 드러나는 타락이 더 크게 문제된다.

슈페너에 의하면 모든 계층이 타락한 근본원인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der wahre bzw lebendige Glaube)’이 없는 것이다.¹⁰⁾ 슈페너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바른 교리와 그에 따른 열매로 보았다.

본론의 두 번째 부분 - 미래의 영광스러운 교회 상태를 예견함¹¹⁾ 성경에는 주님

8) 지형은, “경건주의와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 「기독교사상」(1996년 2월호), p.100

9) “경건주의와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 「기독교사상」(1996년 2월호), p.103

10) “경건주의와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 「기독교사상」(1996년 2월호), p.104

의 계림 말고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두개 있다고 슈페너는 말하면서, ‘하나의 많은 유대인이 개종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바벨론(로마 카톨릭교회)의 멸망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더 “영광스러운 상태”를 언급하면서 조심스럽게 천년왕국을 표현했다.

이 때문에 슈페너는 그리스도인의 완전론(V ollkormmenheit der christen)과 교회의 완전론 ((V ollkormmenheit der christen)을 전개한다. 그는 절대적인 완전은 거부하지만 가라지가 있더라도 알곡의 열매가 풍성하여 가라지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이 땅에서 교회가 도달할 수 있는 완전으로 제시한다.

본론의 세 번째 부분 - 교회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여섯 가지 방법¹²⁾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갱신의 핵심이다. 그래서 슈페너는 사람들의 소그룹모임(경건의 모임, Collegia Pietatis)을 제안했고 이러한 소모임을 1670년에 쓴 한 편지에서 “교회속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라고 표현했다.

두 번째 제안은 ‘만인 제사장직’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이다. 평신도와 목회자는 경쟁이나 대립이 아니라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영적 제사장직의 실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 나누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실천적인 삶에 관계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슈페너는 교리적 논쟁이나 변증보다는 기독교의 근본덕목으로 사랑이 더 우선임을 강조한다.

네 번째는 신학교육의 개혁에 관한 것이다. “신학의 본질은 실천에 있다 (Theologia ist habitus Practicus)”는 것이다.¹³⁾ 슈페너는 신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습득이나 학업 성적보다 경건한 삶과 신앙성품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신학교육에서 학문적인 전문성과 깊이가 필요함은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훈련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11) “경건주의와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 ” 「기독교사상」 (1996년 2월호), p.104 재인용

12) “경건주의와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 ” 「기독교사상」 (1996년 2월호), p.105

13) “경건주의와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 ” 「기독교사상」 (1996년 2월호), p.106

다섯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생활에 강조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는 설교는 아른트의 주석집(Postil)안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설교들이 선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건한 소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슈페너의 신학은 성경연구를 통해서 특히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신자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각성하여 무장하고 만인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교리적 지식이나 논쟁, 변론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슈페너는 지식을 전혀 무시하지 않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인체험을 가질 것과 성령을 통한 거듭남의 경험이 요구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슈페너가 강조한 것은 중생의 경험이었는데 칭의를 중생의 소산물로 보았다. 그가 말하는 중생은 심령의 내적변화와 변화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였다. 그러므로 슈페너에게 있어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은 이 내적인 변화를 믿음에서의 본질적인 기본적 측면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실과, 칭의의 개념을 확대하여 거기에 내적인 새 창조까지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¹⁴⁾

제3절 프란케

1. 프란케의 생애와 사상

아우구스트 헤르만 프란케(August Hermann Francke:1633-1727)는 고아들의 아버지(Der Vater der Waisrn)와 슈페너의 주된 지지자들 중 한 사람으로 슈페너의 실질적인 후계자로서 독일의 경건주의운동을 사회봉사로 이끈 경건주의 운동가이다. 그러므로 프란케의 업적은 슈페너와의 두 사람 사이의 연속성 상에서 살펴보아야한다.¹⁵⁾

프란케와 슈페너의 연속성 중에는 요한 아른트(Johann Arndt)의 영향력을 빼놓을 수 없다. 슈페너와 마찬가지로, 프란케는 아른트적 영성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훗날1700년대 초에 이르러 아른트의 인기를 높이고 그의 저서 「진정한

14) 뱃트 헤그룬트,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1995)p.458

15) Howard A. Snyder, signs of the spirit 명성훈역 (서울:도서출판 나단,1994) p.98

그리스도교」를 수 개 국어로 번역되어 만든 데에서 프란케의 영향력이 일익을 담당했다.¹⁶⁾

1686년 라이프치히에서 강의하는 동안 프란케는 성경 연구를 위한 한 작은 모임(collegiurn philobiblicum, 언어성경연구회)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 모임은 1686년 6월 18일 오토 멘켄(Ott. Mencken)교수의 집에서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다. 젊은 학자 8~9명의 교수들과 주일날 모여 이루어진 이모임으로 프란케는 곧 이 모임의 지도자가 되었다.¹⁷⁾ 그들은 주일 오후마다 모여 철학적이면서 언어주석학적인 연구를 공동으로 시작하였다. 이들은 신구약을 한 문단씩 선정하여 희랍어와 히브리어로 읽고 분석하며 라틴어로 주석하는 학문적인 모임을 이끌었다. 이 모임은 매우 진지하였으며, 의견교환은 라틴어로 구사했다고 한다. 모임의 시작을 했던 사람은 라이프치히 신학대학의 교수였던 요한 베네딕트 카르프쾨프(Carpzoy)였는데, 모임의 숫자가 12명으로 불어나면서 더욱 체계를 잡아 나갔다.

프란케는 모임에 대해서 “내가 얻은 유익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 모임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어떤 대학에서 얻었던 것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강의와 성경연구 모임의 접촉을 통해서 프란케의 마음속 깊이 경건주의 운동이 뿌리내리게 되었고, 개인적 삶과 신앙을 통해 그리스도께 의식적인 헌신을 함으로써 점차 경건의 심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2. 할레대학과 경건주의 모임

경건주의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당시에 새로이 설립된 할레대학(Halle University)측에서 그들의 교수진 가운데 몇 명을 경건주

16) F. Ernest Stoeffler, German Pietism during the Eighteenth Century (Leiden:E. L. Brill,1673), p.2.

17) Beyreuther, Geschichte p.132; Stoeffler, Evangelical pietism, p.4. 프란케는 키일에 있을 때, 소규모 성경 공부 모임들이 특정 주제를 놓고 정기적으로 만나곤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Brown, The Problem of subjectivism, p.85)

의 과에 속한 사람들로 임용시켰다는 사실이었다.¹⁸⁾ 할레대학은 슈페너와 프란케의 영향으로 경건주의의 학문적 중심지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신학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아원이 세워졌으며, 광범위한 해외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다. 할레대학은 독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경건주의 운동이 본산이었다.

할레대학의 주된 이념은 성경의 깊은 연구, 전통주의의 기계적 교리가 아닌 새로운 구원사상의 제시, 성공적인 목회사역 수행을 위한 실천적인 지도, 그리고 경건한 행동과 신앙적 생활의 주장 등이었다. 즉 신학활동은 실제적이고 영감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성경연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¹⁹⁾

경건주의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지고 할레가 경건주의 중심지로의 확고한 위치를 굳혀 감에 따라, 프란케는 교회 개혁자로서보다는 교육 개혁자로서의 성격을 더 짙게 띠기 시작했다. 프란케에게는 만사가 교육과 훈련(물론 거듭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에 달려 있었고, 그의 개혁을 위한 노력도 주로 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프란케는 경건주의 원칙에 뿌리를 둔 새로운 젊은 세대를 길러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신학, 교육이론, 교육시설, 그리고 매우 효과적인 홍보조직(할레 대학교 동창생들을 중심으로 한)등을 발전시켜나갔다.

신학이나 학문은 할레의 경건주의자들에 의하여 철저하게 수정되었다. 할레에서의 신학활동은 실제적이고 영감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적의 성경연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해석방법 자체가 단순화 되었다. 성경의 특정구절에 부여되었던 초기의 단 한가지의 문자적 의미라는 개념은 점차적으로 지양되면서, 그것은 이중적 혹은 때로는 삼중적의 - 문자적(literal), 영적(spiritual), 그리고 신비적(mystical, 람바흐) 의미 - 개념으로 바뀌어졌다.²⁰⁾ 이러한 해석상 의미의 체계는 그 동안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비위에

18) 「신학사」 p.460 그 당시 프란케와 신념을 같이한 신학자들은 요아킴 유스투스 브라이다우프트(Joachim Jussyus Breithaupt), 요한 아나스타시우스 프레링 하우스(Johann Anastasius Freylinghausen), 그리고 요아킴 랑게(Joachim Lange)등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할레 대학의 교수들이었다 그리고 기센(Gissen)에서 활약을 보인 요한 야콥 람바흐(Johann Jakob Rambach, 1734년 사망) 역시 설교가이자 성경 해석가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9) 「신학사」 p.461

거슬리는 내용으로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교의학적 연구의 중요성은 당연히 점차로 줄어들게 되었다. 할레의 경건주의 자들은 몇 가지 특징적인 면에서 슈페너의 입장에서부터 갈라져 나왔는데, 그것은 특별히 그들의 회개를 위한 싸움(repentance struggle)에 대한 가르침과 세상에 대한 그들의 율법적인 태도에서였다. 슈페너가 하나님께서는 회심에 있어서 상이한 사람들을 각기 다른 방법으로 다루신다고 한 반면 프란케는 이에 맞서 그리스도인들을 마땅히 그들이 겪는 명확하고도 한정된(demarcated)회심의 체험을 가리킬 수 있어야 한다는 법칙을 주장했으며, 이와 함께 그는 회심 이전에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율법에 관한 가르침(선포)에 의하여 환기된 내적위기(inner crisis, 즉 회개)를 위한 싸움)가 일게 된다고 하였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세상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나서야 그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또한 이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였다.

프란케가 죽은 후 경건주의의 중심은 점차 할레에서 부르템부르크로 옮겨갔다. 할레는 쾰러(Samler)가 임명되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산당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현상의 근원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프란케의 후계자들이 그의 천재성을 이어 받지 못한 데 있다. 이들과 더불어 경건주의는 퇴색하여 애매한 감정주의 내지는 소심한 준법주의로 변형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리드리히 1세가 등극하자(1740년) 프러시아왕자가 할레의 이념들에 대한 보호를 그친 것이다. 부르템부르크로 이식된 경건주의는 그곳에 너무도 깊이 뿌리를 내려서, 2세기가 지난 뒤에 국가 사회주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몇 서클로 남아있다. 경건주의는 그곳에서 민중계층과 유산계급에 심겨진 반면 작센과 프러시아 지방에서는 특히 귀족 계급의 지지자들을 얻었다.

부르템부르크에서 가장 저명한 경건주의 대표자들은 벵겔(J.A.Bengel)과 외탕거(F.C. Oetinger)였다. 벵겔의 작품 곧, 주석의 황제라 일컬어지는 그의 신약 주석서인 「Gnomon Novi Testamenti」는 그 주석적 확실성과 종교적 심오함 때문

20) 「신학사」 p.461

에 오늘날도 여전히 신약의 주석가들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외팅거는 슈페너의 사상과 뵘머 및 스웨덴보리 같은 영성파들의 사상을 결합하여 'Philosophiasana'를 형성한 바, 이것은 일종의 신지학(Thesophia)으로서 그 주제들은 19세기 몇몇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²¹⁾

제4절 진젠돌프

1. 생애

니콜라스 진젠돌프는 1700년 5월 26일 독일 작센 주의 추밀 고문관이며 내각 각료인 조지 루드비히 진젠돌프백작의 아들로 드레스덴(Dresden)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슈페너의 친구였으나 진젠돌프가 출생한지 삼개월이 채 못 되어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²²⁾는 재혼하였다. 따라서 그는 조부모가 계신 게센도르프(Grosshennersdorf)에서 자랐다. 1702년 8월엔 조부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는 외할머니의 양육을 받아 성장하게 되었다. 소년 시절을 혼자 외롭게 지내며 발코니에서 형님 되신 주님께 편지를 써 보낸다면서 편지를 하늘로 날리곤 했다.²³⁾ 외할머니 헨리테 카타리나 폰 게르스도르프(Henriette Katharina von Gersdorf)는 동양 언어를 잘했으며, 좋은 시를 지어낼 만큼의 문학실력과 음악, 미술에 조예가 깊은 경건한 여성이었다.²⁴⁾ 그녀는 슈페너와 프란케 등 경건주의자들과 편지교환을 하고 있었으며, 프란케에게 국민교육과 성경교육, 그리고 선교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녀는 진젠돌프의 생애를 일찌감치 결정지은 인물이었다. 그녀는 루터교 정통파와 경건주의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한 실천적인 신앙인으로서 양편으로서 존경을 받았다. 그녀는 프란케처럼 고아원을 설립하고 게

21) 박건택, 『개신교 역사와 신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pp.200-211.

22) 그의 어머니는 남편을 잃고 그녀의 성경책 속에다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가 정직하고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죄가 결코 그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가 이제와 영원토록 행복 할 것입니다.”(22) Tony Lane, *Christian Thought*, 「기독교 사상사」, 김응국 역(서울: 나침반사, 1987), 306

23)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이레서원, 2000), p.567.

24) 『경건과 신앙』 p.228

다가 귀족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학교를 결들여 개설하였다. 그녀의 좌우명은 ‘기도하고 믿고 조용히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손짓하실 때 십자가도 고된 일도 기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²⁵⁾ 훗날 진젠돌프는 이러한 외할머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며 쓰고 있다.

“나의 삶의 원리들은 그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나의 전 삶의 업적은 이룩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주님의 호의를 끄는 일이면 무슨 일이나 시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구교, 루터교, 개혁신교 사이에 어떠한 구분도 하지 않았으며 그녀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오직 그녀의 이웃이었다.”²⁶⁾

진젠돌프의 경건과 초교파적 정신은 바로 이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녀는 프란케와 함께 대중교육과 성경배포 그리고 선교를 장려하였던 열정적인 신앙을 손자에서 물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한 존경심, 자제력, 겸손, 정직성, 그리고 진리에 대한 사랑도 함께 물려주었다. 외할머니는 1726년 2월 소천 했다. 진젠돌프는 또한 일찍이 슈페너의 감화도 받았으니 그가 4살 때 (1704년) 슈페너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준 일이 있었다. 그는 열심이 있고 동정심이 많은 편이었고 감정적이고 성격이 급한 편이었다. 또한 정력을 다 바쳐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꾸준한 성품을 소유했다.²⁷⁾ 진젠돌프는 10세가 되던 해에 할레 대학에 입학하여 16세까지 그곳에서 공부하였는데 이때 프란케와 깊은 유대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깊은 감화를 받게 되었다.(1710.8-1716.4) 이로 인해 그의 경건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상인 순결한 교회와 순결한 영적 생활에 대한 뿌리가 내면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숙한 소년이었는데, 14세 때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겨자씨 모

25) 박경림, ‘경건주의 운동이 현대 선교에 미친 영향’(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p.20

26) 마틴 슈미트, 구영철역 『경건주의』 (서울:성광문화사, 1992)

27) McNeill, Modern Christian Movement, (Phila.:Westminster Press, 1954), 65. 김명혁, “독일 경건주의 운동 소고” 「신학지남」 제185호 1979.9 「교회사 연구」 합동신학교. p.272 재인용.

임(*The Order of the Grain of Mustard Seed*)을 결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고 신앙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을 도우며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 모임의 목적으로 삼고 활동하였다²⁸⁾. 이 소년들은 할레 대학 출신의 선배 선교사들 지겐 발크(Ziegenbalg)와 플뤼차우(Plutschau)의 할레 방문으로 인해 선교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전 인류를 사랑 할 것을” 서약하고 헌신 봉사를 다짐하고 있었다.²⁹⁾

1716년 8월부터 1819년 4월까지 진젠돌프는 그의 외할머니의 의사에 따라 비덴베르그 대학 법학부에 들어가 법학을 공부했다. 외할머니는 그에게 신학강의 출석과 신학토론회 참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학교수들과의 개인적인 대화는 금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그는 법학 공부 외에 틈나는 대로 신학교수들과 사귀며 대화하였고 루터교의 고백문서들과 루터의 작품들을 일부 독파하는 중 신학의 기본지식을 축적하였다. 진젠돌프가 경건주의의 중심지인 할레 대학과 정통파의 본거지인 비덴베르그 대학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이 둘을 서로 비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당시 할레와 비덴베르그는 서로 적대적이었는데 진젠돌프는 이 적대감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러한 인식을 근거로 진젠돌프는 양자의 화해를 중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루어진 것이 1719년 5월에 이루어진 Francke-Loscher(Valentin Ernsrt)의 대화 모임이었다. 그러나 신학적인 차이로 인해 상호일치에 이루지 못한 것이 유감이었다.³⁰⁾ 1719년5월부터 1720

28) 진젠돌프는 나중에 “이들 가운데 몇 개의 모임은 1710년부터 1716년까지 줄기차게 지속되었고, 나는 사랑하는 프란케 교수님께 일곱 개의 모임 이름을 알려드렸다.”고 말했다.(Hans-Christolph Hahn&Hellmut Reichel, Zinzendorf und die Herrnhuter Bruder:Quellen zur Geschichte der Bruder-Unitat von 1722 bis 1760, Hamburg:Wittg, 1977. 21. 하워드 스나이더, p.150 재인용.

29) 김명혁. Ibid.,1706년에는 할레에서 신학교육을 받은 프란케의 두 제자 바돌로뮤 치겐발그(Bartholemaus Ziegenbalg)와 하인리히 플뤼차우(Heinrich Plutschau)가 덴마크의 왕 프레드릭 4세에 의해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 되었을 때 해외 선교를 자신의 기관의 양자로 삼을 만큼 정열을 쏟음으로 덴마크-할레 선교회가 독일 개신교의 역사에 있어서 해외 선교를 위한 최초의 기관이 되게 하였다. 이처럼 사회복지 사업을 포함한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등을 시작한 프란케를 통하여 경건주의는 크게 성장하고 보편 타당성을 얻게 되었으며 특히 프란케에 의해 시작된 경건주의의 해외 선교가 할레 대학 출신인 진젠돌프로 이어 지게 된다.(M. Schmidt, *Pietismus*, 「경건주의」, 112.)

30) 한인수 편 『경건신학과 경건운동』(서울:도서출판 경건, 1996) pp.132-133.

년 중반까지 진젠돌프는 네델란드와 프랑스로 연구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귀가 길에 들른 뒤셀도르프 화랑에서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i)가 그린 〈그리스도의 수난 상〉을 보게 된다. 이 수난 상 밑에는 라틴어로 "내가 너를 위하여 수난을 당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글을 읽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다.³¹⁾ 이때의 심정을 진젠돌프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여기서 별로 대답할 말이 없다는 사실이 내 얼굴을 수치심으로 붉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만일 내 마음이 이를 거부한다면 주님께서 강제로라도 나를 주님의 고난에 교제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다.”³²⁾

진젠돌프는 이 그림으로부터 그의 필생의 사역에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자극을 받게 되었다.³³⁾ 1722년9월 진젠돌프는 에르트무테 도로테아 폰 로이스 에버스도로프(Erdmuthe Dorothea Dorothea von Reuss)와 결혼했다. 그의 아내는 1756년 7월19일에 세상을 떠났으며 이듬해 그는 안나 니취만(Anna Nitschmann)과 재혼하였다. 그리고 1760년 5월9일 진젠돌프는 헤른후트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열병에 걸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2. 모라비안 공동체의 태동과 발전

모라비안 공동체의 태동은 데이비드(Christian David)와 진젠돌프의 만남으로 시작이 트게 된다. 당시 22세였던 진젠돌프는 모라비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피하여 찾아온 열 살 위의 데이비드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모라비아의 어려움에 대해 토의한 후, 그 박해받는 사람들을 삭소니에 있는 자기 영토로 이주하도록 초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진젠돌프의 생애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자신도 몰랐다. 데이비드는 즉각 자기 고장 모라비아로 달

31) 『기독교 교회사』 p.568

32)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p.134

33) 『경건주의』 p.137.

려가서 몇몇 그리스도인 가족을 모아서 험난한 여행을 거쳐서 삭소니의 베델스도르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들이 거하기에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1마일 떨어진 곳에 진젠돌프의 영지가 있었다. 그들은 그 숲이 우거진 낮은 언덕을 '헤른후트'(Herrnhut),³⁴⁾ 즉 '주님의 돌보심'이란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는 자신들의 힘으로 집을 짓기 시작하였다.³⁵⁾ 이 건물의 양식은 나중에 다른 세계 각국의 모라비안 건축의 모델이 되었다. 어느 날 데이비드는 일을 하다가 말고 옛날 보헤미아 형제단의 교회에 속한 후손들이 많이 있던 쿠네발트로 가서는 그들의 가정을 데리고 왔다. 그 중에는 나중에 모라비아 교회의 선교사역으로 유명해진 니취만(Nitschmann), 짜이스베르거(Zeisberger), 툴찌니(Toeltschig)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헤른후트'의 새로운 가족에 포함되었다. 베델스도르프 영지(로테가 목사로 있던 마을을 포함하여)의 영주로서의 지위와 쇄신에 대한 비전 때문에, 진젠돌프는 자신이 헤른후트의 새로운 공동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와 더불어 그곳 영지 내에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왔고, 헤른후트와 마을 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로테의 힘있는 설교와 다양한 혁신 조치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다. 마을 교회에서는 음악이 폭넓게 활용되었고, 로테는 설교를 하고 나서 청중들과 더불어 그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로테는 또한 주일 오후마다 진젠돌프의 집에서 또 다른 모임을 열곤 했는데, 거기서는 진젠돌프의 집에서 또 다른 모임을 열곤 했는데 거기서는 진젠돌프가(그가 부재 중 일 때에는 로테가) 아침 설교를 요약하곤 했다. 진젠돌프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새로운 이주자들을 원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할례의 본을

34) Herrnhut 는 독일어로 Herr(주인, 왕, 그리스도)와 hut(보호, 감독, 감시, 목장)가 결합된 말로, 주님의 보호(The Lord's Watch)라는 뜻이다. 역사적으로, 18세기 세계선교의 후원자로 불리는 Zinzendorf 백작이 소유한 Sachsen 지방의 영지를 가리키며, 그는 이곳에 핍박을 피해 이동하던 모라비안 성도들을 받아들여 그들의 믿음과 동일시하였으며, Herrnhut는 그 이후 세계선교와 경건주의 운동의 센터로서 세계선교 역사에 불후의 영향력을 끼쳤다. '헤른후트'라는 이름은 진젠돌프의 집사인 요한 하이츠에 의해 작명되었다. (하워드 스나이더,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명성훈 옮김, 도서출판 나단, 1994. 156 참조)

35) 목수였던 크리스찬 데이비드는 첫 번째 집을 짓기 위하여 나무에 도끼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말하였다. “주의 집을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시84:4).

만 시설들을 베델스도르프에 건립하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성경 등 종교서적을 저렴한 가격으로 출판하기 위한 인쇄소, 서점, 약국, 학교 등이 포함되었다. 진젠돌프는 1724년 할레를 방문했을 때 이 같은 사업에 대한 프란케의 승인을 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시점부터 특히 1727년 프란케가 사망한 이후로 할레와 베델스도르프의 새 중심지 사이의 오해와 긴장은 점점 더 고조 되어 갔다.³⁶⁾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이후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헤른후트'로 흘러 들어왔다. 이 '은신처'가 더 널리 알려지자 꺾박으로 숨어살던 신자들은 물론이고 감옥에서 출옥한 사람, 경건주의자,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결과는 뻔했다. 가족처럼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아가던 그곳은 이제 분쟁과 싸움으로 격전지가 되었고 '헤른후트' 자체가 해체될 위기가 초래되었다. 이 일이 있기 전 까지만 해도 진젠돌프는 자기가 꿈꾸어 오던 이상이 실현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이상은 좌절되고 있었다. 진젠돌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이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727년 42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의 계명과 규율”이라는 생활 지침서³⁷⁾를 냈다.

36)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p.157

37) 1727년에 총42개항으로 작성된 헤른후트 형제들의 공동체의 협약은 다음과 같다.: 1. 헤른후트의 주민들은 이 마을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 졌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 헤른후트, 그리고 그곳에 본래 거하고 있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종교적 신앙을 지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구적인 사랑의 유대 안에 머물러야 한다. 비판, 논쟁, 보기 흉한 행동을 하지 말고 오직 순수히 복음적인 교리와 단순성과 은혜를 유지하기를 추구해야 한다. 3.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때문에 자신이 각성하고 구원을 받으며 이것이 없다면 한순간도 존재하지 못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서의 가장 큰 온전함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받아 들여지지만 하나님앞에서는 무익하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날마다 자신의 모든 대화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을 받으며, 날마다 거룩해지며, 주님의 형상 안에서 자라며, 영적 우상숭배와 허영과 이기심을 버리고 깨끗해지며,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며, 주님이 당하신 멸시와 수치를 참고 인내하겠다는 결심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정한 형제가 아니다. 그러나 분파주의자이며 광신적이며 결점이 있는 견해를 지니고 있더라도 우리는 이런 사람을 멸시치 말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정신으로 참아 주어야 하며 이런 근본 원리에 확고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온유한 정신으로 그를 개심시킬 것이다. 4. 하나님이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특별히 기념하는 날들을 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도와 찬미로 보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칭찬할 만하다. 5. 현재의 표면적인 교회의 규칙 마지못해 따르는 자유로운 양심을 지닌 사람들은 인간의 규칙과 관습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어 결코 변경 할수 없는 부분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주께서 변화를 주실 때 까지 온유, 사랑, 순종의 정신 안에서 그것들을 이용한다. 예배에 있어 특이한 질서가 도입된다면 단순성과 덕성의 함양이 그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한다. 6. 교회에 익숙치 않는 사람, 양심상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억지로 그것에 복종 안해도 된다. 그러나 혼란, 경솔함을 예방키위해 목사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성찬 참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7. 악명 높은 사람, 완전히 세속적인 마음 지닌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서는 안된다. 그런 사람들은 가능한한 공정, 가식 없는 태도로 대하며 결코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8. 모든 사람은 구원의 교리의 진정한 토대를 이해하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수들에게는 온유하게, 그리고 지혜롭고 강력하게 답

고트프리트 아놀드의 "초대 기독교인들의 첫사랑을 닮자". 는 주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형제공동체는 "초대교회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살자"고 강조하였다.³⁸⁾ 이

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어떤 사람의 영혼안에서 선행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앞질러 판단 말 것이며 그 흔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고 힘을 닦은 그들의 행복을 진작시키는 것이 좋다. 10. 성경적인 모든 조처들을 사용해 보지도 않은 채 성급하게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위이다. 11. 목회자,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지켜주는 의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과 자주 충분한 교제할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들을 의심해서는 안된다. 12. 해튼훗 거주민들의 주된 목적은 영혼을 회심시키는 것이기에 특정사람을 선택, 그와 친밀 하게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바꿀 수도 있다. 남성과 여성 독신자들의 교제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교제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경우, 장로들은 그것을 막을 권리를 지닌다. 13. 형제에 대한 질투, 의심, 근거 없는 편견이 일지 않도록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14.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과 영적인 것들에 관해 경솔한 대화 하지 말아야 한다. 15. 초대교회의 관습을 따라 형제들은 믿음의 가족들의 유익을 위해 모든 노력 해야 하고 남들이 내게 행하여 주기 원하는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해야 한다. 16. 어떤 사람은 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판단하는 은사를 받았다. 17. 자신이 상대방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와 친하게 살며, 기도로서 연합하고, 친밀한 우정이 요구하는 모든 관점에 따라 행동해야한다. 특정인과의 우정으로 인해 사랑이 손상 되서는 안되고,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교리, 권면, 책망, 지도등 모든 영적인 일에 서로를 도와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18. 특별한 사람, 수공업 조합의 회원으로 등록하려는 형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도 알려야 한다. 19. 사소한 방법으로 이웃 속이거나 기만해서는 안된다. 20. 장로들 허가 없이 약혼해서 안되고 결혼약속은 장로들의 동의를 얻고 그들 앞에서 해야 한다. 21. 부모가 평화롭게 아들의 집에 머물기는 원하면 아들은 그들에게 떠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22. 미신적 관념, 관습들은 참된 형제들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귀신이나 저주등에 관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23. 사람들 중에는 날마다 권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해튼 훗에서는 날마다 권면과 교화의 기회를 베풀어야 한다. 24. 잘못 범한 사람은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혹은 권면이나 책망을 듣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25.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장로들에게 자기 주장의 근거를 밝혀야 하며, 그 소문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요구하던 하지 않은 그 소문 철회해야 한다. 26. 공적인 모임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되, 비방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말아야 한다. 27. 병든자, 우환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방문할때는 사심이 없는 사랑에서 행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돌봐 주어야 한다. 28. 환자들의 이름, 상태는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며 환자 자신, 그의 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의 처방 및 환자를 돌보는 사람에게 내리는 지시를 주의해서 지켜야 한다. 29. 모든 형제들은 비밀을 성실하게 지켜 주어야 한다. 30. 다른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지 말아야 한다. 고의적 하는 불평은 귀담아 듣지 말고, 말다툼, 질투, 악한 분쟁을 혐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불신자로 간주해야 한다. 31. 기술자, 상인은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그 이유를 적절한 시기에 밝혀 주어야 한다. 32. 모든 사법적인 조정은 하나님의 계명, 이 규칙들, 그리고 자연적인 형평법과 공의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33. 잘못된 신앙을 지닌 사람을 개심시키기 위해서는 다정한 책망과 훈계를 사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4. 장로들은 매주 토요일 회의를 해야 하며, 그 회의에 소환된 사람은 그 소환에 복종해야 한다.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은 그곳을 떠나야 한다. 35. 파수꾼은 회중들을 격려하고 교화하기 위해 밤에 시간이 바뀔 때마다 적당한 찬송 불러야 한다. 36. 예수 및 사도들의 교훈과 본보기는 우리의 사역과 교육의 일반적이면서 특별한 규칙 되어야 한다. 37. 여러번 경고, 권면 받고도 계속적으로 경박하고 죄악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우리 단체에서 축출해야 하며 변화의 증거가 없으면 다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38.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해튼훗의 모든 청년들은 건신례를 받아야 한다. 39. 교사, 목회자, 장로, 교회 위원, 또는 여러면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기쁨을 증진시키고, 고통, 시련, 궁핍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40.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정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우정을 유지해야 한다. 41. 모든 사람은 자기의 형제들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할 자유를 지닌다. 그러나 이일은 지극히 조심스럽게 행해야 하고 쌍방간의 걱정을 피해야 한다. 42. 우리는 박해 받는 것을 귀하고 가장 유익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질문에는 간단하고 조심성있게 대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앞에서 행한 신앙고백에 따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임하든 기뻐하며 그것에 순복하라.(피터 C.어브, 「경건주의자들들과 그사상」 엄성욱 역, 은성, 1974, 472-479)

38) 「경건과 신앙」 p.232

들은 평신도의 사제직을 고린도전서 14장에 근거하여 교회 안에서 허용하였다. "은사를 받았으면 누구나 설교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슈페너가 시도했던 "교회 안의 작은 교회(Ecclesiola in ecclesia)를 형제 공동체가 시도한 것이었다.³⁹⁾

그는 사람들을 소집한 후 세 시간에 걸쳐서 생활의 세심한 부분까지 다른 '공동체 규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시간은 '헤른후트'가 소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때 서로의 분쟁에 대해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질서를 잡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과 함께 진젠돌프는 이웃에 있던 쾨타우(Zittau) 도서관에서 화이트 마운틴 전투가 있기 직전, 보헤미아 형제단의 마지막 모임에서 작성된 코메니우스가 편집한 "훈련지침"(Order of Discipline)이라는 사본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지금 자기가 데리고 함께 사는 도피한 사람들이 바로 그 보헤미아 교회의 후손들임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진젠돌프는 여기서 이 주님의 작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이 문서가 그 무리들에게도 알려지자 그들도 큰 감동을 받고 옛 교회를 회복시켜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받게 되었다. 바로 이 문서의 발견은 '헤른후트' 공동체에 새로운 열정과 일치로 가져다주는 기폭제가 된 것이다.

'헤른후트' 공동체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 헤른후트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것은 '헤른후트'가 루터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 가였다. 진젠돌프 자신이 루터교도였기 때문에 자연히 루터교회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들이 제비를 뽑았을 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젠돌프는 공인교회와 마찰을 피하기 위해 루터교 성직자로 안수를 받았다. 이러한 처신으로 '헤른후트'는 루터교회에 속한 단체로 알려졌고 성례도가질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센주에 있는 루터교 성직자들이 진젠돌프의 헤른후트 공동체에 대하여 거부적 반응을 보이자 그 반대세력이 너무 강하여서 마침내 진젠돌프는 1736년에 삭소니령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다. 이리하여 진젠돌프는 가족과 동역자들을 인솔하고 프랑크푸르트 근처에 있는 룬네버그

39) 「경건과 신앙」 p.232

(Ronneberg)성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 론네버그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였으며 여기에 거주하는 신앙공동체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십자가의 공동체’가 되었다.⁴⁰⁾ 그러나 그는 1737년 5월20일 진젠돌프는 베를린에서 궁중설교가 야블론스키(Jablonski)에 의해 모라비아 형제단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되었다. 이 감독직은 성직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순수한 성직 수여 직이었다. 이제 진젠돌프는 법적으로 인정한 권한으로 헤른후트 형제교회의 선교사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 선교사들은 임지에서 합법적 권한으로 세례식, 결혼식,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진젠돌프가 베를린에서 궁중설교가로부터 감독 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당시 군인왕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Friedrich Wilhelm)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진젠돌프는 독일의 가장 강력한 군주의 비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그의 활동에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을 주었다. 그에 대한 추방령은 잠정적으로 해제되기도 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그는 헤른후트에 남아 있는 형제단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감독직은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다. 베를린에서 진젠돌프의 명성은 1738년1월-4월까지 체류하는 동안 확고해 졌다. 이때 그는 개인집과 강당을 빌려 집회를 인도했는데 수백 명의 청중들이 모여 성향을 이루었다. 장군들, 장관, 난민들, 학생들, 시민들, 수공업자, 학자 등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그의 청중이었다. 이때 행한 그의 설교들은 판에 판을 거듭하여 인쇄 보급되었고 심지어는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이 베를린 체류 중 진젠돌프는 그의 생애 중 가장 큰 성공을 맛 볼 수 있었다.

론네버그 시절 진젠돌프의 사역은 완전한 종교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 그는 1738년에 부팅겐의 백작으로부터 영지를 구입하여 형제들을 위한 새 거주지 헤른하그(Herrnhaag)공동체를 세웠다. 이때 화란의 부유층 형제들의 도움이 컸다. 이후 헤른하그 신앙공동체는 개혁교회적인 요소를 수용하여 발전해 나아갔다. 헤른후트의 공동체가 루터교적인 성격을 띤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헤른하그 공동체는 1750년 해체되었다. 거주지 문제를 놓고 부팅겐의 백작과 벌인 협상이 실패되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형제들은 여러

40)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pp.138-139.

곳으로 흩어져 이주하게 되었다. 1749년 6월6일 그는 영국 의회의 결의와 영국 왕의 승인에 따라 영국에 형제단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이 교회의 성원은 모두가 영국인들이었고, 국교인 성공회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진젠돌프의 영어실력이 완벽해 지자 그는 Fetter-Lane-Chapel의 강단에서 영어설교를 행함으로써 전 런던으로부터 청중들을 끌어 모으는데 성공했다. 이때 그가 행한 81개의 설교들은 모두 인쇄되었다. 이 설교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가 당시 사상계를 풍미하고 있던 이신론자들과 논쟁하여 성경적 진리를 변호했다는 점이다.⁴¹⁾

3. 그의 업적 및 신학

진젠돌프가 이룩한 괄목할 만한 업적은 모라비아 교회를 설립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로마 개톨릭 교회와 보헤미아 국가 교회의 박해를 피해 헤른후트(Herrnhut)로 피난은, 형제단(兄弟團) (*The Unity of the Brethren*)이라고 불리던 모라비아의 후스파(Hussites) 개신교도들이 진젠돌프의 지도하에 기독교 共同體를 발전시켜 나아갔는데 이 공동체가 모라비안파라고 불려졌다. 이들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자신들의 신앙선언으로 받아들이면서 신학적인 이론적인 정립보다는 헌신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수하였다. 우드(Wood) 박사는 그의 저서 「18세기의 영적 갱신과 전진」에서 모라비아 교회의 획기적인 출발을 1727년 8월 13일로 잡는데 그 날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이 “법규, 명령, 금지령”이 헤른후트 공동체의 모든 회원들에 의해서 서명된 날이 바로 1727년 8월 12일이었다. 다음날 오후 베텔스돌프에 있는 교회에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성찬에 참여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의 참된 오순절을 체험했다. 주님의 불이 떨어졌고 그들은 놀라움과 사랑과 찬양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나섰을 때 “그들이 땅에 속했는지 또는 이미 하늘에 가 있는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진젠돌프 자신이 수년 후에 설명한 설명이 그때의 상황과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를 확실하게 되었고, 모두

41)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p.138.

가 성찬을 받으며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를 확신하게 되었고, 모두가 성찬을 받으며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들을 느꼈기 때문이다. 상처로 충만하신 주님의 머리, 고통과 멸시로 충만하신 주님, 이 슬픔과 비애의 사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가슴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그들의 주님이시요 제사장이신 데, 그들의 눈물을 기쁨의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들의 비참을 행복으로 바꾸신다고……”⁴²⁾

진젠돌프는 참 교회의 개념을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the Church of God in the Spirit)로 표현했는데 이와 같은 교회 개념 때문에 그는 교파관계에 있어 매우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다. 그는 루터파 교회와도 관련을 맺고 있으면서도 후스파의 예배 형식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차츰 의심을 받게 되고 비판을 받게도 되었다.

진젠돌프의 모라비아 경건주의의 광목할 만한 특징은 소위 “그리스도 체험 신비주의”(Christ mysticism) 또는 “수난 체험주의”(Passion mysticism)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수난(受難)을 병적(病的)으로 골몰하게 흠모하여 무절제하고 혐오를 일으키는 방종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들이 사용한 찬송가의 가사나 언어들에 격정적(激情的)이고 감상적(感傷的)이었으니, 피, 상처, 못자국 이라는 말을 많이 썼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에로틱하게 생각하여 신랑, 신부란 말과 달콤한 말들을 사용했다. 모라비아 경건주의는 모라비아 형제들로 구성된 독특한 共同體를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 발을 씻어주고, 애찬을 나누며, 평화의 키스를 교환했다. 그들의 고유한 옷을 입었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피차 형제라고 불렀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제5절 모라비안 공동체

42) A. Skevington Wood, *The Inextinguishable Blaze: spiritual Renewal and Adva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Grand Rapids:Eermans Publishing Company, 1960), 69f. 김명혁, 273 재인용.

1. 경건 실천의 공동체

1727년 5월12일에 헤른후트 공동체의 공동생활과 형제단 교회의 생활을 질서 있게 하기 위한 정관이 작성되었다. 교회생활의 규범을 보면 다양한 교파들의 뿌리를 가진 구성원들이 반목과 비판을 피하고 서로 조화스런 삶을 누릴 것이 강조되어 있다. 조화와 일치야말로 이 교회의 이름과도 부합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일원이 된 표식으로써는

- (1)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훈의 지속적인 필요성 인정(신앙)
- (2) 그리스도를 추종하여 매일의 삶속에서 성화의 실천
- (3)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면 다른 면이 부족하더라도 형제로서 영접하고 용납하는 일⁴³⁾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의 올바른 공통 근거 소유, 초대교회에서처럼 사랑 안에서의 자유로운 교제 그리고 교회 규칙의 자유로운 인정과 준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

정관이 채택된 후 중요한 것은 헤른후트 공동체 내에 소그룹이 형성되어 공동체의 구성원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⁴⁴⁾ 이 소그룹은 골로새서3장14절에 근거한 “온전하게 매는 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인간적인 친화성에 따라 3-8인으로 구성된 이 소그룹은 자발성과 신뢰성을 원리로 세워지며 공동체의 정직성을 해소하고 상호협력, 동고동락하는 사랑의 띠가 되는 것이었다. 각조(소그룹)는 대

43)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p.140.

44) 진젠돌프는 신앙고백을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거기에는 교회의 공동체 생활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소규모 모임(소그룹)들은 바로 이 같은 목적에 잘 부합되었다. 진젠돌프는 이렇게 주장하였다: “신앙고백이 자신의 마음 그대로임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르게 정직한 무리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의 진실을 표현하는 일에 익숙해지게 하고 적어도 확실치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런 체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Zinzendorf, *Twenty One Discourses*, 243-244. 여기서 진젠돌프는 갈6:1-2와 약5:16을 인용하고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 183 제인용) 존 웨슬리는 1738년에 헤른후트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90여 개의 속회(소그룹)가 있으며 각 속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2-3회씩 만나서 자기의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치유를 위해 서로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Wesley, *Journal*, 2:50.) 1728-1736년의 기간 중 이 공동체는 점차 연령, 성별, 기혼 여부에 따라 “조”(Choir)를 편성해 갔다. 이 같은 ‘조’들은 대부분 자기들의 내적인 조직을 지니고 있었는데 어린이들로 구성된 ‘조’만을 예외로 하고 10가지 종류의 조가 있었다. 즉 (1)기혼자조 (2)홀아비조 (3)과부조 (4)독신자 조 (5)청소년(남자)조 (6) 청소년(여자)조 (7) 어린소년 조 (8)어린소녀 조 (10) 유아 조이다. 헤른후트의 운영 방식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긴박한 것이었다. 공동체 전체가 찬송과 기도를 위해 겨울에는 새벽 다섯 시, 여름에는 새벽 네 시에 모였다. 그리고 찬양과 예배와 가르침을 위한 일반적인 모임은 보통 일주일에 세 번씩 열리곤 했으며,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을 위한 특별 모임이 있었다. 주일에는 여러 차례의 예배가 새벽 5시부터 밤9시까지 열리곤 했다. 진젠돌프는 헤른후트에 있을 때면 언제나 토요일이 되면 사람들과 상당하는 일에 네 시간씩을 할애하였다. 그는 또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어도 2주일에 한번씩은 심방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 놓았다.(*Ibid.*, 164-165)

표를 선출하였고, 이 대표들은 규칙적으로 모여 생활 경험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사랑의 띠”를 보다 나은 상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힘썼다.

형제단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직책이 있었는데 행정(장로), 목회(교사, 감독, 권면자), 봉사(환자간호, 구제, 기타 봉사활동)가 이들이었다.

진젠돌프와 형제단 교회는 경건주의적 전통에 따라 성경을 매우 중요시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역동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중심점은 어떤 교리 체계나 합리적 이론이 아닌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십자가 신학”이었다.

“주님께서 성경 위에 좌정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전혀 엉뚱한 다른 소리를 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을 바라보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편119:18)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특별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말이다. 주님께서 성경의 대상(Obiectum)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주체(Subiectum)도 되시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처에 비추어 (in dem Wundenlicht)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경을 읽게 된다.”

이들이 발전시킨 수난 중심적 신앙 언어들은 주로 찬송가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 “상처” “옆구리 상처” 그리고 “땀” 등이 전면에서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피와 상처의 경건”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실례는 1744년에 작성된 “상처연도”(Wundenlitanei)라 말할 수 있다. 이 연도(連禱)는 그리스도의 삶의 역정을 단계별로 회상하고 있지만 수난이 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은 수난 당한 신체의 각 부분들이 노골적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실존적 성찰이 부가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이 연도에서는 그리스도의 수난이 자연주의적 표현을 통해 감관적으로 현재화되고 있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십자가 신학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게 하소서!
죽음으로 비준된 당신의 유언	당신의 후사들의 규칙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의 공포	증인들의 고매한 태도를 부끄럽게 하소서!
당신의 자발적 수난	우리에게 인내력을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거룩한 피의 세례	온 세상에 불붙이소서!
경멸의 침으로 가득 찬 당신의 뺨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침 빨지 마시기를!
당신의 거룩한 옆구리 상처	온 세상을 그 안에 투숙시키소서! ⁴⁵⁾ ’

형제단 교회가 다양하고도 독자적인 예배의식을 발전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의식 중 특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들이 초대교회의 관습인 ‘애찬’ ‘발씻김’ 그리고 ‘평화의 입맞춤’을 자체 내에 수용하여 시행했다는 점이다.

형제단 교회는 또한 그 시초부터 “찬양하는 공동체”였다. 1725년 진젠돌프는 자신의 신앙공동체에 알맞은 독자적인 찬송가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형제단 교회에서는 순수한 찬양집회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일종의 찬양 예배로 드렸다. 이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노래하는 설교”였으며 “산 공동체의 표식”이었다. 형제단 교회가 성찬식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여 실천한 것은 바로 이 찬양이었다.

형제단 교회의 성원들은 찬양 시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또 찬양이 소홀한 교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감소한다고 믿었다. 1750년 형제단 교회의 총회 자료를 보면 설교 예배 시에는 전교인의 4분의 1만 참석해도 용납될 수 있지만 찬양예배시에는 전 교인이 모두 참석해야 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찬양과 성령님의 역사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한 표현이라 말할 수 있다. 형제단 교회의 찬양 예배 시에 특이한 점은 어느 찬송도 처음부터 끝까지

45) Ibid., 150.

지 부르지 않고 첫 절만 부른 뒤엔 같은 주제를 가진 다른 찬송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성원들이 찬송 곡과 가사에 익숙하고도 노련한 사람들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라비아인들은 그 당시 어떤 그리스도교 집단보다도 더 많은 찬송집과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찬송을 불렀으며 세계 곳곳에서도 자신들의 방식을 따라 찬송을 부름으로써 수많은 장벽을 깨뜨렸다.”⁴⁶⁾

형제단 교회는 “찬양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새 찬송가를 지어내는 공동체”였다. 이들이 새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 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때에 알맞은 예배를 드리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과거에 작사된 찬송가가 그들의 상황에 맞지 않으면 새 찬송가를 지어 불렀던 것이다. 형제단 교회의 지도자인 진젠돌프는 평생동안 수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분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형제단 교회에서 찬송작사는 재능 있는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아무리 미천하게 보이는 형제일지라도 아주 훌륭한 찬송을 작사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모라비아인들의 음악은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로 하여금 수많은 모라비아 찬송가들을 번역하게 했다. 루이스에 의하면 (1735년 모라비아 교도들의 찬송 집에 영향을 받은) 1741년 웨슬레의 찬송 집과 1742년 영어판 모라비아 찬송 집은 영어로 된 최초의 찬송 집이었다고 한다.⁴⁷⁾ 그러므로 음악은 운동으로서의 모라비아니즘의 원동력에 기여한 핵심 요소들 중의 하나로 마땅히 인정 받아야 할 것이다.

형제단 교회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일일성구(Losung)’ 이었다. 이것은 1728년 5월3일 진젠돌프가 시작하여 형제단 교회의 관습으로 고착되었다. 저녁 기도회때 특정한 성구나 찬송시의 일부분을 소개하고 해설한 후 다음날 아침 이를 전 공동체를 위한 ‘일일성구’ 공표하는 것이다. 이 성구는 그 날을 위한 ‘구

46)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pp.207-208 재인용.

47) 「교회사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p.164.

호'로써 공동체를 위협하는 세속적인 영과 투쟁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는 마치 전쟁시 군인들을 위한 구호 같은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일일성구'는 '발췌된 성경'라고도 불렸다. 왜냐하면 성경 각 부분으로부터 중요한 구절들이 모두 '일일성구'로 채택되어 사용되어졌기 때문이다. '일일성구'를 통하여 형제단 교회의 성원들은 일생동안 수천의 성경요절들을 자신들의 삶과 피로 만들어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다.

'일일성구'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진젠돌프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1748년 그는 자신이 1731년 이래 이 목적만을 위해 바친 성경의 정독회수가 8-9회에 달한다고 술회했다. 기록을 보면 그가 개인적으로 펴낸 '일일성구'는 1,760개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이를 행한 진젠돌프의 근본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의 삶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진젠돌프의 '일일성구'운동은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일된 성경 말씀의 분해 행위'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일성구'는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믿는 형제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응수했다. 다른 한편 그는 성구의 문맥을 모르고 '일일성구'만을 운위하는 것은 그 말씀에 부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성원들에게 이를 엄히 경계했다.

'일일성구' 운동은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이것은 성도들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어 주었다. '일일성구'를 전해준 형제와 다른 성도들 간의 대화는 물론 성원 상호간의 대화 수단이 되어 준 것이다. 또한 '일일성구'는 교회 행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널리 흩어져 거주하는 형제단 교회의 성원들을 말씀을 통해 서로 결합시켜 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⁴⁸⁾

마지막으로 '일일성구'는 교육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20년 간 계속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약 오천 개의 성구를 암기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전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쌓은 것을 뜻한다.

2. 형제애로 뭉친 공동체

48)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p.153.

형제단 교회의 내부 결속은 영적 대 부흥회를 통해 강하게 표현되었다. 형제단 교회의 영적 대 부흥은 계속되는 성경해석, 찬양, 그리고 기도 등을 통해 준비되었다. 당시의 형제들 사이의 불협화음은 심각하여 상술한 세 가지 외형적 세력들과 함께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일치 할 수 없는 심적 분열을 노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모라비아계 지도자였던 Christian David는 사랑을 강조하는 요한 서신을 읽자고 제안하여 사랑의 회복을 위한 목회적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다. Mechior Nitschmann등 다른 형제들은 기도회와 찬양회를 자주 개최하여 괄목할 만한 내적 신앙 부흥을 결과 시켰다. 게다가 진젠돌프가 헤른후트 형제단과 보헤미아 형제단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Schesien 여행에서 가져와 회중들에게 설명하자 영적 뜨거움은 고조되었다. 이때 성령께서 회중의 마음을 붙잡아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Rothe 목사가 8월10일 오후 집회를 열어 야심할 때까지 찬양과 기도를 계속하자 분리주의 자들은 회중으로부터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은 Rothe목사가 다른 목회자에게 부탁하여 시행된 성찬식에서 일어났다. 8월13일 Rothe목사의 초대에 의해 대부분의 형제들은 형제단 교회에서는 처음 성찬식에 참석했다. 찬양과 함께 시작된 이 성찬식에는 두 처녀의 견신례가 거행되었고 그 후에는 집전 목사의 축복선언이 내려졌다. 강복선언이 끝나자마자 회중 사이에서는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형제와의 사랑을 위한 간구가 뜨겁게 드러졌다. 목회자의 사죄선언이 있는 후 성찬식이 거행되었고 회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자신의 영혼을 결합시키는 경험과 함께 형제 상호간의 일체감을 맛보게 되었다. 모라비아교인이 된 스웨드 아비드 그리딘(Swede Arvid Gradin)은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727년 8월13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화해의 말씀에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은 구주를 향한 새로운 믿음과 사랑으로 불붙어 오르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사랑에 넘친 나머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또한 옛 모라비아 형제단의 연합체를 마치 폐허에서 일으키듯 다시 세워서

거룩한 연합체 안에서 모두 함께 성장해 나갔다.”⁴⁹⁾

이러한 심령부흥은 9월19일 까지 계속되었고 이 기간동안 헤른후트 형제단의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새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갖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없었던 장로들, 형제들, 자매들 사이를 가로막았던 담은 무너져 버리고 용서와 화해의 거듭난 공동체가 생성된 것이다. 대 부흥기간 중 형제단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형제단 교회의 정관에 서명하였다.

이 영적 갱신운동은 같은 해 가을 예나(Jana) 대학의 기독교학생 모임에서도 재현되었는데 이때 진젠돌프가 큰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백 명 이상의 학생들이 그의 감화를 받아 헤른후트 형제단 교회와 교제를 갖게 된 것이다.⁵⁰⁾

형제단 교회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는 추천제도(das Los)이다. 추천을 교회의 직분결정이나 공적인 주요사항 결정을 도입한 것은 형제단 교회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형제단 교회에서는 일찍이 1725년 평신도 직무 결정과 장로회 대표 결정 시 이 방법을 채택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관습이 형제단 교회 안에 수용된 또 하나의 실례에 속한다.

추천제도는 교회가 일치된 행동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제도는 형제들의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사용되었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방법, 곧 합리적 검토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곤란할 때 채택되었다. 예를 들면 직무 결정, 소명확정, 그리고 새로운 일의 시작 등이 이에 속한다. 이때 추천은 각자가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행위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추천하기 전엔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먼저 드렸다.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추천방식을 사용해야 좋을지 그렇지 않을 것이 좋을지 모를 때에는 이 문제를 놓고서도 추천하였다. 추천에 보통 세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찬성, 반대, 그리고 백지투표였다. 그러나 이 추천제도는 율법주의적으로 운용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으로 수행되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운 소명의 결정 시

49) Arvid Gradin, *A History of Bohemian Moravian Protestant Church of the United Brethren*, London, 1743, 43. 하워드 스나이더, 161, 재인용.

50)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pp.142-143.

비록 추첨이 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개인이 이를 기쁨으로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무효로 간주되었다. 이는 개인의 양심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의 기본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선교사들이 임지로 떠나기 전 자기들에게 맞는 아내를 고를 때에도 추첨이 행해졌다. 그러나 추첨된 것을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 의 최종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주어졌다.

형제단 교회 성원들이 추첨 결과에 대해 대체로 복종한 것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현존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⁵¹⁾

모라비안 공동체의 특징 중 빼 놓을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 이다. 1722년까지 90명이 헤른후트에 정착하고 1726년에 이르러서는 300명의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1727년 서로를 권고하고 부흥을 위한 기도를 위해 작은 그룹들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4명의 형제와 24명의 자매가 자정부터 그 다음날까지 계속 기도하기 위해 각자 1시간씩 말을 것을 서약하기에 이르렀다.⁵²⁾ 모라비안 교회의 시간마다의 중보기도는 그 후 백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러한 중보기도는 그 다음 2백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대륙으로 선교를 위해 파송되는 결과를 가져왔다.⁵³⁾ 특히 모라비안 교회의 타문화권 선교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3. 웨슬리의 감리교운동에 끼친 영향

모라비안 공동체가 특히 영국 복음주의 각성운동의 주된 역할을 한 존 웨슬리에게 미친 복음적 감화는 지대했다. 1736년 정월 말, 조지아 주 사바나를 행해 가던 선박 심몬즈(Simmonds)호는 대서양에서 일련의 폭풍을 만났다. 바람이 몰아치고 배는 부서질 듯이 삐걱거리고 파도가 뱃전을 두들겨 대었다. 이 배를 타고 있던 존 웨슬리는 스스로의 죽음 앞에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헤른후트 출신의 모라비안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1736년 1월25일 일요일 이날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51) 『경건신학과 경건운동』 pp.142-143 재인용

52) Nate Krupp, *The Church Triumphant at the end of age* (Shippensburg: Destiny Image Publishers, 1988), 166.

53) Ibid., 10.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오 쯤 되어서 우리가 세 번째 맞는 폭풍이 시작되었고, 4시가 되자 폭풍은 전보다 훨씬 더 맹렬하였다. 7시에 나는 독일 사람들을 찾아갔다. 얼마 안 있어서 나는 그들의 행동이 매우 신중함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여객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계속하여 그들의 침착함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어떤 영국 사람도 그런 일을 감히 하려고 들지 않았다.....그들의 입에서 불평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예배가 시작되면서 시편이 한참 낭송되고 있는데 파도가 덮쳐서 큰 돛대가 산산조각이 나고 배를 뒤덮어 갑판과 갑판사이로 쏟아져 나왔다. 마치 큰 바다 깊은 물이 우리를 다 삼켜 버릴 것 같았다. 영국사람 사이에서는 귀를 찢을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조용히 계속하여 시편을 낭송하였다. 나는 후에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그는 ”아니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렇지만 당신네의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드럽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오, 우리네 부인들과 어린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⁵⁴⁾

후에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날이 내 생애 중 가장 영광스런 날이었다.”⁵⁵⁾ 구원의 확신이 없이 조지아 사바나에서 활동 할 때 웨슬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준 것은 모라비안 선교사 스팅겐베르그(Spangenberg)였다. 2월7일 토요일자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그(스팡겐베르그 선교사)는 말하였다. ”내 형제여, 나는 먼저 당신에게 한두 가지 물어 야겠습니다. 당신 자신 속에 증언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언합니까? 나는 놀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는 그것을 관찰하고 또 물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나는 잠시 멈추었다가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압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대답하였습니

54)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일기』 김영운 옮김(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pp.46-47

55) 브루스켈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박희석 역(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p.420.

다. “웁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압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그는 다만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자신을 압니까?” 나는 압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빈말 같아서 두려웠다”⁵⁶⁾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적 침체에 허덕이는 웨슬리에게 믿음의 필연성을 확신시켜 준 것도 모라비안 피터 벨러(Peter B hler)였다. 피터 벨러는 존 웨슬리에게 중생의 필요성과 죄를 극복하고 진정한 성결에 도달 할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개인적 신앙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벨러는 이신칭의가 단지 교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웨슬리는 믿음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냐고 반문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해답을 1738년 5월24일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 웨슬리는 이날의 일을 다음과 같이 그의 일기에서 기록하고 있다.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Aldersgate) 거리에 있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15분쯤이 되어서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⁵⁷⁾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리하여 웨슬리는 일찍이 없었던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비롯된 목적의식이 강력한 힘으로 그를 그 후 50년이나 지탱하게 되었다. 그는 생애를 바칠 메시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이 방법에 대해 6월7일(수요일) 일기에서 웨슬레는 말하였다.

56) 『존 웨슬리 일기』 p.47

57) 『존 웨슬리 일기』 pp.69-7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잠시 독일에 가서 조용히 지내기로 결심을 하였다. 조지아를 떠나기 전에 내가 유럽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그렇게 하리라 이미 충분히 마음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온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다. 나의 약한 마음이 이처럼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믿음의 충분한 능력을 생활로써 증거 할 뿐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독일의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영혼이 새힘을 얻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능력에서 능력으로 계속 달음질 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⁵⁸⁾

그 해 여름 웨슬리는 석 달 동안 색슨 지방의 모라비안들을 방문하였다. 모라비안의 이상은 웨슬리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체 감리교 전통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비록 웨슬리가 후에 모라비안 교도들과 분리하기는 하였지만, 1741년 런던과 브리스톨을 중심으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웨슬리는 헤론후트와 밀접한 보조를 취하고 있었다.

제6절 미국 대각성운동에 끼친 영향

일반적으로 경건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⁵⁹⁾ 첫째 살아 있는 내적 종교성, 즉 마음의 경건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많은 경건주의자들이 신앙적인 자기반성을 적은 일기 또는 전기를 쓰게 되었다. 둘째 경건의 실천 (Praxis Pietatis), 즉 실제 일하는 데서 신앙이 표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비현세적이며 금욕적이었다. 댄스, 카드놀이, 극장관람 등을 금하였으며, 종말적인 기대를 강조하였다. 넷째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제도적인 국가교회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중생자들의 집회(Konventikel)를 가졌다.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 진젠돌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슈투폴러는 경건주의가 미친 적극적인 공헌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지적한다. 첫째 경건주

58) 『존 웨슬리 일기』 p.71.

59) 기독교 교회사』 p.560.

의는 찬송학에 큰 영향을 미쳤으니, 미국의 여러 교과들이 사용하는 찬송가에서 그들의 가사를 빼다면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 설교에 큰 공헌을 미쳤으니 생동하는 설교가 되살아 난 것은 경건주의의 영향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목회가 활발해졌고 문답식 교리교육, 가정심방, 및 교인들의 영적 및 도덕적 문제에 대한 관심과 상담이 생기게 되었다고 했다. 셋째 경건 서적들을 산출하는데 공헌했고, 넷째 현대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된 점, 다섯째 교회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개혁에 손을 뻗치게 된 것도 경건주의의 영향이며, 여섯째 성경을 대중화시키고 평신도 운동을 발전시킨 것도 경건주의의 영향이며 일곱째 현대 에큐메니칼 이념을 태동시킨 것도 경건주의의 영향이었다고 강조하여 지적했다.⁶⁰⁾

이런 경건주의적 모습은 미국 대각성운동의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된다. 18세기 동안에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에서는 유럽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개인 경건에 관한 각성이 여러 면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유럽의 운동과 다른 점은 이러한 각성이 모든 교파를 초월함으로써 미국을 형성하기까지 영향을 끼친 개신교 기독교를 형성하게 된 사실이다.⁶¹⁾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헛필드 및 그 밖의 위대한 설교자들에 의하여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대각성운동은 현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종교운동이다. 이 운동은 회의주의와 불신앙 사상과 더불어 교회가 큰 싸움을 하는 중에 일어난 것으로서 당시 독일에서는 진제돌프 백작의 지도 밑에 헤른후트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영국에서는 웨슬리의 지도 밑에 감리교운동이 일어났다. 이 대각성운동은 처음에는 1730년 쯤 펜실베니아에 있던 메노나이트파와 모라비아안파에서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는 네덜란드 개척교회의 프렐링하이젠의 부흥설교와 장로교인인 테넌트의 부흥설교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그 후 173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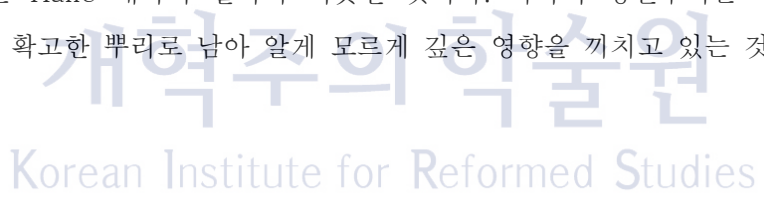
60) 『경건주의 초기역사』 pp.22-24.

61) Justo L. Gonzalez, 이형기 차종순 역, “기독교 사상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부, 1988) p.412



매사추세츠 주 노쓰햄프턴에 사는 백성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도를 받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로크의 철학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영국 철학자가 그에게 끼친 영향은 그가 신학으로 방향을 바꾼 뒤까지도 그의 신학적 방법론에서 볼 수 있다. 수년 후에 그는 웨슬리의 체험과 유사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의 경험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에 집중되어 있었다.⁶²⁾

그의 신학적 입장은 인간의 사고나 전통 또는 습관적인 것들을 신학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그의 신학적 사고는 당시의 교인의 자격문제를 강조하는 데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때 에드워즈는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종교적 체험이 없는 교인은 정상적인 교인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신앙의 차이란 오직 체험적 신앙의 유무에 있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⁶³⁾ 그러면서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절대적인 관심을 기울였고 회개의 필연성과 그 운동을 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는 유명한 그의 설교인 “분노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을 통해 대각성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회개와 중생을 강조하는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하는 대각성운동이나,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일어난 두 번째 대각성운동은 모두 그 뿌리를 경건주의에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대각성운동의 특징인 성경말씀의 설교, 개인의 기도 및 단체적으로 모이는 기도회 강조, 중생의 필요 및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경건주의의 특징과 일치하며 이들이 벌인 박애사업, 교육사업, 선교에 대한 열정 등은 Halle 대학의 활약과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경건주의는 부흥운동의 저변에서 확고한 뿌리로 남아 알게 모르게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62) 『경건과 신앙』 p.69

63) Perry Miller, Jonathan Edwards(Toronto: William Sloane Associates,Inc, 1949) pp.35-40

제 5장 미국 대각성운동 속에 나타난 경건

제1절 테오도르 야코부스 프렐링하이젠(Theodore Jacob Frelinghuysen)

종교적인 운동이든 정치적인 운동이든, 또는 사회적인 운동이든 간에 역사적인 중요한 운동들은 그에 앞서 동요기간을 두기 마련이다. 그러한 역사적인 운동들을 대표하는 자들이 흔히 역사의 무대 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덜 알려진 몇 사람들이 그 위대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길을 닦아 놓는다. 그래서 루터와 종교개혁은 존 위클리프와 존 후스와 같은 선구자들을 제외시키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와 유사하게 대각성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헛필드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과 연관되어 있지만 역시 그 나름의 선구자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테오도르 야코부스 프렐링하이젠(Theodore Jacob Frelinghuysen)이다. 헛필드는 그 사람을 가리켜 ‘위대한 역사의 시발자’라고 했다.¹⁾

그의 증조부는 루터개혁의 선봉에 섰었고, 아버지 요한 헨리히(Johan Henrich)는 ‘독일개혁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는데, 프렐링하이젠은 그의 다섯 번째 자식이었다. 그는 1692년 세례를 받고 견실한 개혁주의 교육을 받아 라이덴 대학에 입학한다. 여기에서 철저하게 개혁주의 경건에 헌신하게 되고 체험적인 신앙에 아주 강한 집착을 느끼게 된다. 젊은 시절 독일과 화란의 경건주의 운동을 강하게 받은 그는 교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전념하게 되었고 믿음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으며 교리적 논쟁이나 교파적 차이보다는 진실한 믿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다.

회심의 체험을 강조하던 경건주의의 배경 속에서 외면적인 겉치레와 형식적인 신앙고백을 배격하고 참된 믿음과 그에 따른 실천적 경건을 추구하던 당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그는 1717년에 목사 임직을 받고, 설교를 통해 스스로 만족

1) 서창원,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서울:도서출판 진리의깃발, 2003년), p.318

해 있는 회중들을 향하여 영생을 구하는 자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의 죄에 오염된 상태에 대한 고뇌와 뉘우침을 경험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연인의 타락한 상태로 여전히 버려진 사람들이며, 저주를 받고 있으며,²⁾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들을 혐오하며, 그리스도를 갈망하여,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게 될 때 중생이라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가 담임하게 된 교회의 회중들의 자세가 너무 느슨하게 되어 있었고 경마나 도박이나 유흥이 마을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저 자기들의 편의를 따른 것이었고 예배참석은 고정된 의무에 불과했다. 그들에게 회심은 없었고 영적으로 매우 껍질한 상태였다. 성경과 경건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그것을 넘어 불경건한 상태를 즐기고 있었다.

따라서 프렐링하이젠의 설교는 신자들의 양육에 대해서 보다는 회심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고백이나 정직한 생활만 가지고는 구원을 위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가르쳤다. 성령께서 죄인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상태와 상실된 조건에 처하여 있음을 밝혀주셔야 한다. 그것이 있어야 자기가 죄인됨을 크게 인식하고 긍휼하심과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고 가르쳤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 ‘가난한 심령과 죄를 뉘우치는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³⁾

“죄를 뉘우치는 심령 속에는 죄에 대한 깊은 의식과 분명한 깨달음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드러내놓고 거리낌 없이 죄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 나머지 어디로 머리를 두어야 할지 모를 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행사하실 수 있는 은혜를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으로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가진

2) 키드 하드먼, 박응규역 『부흥의 계절』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p.72

3)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p.327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복음으로 피하여 달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 화해와 죄사함과 성화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⁴⁾

그에게 있어 회심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누구든지 이런 회심의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경험 없이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초기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나의 청중들이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가난합니까? 죄를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정직하게 관심을 기울인다면 여러분은 이 점에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1. 나는 영적으로 가난한가? 나는 나 자신의 슬프고 비탄받을 만한 상태에 대하여 자각할 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이 매우 죄 많고 불결하고 상가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매우 멀어졌으므로 그래서 파선하였고, 궁핍하고, 절망적이고, 눈멀었고, 별거벗었고, 나 자신을 구출시킬 수도, 혹은 나의 구출을 위해 무언가를 하여도, 만일 내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다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 나는 나 자신의 영적 필요와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내가 통회하는 자이며, 근심하는 자이며, 잃어버린 자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스스로를 고발하고 정죄하며 혐오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슬픈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구출함을 받아야 할까 고민하였는가?

3. 나는 죄에 대한 아픔을 통해 영적으로 회개하였는가? 나의 죄가 나를 압박하는가? 그것들은 짐이 되는가? 나는 죄에 대한 애통을 마음 속 깊이 경험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덕의 진보가 있는가? 미움과 죄에 대한 증오와 진보가 있

4)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p.327

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항하여 범죄하는 나 자신에 대해 수치와 파괴와 혐오를 느끼는가? 마음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가?

사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갈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비록 여러분이 영적으로 궁핍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의 숫자에 들지 않는다고 분명히 인식할지라도, 그러나(여러분이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들이 받을 정죄에 인을 치게 될 것입니다. 오,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필요한 지를 보았습니다. 만일 심령의 가난함과 뉘우침이 없으면, 하나님의 호의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⁵⁾

프렐링하이젠의 삶과 사역은 경건한 열정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는 부주의하고 죄 가운데서 안일에 빠져있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 교만하고 쾌락을 숭상하고 술에 취하여 있는 사람들, 불순종하고 악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하였다. 특히 자신이 구원 받은 것으로 확신하면서도 세상에 취하여 사는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결코 구원을 보장하여 주지 못함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가 판단하기에 경건의 열매들이 부족해 보였는데 이것은 바로 그의 회중의 대부분이 중생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참된 회심의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회개와 믿음과 성결’⁶⁾ 등이 그것들이며 이런 것들을 위해 목회자는 교인들을 엄숙하게 시험하여야 하며, 만약 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한 면을 드러낸다면 엄히 책망하고 권고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했다.

조지휘필드는 프렐링하이젠을 만난 후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5) Theodore Jacob Frelinghuysen, Sermons(New York, 1856년), pp.25-36

6)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p.330

“말씀을 들으러 왔던 이들 중에는 주님의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쁘게 쓰심을 받는 여러 사역자들도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 화란 출신의 칼빈주의 목사가 있었다. 그 이름은 프렐링하이젠이었다. 그는 뉴브린스윅에서 4마일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였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병이라는 존칭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 또한 내가 믿기로 이 지역에서 주님께서 하시고계신 큰 일의 시작을 이 사람을 붙들고 하셨다. 그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강한 반대를 받아 왔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그를 위하여 나타나시어 그의 사랑으로 더욱 이기게 하셨다. 그는 오래전에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를 두려워하는 법을 익힌 사람이다.”⁷⁾

그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구도자적 열정이 있었고 특히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다. 죄에 대한 성찰, 통회하는 심정,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 등이 그의 경건의 특징이었다. 프렐링하이젠은 미국 경건주의의 아버지라 불려왔다. 핏필드는 그를 1740년대 부흥의 개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으로 인정하였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시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 프렐링하이젠에 의해 준비되고 있었다.

개혁주의 학술원

제2절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에드워즈의 생애는 일평생 동안 열정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에드워즈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7)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p.347

서 순전하고 달콤하고 복된 복음의 법칙에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에서 진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록을 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거룩하게 살 수 있으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밤낮 나의 싸움이었고 계속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전에 은혜를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은혜와 거룩함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이전에 다른 것을 구할 때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고 간절하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곤 했습니다.”(자서전)⁸⁾

에드워즈의 자서전과 일기와 결심문을 보면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한 강렬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자신이 먼저 경건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성도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그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몇 가지 규칙들을 보자.

1. 철저한 시간관리

1723년 1월 6일과 9일의 결심문을 보자.

“귀중한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몸이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죄를 죽이는 삶을 살 것을, 또한 절제로 세상적인 평안함이나 쾌락을 바라거나 구하지 않기로 다짐한다.”(6일)⁹⁾

“나는 부패했다. 때때로 나는 실제보다도 내가 훨씬 더 거룩하게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때때로 나는 내안에 혐오스러운 부패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

8) 백금산,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서울:부흥과개혁사, 2003년), p.33

9)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Hendrickson Publisher, 2000년), p.116



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훌륭한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다. 나는 시간을 잘 사용하고 모든 것을 신속히 그리고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처리하며, 부단히 신앙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어제와 그저께 또는 어떤 때 즉 일 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만일 그때부터 그 결심들을 잘 지켜왔더라면 지금보다 나는 얼마나 더 나은 상태에 있었을 것인가! 내 마음은 얼마나 거짓된가! 결심을 강하게 해보지만 얼마나 쉽게 그 결심이 약해지는가!”(9일)¹⁰⁾

그는 시간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다.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성도는 늘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며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결심문 7번과 17번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결심문7)¹¹⁾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결심문17)¹²⁾

2. 영적싸움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도 말자.”(결심문55)¹³⁾

에드워즈는 비록 자신의 육체의 본성이 아직 죄 가운데 있으므로 죄의 영향을

10)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p.116

11)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p.163

12)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p.165

13)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p.51

받으며 죄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것이 영적방임을 정당화하지 못함을 알았다. 그는 비록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육체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 더 나아가 죄를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육체에서 제어하거나 절제함으로써 덜 유혹받으려 노력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을 절제하는 문제에 있어, 몸과 정신 양면에 걸쳐 매일 아침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넘어지기 쉬운 유혹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루 중에 내가 짓기 쉬운 죄를 생각하고, 하루를 어떻게 잘 보낼 것인가를 결심하고, 그런 죄를 피하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매주, 매월, 매해의 초에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그런 것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전에는 무엇인지를 잘 몰랐다. 그것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며, 그런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얻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그런 것들이 계속되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1723년 1월10일)¹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철저했던 에드워즈는 먼저 육체적 본능과 전쟁을 선포했다.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지만 타락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므로 그런 것들을 절제시키지 못하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또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날마다의 회개를 통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자신 안에 있는 게으름과 교만과 부도덕한 마음 등과 끊임없이 싸우며 이런 죄를 깊이 회개할 때 비로소 경건에 이르게 되며, 세상의 부와 편안한 삶을 거부하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견딜 때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3. 경건의 습관

1722년 그가 뉴욕의 작은 장로교회에서 설교자로 봉사하던 중 그는 훗날 설교와

14)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pp.116-117

저술들을 지배할 많은 주제들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특히 하나님과 경건에 대한 열망이 증대되었다. 순결하고 겸손하며 기록하고 찬상적인 기독교가 그에게 극히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된 이미지를 닮으며 모든 일에 복음의 규율에 따라 살고자 했다. 이러한 영적 갈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강도 높은 경건의 훈련을 쌓았다.¹⁵⁾

참된 신앙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교제가 깊어져 가는 것이 신앙성숙이다. 신앙성숙은 갑작스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습관이 형성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신앙성장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경건한 습관을 들이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건한 습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에 대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포함한다. 성경묵상과 기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기록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 에드워즈는 이런 신념에 따라 자신의 일상을 말씀과 기도의 규칙성 안에 넣었다.

1) 성경묵상과 적용¹⁶⁾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거듭남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 성경을 통하여 그 자신의 영혼이 자라간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도들의 영혼의 젖이요 밥이다. 성경 속에 담긴 진리의 의미를 깨닫는 것만큼 성도는 자라게 되어 있고 성화되게 되어 있다.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제쳐두고서 영적성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 에드워즈에게 있어서도 성경은 바로 그의 생명이요 양식이였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사실을 그의 자서전의 한 대목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때때로 생명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탁월함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빛이요 달콤하고 탁월하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말

15) 양낙홍, 『조나단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서울:부흥개혁사, 2003년), p.147

16)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p.78



씀에 대한 목마름이 함께 생겨났으며 말씀이 내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었습니다.”¹⁷⁾

“내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 가장 생기가 넘치게 되고 가장 기분이 좋은 그런 때는 지금까지 보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모르겠고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1724년 5월 23일 일기)¹⁸⁾

2) 기도

기도의 삶은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호흡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거의 계속적으로 큰소리로 기도하곤 했다. 기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자서전)¹⁹⁾

“기도하기에 아주 적합지 않은 때를 제외하곤 나는 일반적으로 하루에 세 번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1723년 5월 6일 일기)²⁰⁾

“지난주의 내 여행에 대해서 돌아볼 때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 갈 기회를 만드는 것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지난 주, 내가 수요일에 한 결심을 실천하려고 했을 때, 집에서는 더욱 편리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갈 때까지는 수요일에 했던 결심을 실천하는 것을 생략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를 마련했던 것이다.”(1723년 5월 19일 일기)²¹⁾

17)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p.80

18)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p.127

19)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p.94

20)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p.119

21)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 p.120

에드워즈는 기도란 우리의 영적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장애물이 많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자신의 기도생활에서 발생하는 많은 장애물이 생길 때 그러한 난관들을 극복할 방법들을 부지런히 모색했다.

4. 평가

에드워즈의 가장 큰 탁월성은 신앙에 있어 지성과 감성을 겸비한 점에 있다. 깊은 경건과 예리한 지성이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경우이다. 냉철한 지식의 소유자는 가슴마저 싸늘하기 쉬운데 에드워즈는 자신의 지적 수준만큼 영적으로 매우 민감했고 자신의 신앙이 체험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그의 신학적 작업조차도 이성의 능력만으로 행하지 않고 영적체험을 통해 이루어 나갔으며 자신의 죄에 대한 통찰과 말씀묵상과 기도훈련을 통해 후대에 생생한 감동을 주었다.

제3절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18세기 전반에는 영국 전역이 도덕적 종교적 위기에 처해 있었다. 왕정복고의 와중에 생긴 극심한 혼돈 이래, 상황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온 영국인의 삶에 해악을 주는 육체적, 정신적 빈곤과 도덕적 부패가 만연해 있었다. 혹독한 법 집행과 빈번한 사형만이 이 시대의 빈약한 범죄 억제력을 드러내고 있었다. 소위 ‘술 취한 시대’라 불리던 시대였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음주를 그들의 유일한 여흥으로 여겼기 때문이다.²²⁾

당시 영국 국교회는 도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경제를 연구하는 역사가인 리처드 헨리 타우니(Richard Henry Tawney)는 이 시기의 교회가 타락한 사회관습에 대항하는 지도적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²³⁾ 성직자들의 부패함도 상당하여서 당시 성직자들은 극장을 자주 출입하고 경마장, 무도회 등을 전전했

22) 부흥의 계절』 p.108

23) Richard Henry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 (New York, 1926년), pp.188-189

다. 그들의 설교는 지루했고, 복음의 중심교리를 직접 가르치지도 않았으며 선에 대한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런 침울한 시기에 헛필드가 등장했다.

1. 홀리클럽(The Holy Club)

헛필드는 청교도 저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당시 방탕한 삶에 찌든 젊은이들의 유혹을 이겨냈다. 젊은 시절 그는 조롱자들이 ‘홀리클럽(The Holy Club)’, 또는 ‘메소디스트(Methodists)’라고 부르던 모임을 만든 학생들과 접촉하였다. 존 웨슬리가 그 모임의 리더였는데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열심히 구원을 열망했다. 그들은 옥스퍼드 대학의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 보낸 그 조롱을 유발했던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일상에 자신들을 투신했다. 자기부인과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그 시대의 영국 국교회에서 실제 일상적인 일이었던 현상이었다.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강단에서 부정되었다. 열심히 있는 추구자는 무미건조한 열변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준다는 맥 빠진 도덕주의만을 얻을 수 있었다. 옥스퍼드의 메소디스트들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를 갈망하며 서로를 도우며 힘을 결집했다. 그러던 중 찰스웨슬리가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헛필드에게 자신의 성장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스쿠걸(Scougal)의 책,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은 헛필드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된 책이다.²⁴⁾

“비록 금식하고 경성하고 기도하고 오랫동안 성찬에도 참여했으나, 나는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결코 잊을 수 없는 나의 친구의 손을 통해서 그 우수한 논문을 내게 주셨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처음 그것을 읽었을 때 나는 저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에 의아해 했다. ‘거짓된 기반을 가진 종교가 교회에 들어와서, 아무에게도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은밀한 의무들을 수행해 나가고, 때때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제를 베풀기도 한다.’ 나는 생각했다. ‘슬프다, 만약 이것이 참된 종교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하나님은 곧 나에게 해답을 보여 주셨다. 몇 줄 더 읽는 동안, ‘참된 종교는 하나님과 영혼이 결합하는 것이며 그리스

24) 『부흥의 계절』 p.112

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이다.’ 신령한 빛줄기가 나의 영혼을 즉각 비추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²⁵⁾

그는 이때 회심경험을 하였으며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은혜의 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 경건의 특징

1) 기도의 사람

휘트필드는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하루에 세 차례씩 기도시간을 가졌고 더 나아가 어떤 날에는 9시간씩 기도하기도 했다. 그는 일기를 쓰면서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했다. 그의 일기에는 하루 동안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는 근거로써 매일 밤마다 점검했던 목록이 있다.

1. 개인기도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2. 정해진 기도시간을 지켰는가?
3. 시간을 아꼈는가?
4.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5.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6.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7. 모든 면에서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8.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 있게 했는가?
9.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의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10. 거만하거나 허영을 일삼거나 난잡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는가?
11. 먹고 마시는 데 점잖았는가? 잠자는 일을 절제했는가?
12.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13. 연구하는 데 최선을 다했는가?
14. 어떤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말하지 않았는가?

25) Whitefield, Journals, pp.46-47

15. 모든 죄들을 고백했는가?²⁶⁾

훗필드는 매일 일기를 쓰면서 위의 목록들을 중심으로 자기 생활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갔다. 매일의 일과에서 행한 행동들 속에서 장단점을 발견하고 고치려는 노력과 훈련의 반복으로 인해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고쳐나갔으며 이런 노력들이 그의 경건의 큰 축이 되어갔다.

2) 성경연구의 사람

훗필드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영어성경을 먼저 읽고 헬라어성경의 단어와 시제를 연구한 후에 매튜 헨리 주석의 설명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 훗필드는 영어와 헬라어의 모든 절과 단어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구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의 영혼에 와 닿을 때까지 즐거움으로 연구하였다. 이런 집중적인 성경연구를 통해 그는 설교를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때에도 자신의 지식의 창고에서 무한한 보배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그도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삶의 방향에 대한 제시와 약속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경연구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성경의 중요한 목적을 상기하시오.

중요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얻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2.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하시오.

3. 성경에 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시오.

4. 성경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시오.

5. 성령의 지시를 받으시오.

6. 성경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오.

26) 송삼용, 『위대한 설교자 조지 훗필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년), pp.51-52



7.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시오.²⁷⁾

3) 겸손한 사람

많은 사람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을 때에도 그는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낮추어 말하곤 했다. 1753년 9월 11일자 편지를 보자.

“하나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제게 겸손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진실로 저는 가장 악한 자보다 더욱 악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 용하시 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1753년 12월 27일에는 이렇게 썼다.

“나같이 나태하고 냉담하고 무익한 벌레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게나.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일세. 차라리 깨어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에게 박차를 가해 주게나. 그리고 자네의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시작하게.”²⁸⁾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말씀의 지적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기뻐했던 그는 모든 면에서 자신을 낮추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만 자신을 낮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다.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한 사람이라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나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었다. 그의 생활방식은 참으로 단순했다. 항상 필요한 만큼만 먹고 마셨다. 그리고 늘 아침 일찍 일어났다. 기상 시간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새벽이었고 저녁 열시면 잠자리에 들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느라 밤을 지새우는 일도 잦았다.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적이 많았던 코닐리우스 윈터는 헛필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 때때로 밤중에 일어나곤 했다고 전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에 관심이 없었으며 개인적으로 필요한 데 쓰라고 건네는 돈은 거절했다. 그는 재산을 축적하지 않았으며 부유한 가정을 꾸리지도 않

27) 지상우역, 『성경을 상고하라』 (서울:도서출판여수문, 1992년), pp.134-137

28) J. C. 라일, 홍종락역 『세기를 뒤흔든 전도자 휘트필드』 (서울:홍성사, 2003년), p.43

았다. 사후에 남긴 얼마 안 되는 돈은 모두 친구들의 유산이었다. 교황이 루터를 향해 ‘이 짐승 같은 독일 놈은 황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상스럽게 내뱉던 말을 헛필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²⁹⁾

헛필드의 자기부인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에 배경을 두고 있다. 칼빈도 그리스도인의 생활 총체를 먼저 자기 자신의 부인이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으므로 자기를 긍정적으로 불만한 이유가 없다.

칼빈은 하나님께 헌신을 통한 자기부인을 위해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³⁰⁾ 즉 경건이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이었다. 무릇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는 다른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연습을 통해 경건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의 경건이 곧 헌신으로 연결된다.

헛필드는 자기부인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신앙의 비밀은 우리의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데 있다.
2. 우리의 뜻을 초월한다. 우리의 뜻이 자신의 행위의 원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하는 것이다.
3.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것들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지 그것의 주인이 아니다. 우리의 무절제한은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는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4. 우리 자신의 의까지도 초월한다.³¹⁾

29) 『세기를 뒤흔든 전도자 헛필드』 p.45

30) 박세환, 『존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도서출판영문, 2001년), p.97

31) 박세환, 『조지헛필드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도서출판영문, 2002), p.230

제6장 한국교회에 끼친 경건주의

제1절 무디의 부흥운동

드와이트 리먼 무디(Dwight Lyman Moody, 1837-1899)는 19세기 말엽에 미국의 부흥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특히 한국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사람이다. 무디는 복음 전도를 통한 죄인들의 회심을 강조하였다. 무디는 교인들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하는 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결국 이 대중 복음 전도 집회에서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무디는 선언했다. “당신이 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느냐는 상관 없습니다.” 무디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길에 아무런 장애물도 두지 않겠다고 결심한 실용주의적 행동가였다.

무디의 부흥운동을 통한 선교의 열정은 제 1회 학생하령회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열정을 불러 일으켰다. 1, 2차 대각성운동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근본주의 대 현대주의 논쟁이 한창이던 1870년대부터 1925년대에 한국의 선교는 시작되었다. 대각성 부흥운동과 더불어 선교회가 조직되었다. 이 시기는 현대주의 도전 앞에 보수주의 세력들은 더욱 더 근본주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현대주의 도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였던 것이다. 이때 근본주의 세력의 중심지 중 하나가 무디 성경학교와 뉴욕의 성경신학교였다. 이들의 특징은 “성경의 무오와 영감을 담대히 변호”하는 것이었다.

1900년대 말 미국의 보수주의 운동은 나이가가라 사경회, 국제 예언 사경회, 그리고 무디의 학생 부흥운동과 병행되면서 세계 선교를 고취하였는데, 한국에 파송된 상당히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역사적 부흥운동 상황에서 훈련을 받고 선교의 꿈을 키웠던 것이다. 특히 나이가가라 사경회와 같은 성경연구를 위한 신자들의 모임의 특징은 한국의 성경중심의 선교정책과 잘 조화되었다. 한국에서 성경학교와 사경회 운동, 그리고 종말론 운동이 1900년대부터 1930년대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발흥되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들의 활동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의 기원을 개신교 선교역사의 어느 한 시기나

어떤 하나의 운동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다. 16세기의 종교개혁, 17세기의 경건주의 운동, 18세기의 모라비안 선교회의 선교활동, 청교도들의 인디안 선교, 웨슬레와 헛필드에 의한 부흥 등이 개신교의 기초를 놓았다. 특히, 미국의 선교운동의 배후에는 영적 각성운동과 같은 부흥운동이 한국선교의 특성을 경건주의적 부흥운동으로 만들어 나갔다.

제2절 초기 선교사들의 경건

초기 한국 장로교의 신앙과 신학 형성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이 점은 미국 북 장로교회 해외 선교부 총무를 역임(1903-1929)하였던 브라운(A. J. Brown)의 증언에서 잘 드러난다. 그는 한국이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배경을 한국인의 민족성에서 찾았다.

“한국인의 심성은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그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감성이 무디고 물질적인 중국인보다도 다르고, 빈틈없고 호전적인 일본인보다도 다르다. 한국인은 일본이나 중국인보다 민감하고 믿을 만하다. 한국인은 외부 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종교적인 가르침에 쉽게 동화되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영적인 환상도 의심치 않고 받아들인다. 자긍심 가득한 중국인이나 오만한 일본인과는 한국인은 깊은 애통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¹⁾

초기 한국장로교 신앙과 신학 형성에서 선교사들의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초기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은 교파를 초월하여 경건주의 색채가 강했다.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한 중생과 체험과 기도와 성경공부를 중심한 신앙훈련, 그리고 선교와 사회구제로 연결되는 윤리적 실천 등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경건주의의 신앙 요소는 선교사들에 의해 촉발된 초기 부흥운동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미국 장로교의 경우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프린스턴, 맥코믹, 유니온 신학교는 다 경건주의적 뿌리를 가진 신학교들 이었다.

1) A. J. Brown, The Mastery of far East,(NY:Charles Scribner's Sons 1919), p.539

1.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95-1916)

언더우드는 대학 재학 시절부터 인도 선교사를 꿈꾸었으나 한국에 선교사로 갈 사람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884년 7월 미북장로교 선교부의 임명을 받아 1885년 1월 일본에 도착하였고, 1885년 4월 5일 감리교의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함께 인천에 상륙하였다.

언더우드는 남장로교 선교회와 캐나다 선교회의 대 한국선교의 문을 열어준 인물이며, 연합선교의 이상을 통해 한국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선교의 개척자이다. 한국선교의 개척자라 불릴 만큼 한국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호러스 언더우드는 전형적인 복음주의 장로교 선교사였다. 그의 복음주의 정신은 그의 성장배경과 교육배경에서 기원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 뉴저지에 정착한 후 다녔던 교회가 화란 미국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RCA(미국 리폼드 처치) 교단이었다. 언더우드는 그의 부친이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종교적인 관심이 많았고 일생을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친 인물이었다. 특히 호레이스는 주의 재림에 대한 아버지의 갈망과 기다림을 완전히 물려받았다. RCA 교단은 화란 경건주의 영향을 받은 개혁파 경건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본국에서의 신학적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들이 갖고 있던 복음에 대한 열정, 기독교 영성은 청교도들이 갖고 있던 복음의 열정과 영성과 견줄 수 있을 만큼 개혁주의 안에서 복음주의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칼빈주의 후예들이었다. 이들은 미국에 영적 각성운동을 주도하는 중요한 중심 세력 가운데 하나였다. 화란 경건주의 배경 속에서 교육받은 Frelinghuysen이 미국 제1차 대각성운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언더우드는 이와 같은 전형적인 경건주의 풍 복음주의 정신은 화란개혁파 신학교(Dutch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인 뉴 브런스윅(New Brunswick)신학교에서 훈련받는 동안 더욱 신앙과 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훈련받은 언더우드의 신앙적 특징은 한 마디로 화란 개혁파 경건주의 전통을 근간으로 하면서 남다른 구령의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데 있었다. 자

연히 언더우드도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미국의 뉴스쿨처럼 부흥운동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특히 주의 재림은 언더우드에게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었다. 언더우드는 자신의 생애 동안에 영광스런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고, 이것은 한국에 파송된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런 재림에 대한 희망이 한국에서 그대로 전이되어 한국교회가 재림의 신앙을 굳게 다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다.

언더우드는 31년의 한국 선교 생활을 통해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행하였고, 1886년 7월 11일에는 알렌의 어학 교사였던 노도사에게 국내 최초의 개인 세례를 베풀었으며, 1897년 9월에는 새문안 교회를 창립하였다. 또한 1907년에 발족된 조선 장로회 독노회 창립 멤버로 활약하였으며, 1912년에는 장로교 총회를 창설하여 1913년 총회장에 피선되는 등 교단 내에서의 대외적인 활동에도 많은 업적을 남기었다.

언더우드는 교육가로서 경신학교, 세브란스학교, 연희 전문학교, 피어선 성경학원, 평양 신학교 등의 창립에 주춧돌 역할을 하였으며, 성경번역사업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공을 끼쳤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송가 역시 그의 손에 의해 간행되었으며, 이러한 한국 교회 역사 전역에 걸친 그의 업적과 헌신은 후대의 신앙과 장로교 발전에 커다란 금자탑을 쌓았다.

2. 곽안련(C. A. Clack)

1961년 5월 26일 83세의 생애를 마감하며 조용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곽안련의 죽음 앞에서 미연합장로교회 내한선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곽안련의 죽음을 추모하였다. “한국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곽안련 박사만큼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공헌을 성취하는 특권을 누린 사람은 없다.” 이러한 짙막한 추모의 글처럼, 곽안련은 실로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목회와 신학발전을 위해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부를 수 있다.

먼저 그의 선교사역을 통해 볼 수 있는 곽안련 자신의 신학적 입장은 일반적으로는 복음주의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장로교주의적이다. 그는 어린 시절 올리버 장로교회에서 출석하며 교회생활을 하였고, 목회의 소명을 받은 이후에는 시카고

에 위치한 장로교 교육기관 맥코믹 신학교에서 신학교육을 받았다. 따라서 선교 개척지 한국에 그가 심어준 신앙과 목회 사상은 그가 성장하고 교육받은 장로교 주의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34년에 선교 50주년을 기념하여 미북장로교 한국선교부가 발간한 책에서 곽안련은 대부분 초기 선교사들의 신학사상이 “현저하게 보수주의적”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그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곽안련은 그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보수적 사상은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적이요 경건주의적이다.

초기 선교사들처럼 곽안련 또한 청교도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비록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는 했지만, 곽안련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청교도의 피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으며, 성경의 최종적인 권위, 엄격한 안식을 준수,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강조 등을 철저히 따르는 경건주의적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곽안련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엄격한 순종을 요하였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조상숭배의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곽안련의 목회적 관점에서 목사는 확실히 그의 무리들에게 영적인 지도이기 때문에 목사들은 반드시 평신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가장 높은 표준적인 영적인 삶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목사의 기도의 삶, 성경연구, 독서, 그리고 자기훈련은 목사의 영성을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안했다. 특히 곽안련은 두 요소-목사의 기도생활과 성경연구를 첫 번째로 강조했다.

“목사의 삶은 기도의 삶이다.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라도 그는 자주 그의 마음을 하늘로 향해야 한다. 그는 생사가 수반되는 위기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성경은 영적인 능력과 담력을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여된다고 가르친다.”²⁾

곽안련의 목회학에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은 기도와 성경연구를 통한 경건의 삶이었다. 한국에서 곽안련이 40년 동안 이룩해 놓은 사역은 참으로 “풍부하고 다양”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도 다채롭다. 어떤 사람은 그를 문서전도의 개척자요, 실천신학의 교수로, 그리고 신학서적의 저술가로 부른다. 어떤 사람은 그를 비타협적인 보수주의자, 성경의 권위와 무오성의 충실한 옹호자, 한국교회 강단의 아버지,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의 설립자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초기 한국교회의 역사는 곽안련이 이러한 모든 칭호들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보수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청교도적인 신학과 경건한 신앙에 따라 한국 장로교주의의 영향을 준 개혁신학 또는 칼빈주의를 전달해준 인물이다.

3. 마포삼열(Samuel A. Moffett, 1890-1939)

한국의 예루살렘을 이룩한 마포삼열은 1864년 1월 25일에 미국 인디애나주 메디슨시에서 출생하였고 1884년에는 하노버 대학에 이어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 1888년에는 다시 모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얻었으며 1901년에는 37세의 나이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박사학위를 얻었다. 그는 철저한 보수주의 신학과 열정을 가지고 사경회를 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자선사업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각급 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으로 지도자를 배출하는 일에 그의 선교정책을 세웠다.³⁾ 그는 타협하지 않는 보수주의자로서 그의 사상이 한국의 신앙과 신학의 형태를 특징지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복음에 빛진 자로서 복음전파에 자신의 혼신을 불사르던 전도자이면서도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과 신념에 절대적이었던, 철저하게 구학과 전통을 계승한 선교사였던 것이다.⁴⁾ 이러한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평양신학교가 개설되었으며 장차 한국장로교의 신학사상을 주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2) 곽안련, 『설교학』 1939. 10. 15

3)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88) p.48

4)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6) p.74



그의 선교방법은 첫째, 사경회를 열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요, 둘째로 자선사업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셋째는 각급 학교를 세워 교육사업으로 지도자를 배출하고 간접전도에 주력했다. 이러한 그의 선교방법은 바로 경건주의적 부흥운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었다. 박윤선 박사는 평양신학교 재학당시에 마포삼열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박윤선 박사의 소개는 마포삼열의 삶이 어떠했는가 확실히 보여준다.

“마포삼열 선교사는 한국 초대의 중진 설교자였다. 내가 입학한 그 해에는 그가 소요리문답을 가르치셨다. 그의 관대한 성품과 교부와 같은 무게 있는 신앙인격으로 많은 감화를 끼쳤으면서, 학문보다는 성경에 대한 그의 굳은 신념과 보수적인 신학 입장이 무언중에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된다.”⁵⁾

마포삼열 선교사는 구학과 신학을 소유함으로 근본주의적이며 보수주의적이었다. 그의 관대한 성품과 신앙인격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경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의 인격을 맥코믹신학교의 부흥운동의 영향아래 형성되었으며, 그의 경건의 삶은 초대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제3절 경건주의 신앙

1. 사경회

일정한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에는, 몇 사람이 한 장소에 모여 성경을 공부한 것을 일컬어 사경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경회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서경조 목사는 1888년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사경회를 시작하며, 10여명이 한 달 동안 공부했다고 한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일치해서 1890년에 처음으로 사경회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노해리 목사(H. A. Rhodes) 또한 1890년에 네비우스 계획에 따라 처음으로 사경반을 개설해서 7명이 모였다고 한다. 모인 7명

5) 박윤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영음사,1997) p.51

의 출신지를 기록했는데, 북에서 2명, 솔내에서 2명, 서울에서 3명이다.

사경회를 시작할 때에는 한국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교회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의주, 솔내, 서울의 지도자들이 모였다. 그들을 서울 같은 한 장소에 모아 집중적으로 훈련시켰다.⁶⁾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금교령 때문에 선교사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고, 또한 적은 수의 선교사로 넓은 지역의 목회활동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지의 한국인 지도자들을 모아 훈련시켰다. 한국 정부의 정책과 충돌됨이 없는 선교사역에 대해 마펫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과 교리를 가르쳤다. 그것은 조용히 씨를 뿌리는 일이며, 우리는 시간을 내서 이런 종류의 일을 모두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사역이 반대 받지 않고 개방되었을 때 곧 수확을 거둘 준비를 할 것이다.⁷⁾

중심지 한곳에서 선발된 인원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으로 시작된 사경회는 곧 그 형태가 바뀌게 되었다. 1802년에 선교사들은 중심지 한 곳 대신에 여러 지역에 분비된 사경반을 열어, 선발된 인원만이 아닌 전 교인들의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교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교인이 분포된 지역이 넓어지면서 본래의 정책은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역할은 제한되고, 한국인 지도자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 한국인 지도자들은 소수가 가르치는 일에 참여했었지만, 훈련받을 교인의 증가와 대상지의 확대로 자연스럽게 한국인 지도자들이 주로 가르치게 되었다. 이런 사경회는 교회지도자를 위한 상급과정과 평신도를 교육시키기 위한 하급과정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리고 하급자를 위한 과정은 흔히 사랑방을 중심으로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슈페너가 강조하던 가정을 중심으로 한 경건 모임과 비교된다. 또한 이런 사경회에서 말씀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저녁시간

6) 이철신, “한국 초기 장로교의 사경회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6, p.16

7) 마삼락, “마펫박사의 선교일지” 교회와 신학 제7집, 1975, p.84

에는 부흥집회가 있었다. 이것을 통해 사경회는 개인의 신앙교육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적 체험으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서 1906년 가을부터 시작된 사경회는 1907년 대부흥을 이끌어 내었다. 일했다. 그들은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경건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모인 군중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였다. 각 사람은 마치 자기 홀로 작은 방에 갇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신실하게 기도를 드렸다.

사경회는 단순히 개인의 체험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사경회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신자들의 삶을 조절하도록 가르쳤다. 조사나 선교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찍이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되었다. 이것은 경건주의자들이 주장하였던 새로운 삶(New Life - 평신도 교육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경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져갔음은 제론할 필요가 없다. 사경회는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었고, 새 힘을 충전시켜 주었다. 교인들은 사경회에서 복음 전도의 기초가 되는 성격을 배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개인적인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곧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복음전도의 열정을 품게 되었다. 말씀 속에서 얻은 확신은 자연스럽게 전도로 이어졌다. 그래서 혈연적,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전달방법을 사용하여 그들의 친척과 친구와 마을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⁸⁾

뿐만 아니라 남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최소한이라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선교회의 법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결과였다.

이런 구체적인 복음 증거는 새로운 삶(New Life)을 살고 있는 자신을 증거하는 경건주의적 요소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증거는 단순히 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8) “마켓박사의 선교일지” 교회와 신학 제7집, 1975, p.86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증거하는 것임을 뜻한다.

또한 사경회에서 주로 선포되었던 말씀들 가운데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사경회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바로 길선주였다. 웨일즈에서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서방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소식은 그의 가슴을 두드렸으며, 하디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사람으로 헌신할 것을 작정하였다.⁹⁾

이것은 곧 1907년 1월에 있어서 놀라운 부흥으로 이어졌는데 그는 평양에서의 사경회에서 2,200 명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전역에 성령의 불길이 번지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4번의 설교 가운데 3번이 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설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였으며, 두 번째 설교는 “이상한 귀빈과 괴이한 주인”으로서 이것도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가기를 기다리신다는 내용이었으며, 네 번째 설교는 “성령 앞에서 숨을 자 없다.”였다.¹⁰⁾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항상 성령에 대한 강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성령론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영계 길선주의 설교를 관통하는 사상은 바로 말세론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계의 종말을 강조하고 사태의 긴박성을 주장하였다.¹¹⁾ 그에게 있어서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세론이란 교과목을 만들어서 강의하는 것이 그의 장기였다. 그는 일회적인 구원으로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주장하였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였던 경건주의의 갱신(Regeneration)은 영계 길선주의 설교 가운데서 경건주의의 새로운 삶(New Life)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9) 『한국교회 설교사』 p.138

10) 『한국교회 설교사』 pp.138-140

11) 『한국교회 설교사』 p.151

2. 새벽기도

박아론은 한국의 새벽기도에 대해서,

“한국 교회는 그 초창기에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던 이들과 같은 종들이 일으킨 교회 인고로 한국교회는 무엇보다 새벽기도의 전통을 자랑해야 할 것이며, 한국 교회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신학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교회를 일으킨 종들의 생애 속에 구현된 신학일 것이니 마땅히 ‘새벽기도의 신학’이라고 불려야 할 것”¹²⁾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벽기도는 길선주 목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길선주 목사는 새벽기도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1907년 평양 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 7명 중 1명이 바로 길선주 목사였는데, 그는 1906년 한국에서 최초로 새벽에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새벽기도 집회를 시작함으로써 세계에 새벽기도가 시작되게 하였다.¹³⁾

길선주 목사는 1906년 가을 그가 장대현 교회의 조사로 시무 할 때에 박치록 장로와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못되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하여 이것을 당회에 청원하여 수차 논의한 끝에 전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하기로 가결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 교회 새벽기도회의 시초였다. 이날부터 새벽마다 종을 울렸고 이 종소리가 울리면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와 울며 자기 죄를 자복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이다. 또한 길 목사는 오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면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벽기도와 정시 기도는 일종의 선도에서 빌려 온 수법이였다. 그가 매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선수식 체조를 겸한 점에서도 명백히 알 수 있다. 길목사의 새벽기도 운동은 전국 교회에 확산되게 되었고 옛날부터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기를 잘했던 우리 민족의 무속적인 습관과 잘 어우러져 금방 토착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토착 무속적인 사고와 청교도를 통하여 우리

12) 박아론, "새벽기도 신학의 회고와 전망" 『보수신학연구』 p.296

13) 박아론, 『"새벽기도의 신학"』 (서울:세종문화사, 1975) p.45

에게 전해진 자기 경건과 회심에 대한 체험,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령의 체험 등으로 일컬어지는 경건주의의 영향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목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서 새벽기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막1:35). 스왈론(W. L. Swallon)은 길목사의 새벽기도에 관하여 이같이 회고한다.

“평양에 위치한 큰 교회인 중앙교회의 한국인 목사 길선주는 평양의 신도들에게 차가운 냉기가 감도는 것을 느끼고 자기 교회의 장로 한 사람과 매일 새벽에 기도하려 예배당에 가기로 결심하였다. 이 두 사람은 겸손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매일 새벽 4시면 기도하였으니, 이르기를 두 달을 계속하였다. 그러자 그 사실을 점차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는 기도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어나게 되었다. 길목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고는 누구든지 원하는 이는 자기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4시 반이면 종을 치도록 하겠노라고 주일예배시에 교회에다 광고하였다.”¹⁴⁾

곽안련 선교사에 의하면 서울에서는 여러 달에 걸쳐 밤마다 한 교회 혹은 두서너 교회에서 기도와 사경회를 위한 집회가 열렸다는 것이다. 장로교회의 초대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인 서경조 목사는 소래교회(1896년 소래교회의 교인 수는 200여명 되었다)의 약사를 회고하면서 네 가지 점에서 소래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기술하는데, 그 중에 첫째는 교인들이 금식하며 철야기도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새벽기도운동은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자 요한 알브레이트 벵겔(J. A. Bengel)이 1713년 11월 17일 28세 나이로 슈투트가르트 부근에 있는 새로 건립된 개신교 수도원학교인 땡겐도르프기숙학교의 전담교육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땡겐도르프 기숙학교의 학교생활은 “기도와 연구에 중점을 두어 공동으로 모이는 아침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새벽 일찍, 여름에는 4시,

14) W. L. Swallon, A Story of Korean Prayer, K.M.F., Oct, 1909,p.182

겨울에는 5시에 기상을 알리는 종을 울린다.“고 하였다.

이러한 영향 하에 한국의 길목사를 통해 시작된 새벽 기도회를 한국 교회는 100년이 넘도록 열심히 그리고 쉬지 않고 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신학은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의 신학이기 때문에 “새벽기도의 신학”이라고 호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 교회와 새벽기도의 역사는 거의 같다고 봐야 할 정도로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 초창기부터 한국 교회와 불가분의 것으로 존재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의 체질이요 생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새벽기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최봉석 목사이다. 최봉석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서 평양시를 다녀서 평양시민을 놀라게 한 최봉석 목사는 자신이 새벽기도를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그 외침을 통하여 평양시의 교인들에게 새벽기도의 시간을 알리는 역할까지 했다. 새벽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신비롭고 경건한 경험을 인하여 최봉석 목사는 일제치하에 나라와 주권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령도 병들어 죽어가는 가련한 동족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외골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¹⁵⁾

새벽기도의 종 주기철 목사는 새벽기도의 시간마다 고요한 정막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일편단심을 맹세하였기에 한국교회사에 길이 빛나는 순교의 종이 될 수 있었다. 주기철 목사는 옥중 고난을 7년이나 겪었으나 오히려 굴하지 않고 신사불참배자로서 순교의 면류관을 쓰고 주의 품에 안긴 것은 새벽기도 시간에 그가 받은 고요한 은혜를 주를 의한 일사각오의 생애로 이어갔기 때문이다. 1936년 그는 평양의 산정현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갔다. 여기서 그는 기도예 자기 삶을 바치며, 일본의 신사참배 강요에 대항하는 거국적인 운동을 주도하였다.

15) 『"새벽기도의 신학"』 p.296



이와 같이 한국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다. 선교사 데이비스(G. T. B. Davis)는 한국교인들의 이러한 기도 모습이 너무도 진지하고 열심이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하며 이렇게 전하고 있다.

“한국교인들은 영혼을 위하여 매우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그들의 독실하고 진지한 신앙은 기독교국인 우리들을 부끄럽게 한다. 지난겨울 송도에서 부흥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교인들은 으레 밤 집회 후에는 산에 올라가서 얼어붙은 맨땅에 엎디어 성령강림을 위하여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였다. 재령에서는 매일 새벽 5시 반이 되면 몇몇 사람의 한인들이 내가 유숙하고 있던 선교사집에 찾아와 한 시간 동안 기도하였다. 평양에서는 길목사와 장로 한 사람이 교회당에 와서 새벽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졌다. 길목사는 ‘누구든지 원하면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모여 기도 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이튿날에선 새벽 1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2시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더니 4시 반에 가서는 400명에 이르렀다.”¹⁶⁾

길선주, 최봉석, 주기철, 조만식에게 나타난 바와 같이 새벽기도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새벽기도집회는 넓게는 경건주의적 보수신학이며, 좁게는 청교도적 개혁신학의 유산이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모임인 새벽기도는 한국교회 100년 발전사에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 21세기의 한국교회 부흥에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16) The Missionary, Vol.43, No.5, May, 1910, pp.212-213

제4절 한국교회의 경건주의자

1. 영계(靈溪) 길선주 목사

한국 기독교 100년의 전반기에 있어서 영계(靈溪) 길선주 목사만큼 넓게 한국 교회 교인들의 신앙형태를 형성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도 드물 것이다. 그의 근 30년에 걸친 부흥운동으로 한국 교회의 신앙은 오늘과 같은 다분히 보수주의적 성격을 띤 유형으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길선주를 통해서 정립된 경건주의적 신앙의 모습은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바로 길선주가 담임으로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가르침과 설교는 그 운동의 중요한 동인이었던 것이다. 소열도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은 길선주 목사가 시무하는 장대현 교회에서였다. 약 30명에서 35명의 평양장로교 선교사들과 감리교 선교사들이 2주 동안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모였다. 하디 선교사가 인도하는 한 모임이 일주일 동안 소집되었는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두 번째 주까지 계속되었다. 그룹이나 선교사들 모두가 여러 시간을 기도했다. 주께서 교만과 자기 심령과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꺾으시는 한편 한국 형제들의 심령에 또한 역사 하셨다. 이것을 요청하는 말씀이 나왔고, 한국 목사들의 몇몇도 선교사들처럼 기도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곧 길목사의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 그 도시의 다른 교회로 확산되었고, 그 부흥운동은 또 다시 나라와 여러 지방으로 확산되었다.”¹⁷⁾

하디 선교사가 평양부흥운동의 발화자였다면, 그 부흥운동을 하나의 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포문을 연 사람은 길선주였다. 길선주 목사는 1869년 3월 15일 평양 안주군 성내 후장동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선주고 자는 ‘윤열’이며 호는 ‘영

17) Soltau, Yin Yang: Korea Voices, pp.33-34

계(靈溪)'이다. 17살 나던 해 강패 윤학영 삼 형제가 선생의 백씨를 질투하던 끝에 그의 집을 급습하여 가정기물을 사정없이 처부수고 아무 관계없는 17세의 길선주를 마구 구타하여 죽게 되는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여 인생의 무상을 깨달아 염세적으로 기울어졌으며 영계를 더듬게 하였다.

그리하여 선문(仙門)에 들어가 산신차력주문(山神借力呪文), 옥경(玉經)의 삼령주문(三靈呪文)을 배워 23세 때 이미 신차력(神借力), 약차력(藥借力) 등에 통달한 초인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러나 1896년 28세 때 기독교 신자가 된 뒤부터는 이 초인간적인 인물이 힘과 종교적 체험이 기독교의 성신 강림의 은사를 받는데 밀천이 되었다.¹⁸⁾

길선주는 1903년에 평양에 있는 예수장로회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로서의 훈련을 받고 1907년에 신학교 졸업과 동시에 목사안수를 받고 장대현교회 목사로 장립되면서 대부흥운동 때에 크게 활약한바 있었다. 이후로 길선주는 1935년 11월 18일부터 있었던 평서노회 사경회를 인도하고 그 마지막 날 새벽 기도회에서 설교하다가 쓰러질 때까지의 28년간 당시의 상황과 인물로서는 이룩하기 어려운 기록을 남기며 복음선포에 헌신하였다.¹⁹⁾ 그는 장대현 교회를 담임하면서 2만 번 이상의 설교를 하였고 그의 설교를 들은 자는 3백 80만명 이었고 그가 세례를 준 교인 수는 3천여 명이고 그가 설립한 교회는 6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길목사는 성경의 무오설과 축자적 영감성을 중심한 청교도적이며 경건주의적 보수신앙을 가졌다. 그의 부흥사경회는 항상 성경공부가 그 주축을 이루었다. 따라서 성서의 절대권위가 강조되며 성서에 대한 한국교회의 애정이 그 신앙 가운데 일찍부터 자리잡게 되었다.

그는 또한 성서의 통독을 강조하였다. 대사경회, 중사경회, 소사경회, 가정성경공부, 성경학교 등을 개설하여 성경공부를 실생활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가르쳤다. 또한 그가 목회할 때 아침 예배 전에 장년성경공부반도 조직하여 예배에 앞서 교인들의 성서연구열 고취를 게을리하지 않았다.²⁰⁾ 그는 요한 계시록을 만독

18) 한용덕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 소고”(목회수학학위논문, 총회목회신학원,1989)p.16

19)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p.273

20)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종로서적, 1980) p.223

(萬讀)하고 요한 1서를 500독하였고, 성경을 매일 한 시간씩 읽고 외우려고 힘 썼으며 성경연구와 집필에 하루 평균 세 시간, 그리고 하루에 빠짐없이 두 시간의 독서를 계속하였다고 했다.²¹⁾ 한국 교인들이 반드시 자기의 성경을 찬송가와 함께 들고 다니게 된 전통 수립에 그의 영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길선주 목사는 경건주의자들이 경건훈련의 동인이 되었던 성경공부모임을 중요시 여겼으며, 특히 종말론적 신앙은 그의 경건신앙과 함께 한국교회의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또한 기도에도 열심이였다. 선교사들이 가르쳐 주지 않았던 새벽기도를 비롯하여 가정기도회, 금식기도, 철야기도, 직원들끼리의 특별기도의 습관을 가르쳤다. 그리하여 그는 1905년부터 동료 장로 박치록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으며, 이 새벽기도회는 길선주 목사의 삶의 한 부분이며, 그의 신앙의 핵심이였다. 또한 이 새벽기도회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유일한 경건의 모임이였다. 특히 길선주 목사는 새벽기도 시간마다 묵시록을 암송하는 것으로써 하루의 생활을 시작했다. 부흥회 때면 교인들로 하여금 부흥회에 참석하도록 권유하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교회의 한 특성을 이루게 했다.

한국 초창기에 있어서의 근 30년에 걸친 길선주 목사의 목회 활동과 부흥사경운동은 초기 한국 교회의 신앙형태와 그 유산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들에게서 받은 그의 청교도적 보수적 신앙과 특히 성경에 대한 압도적 권위에 대한 부동의 신앙, 이 신앙은 성경의 무오와 축자영감, 성경의 내용을 일점일획이라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확신에 기초한 신앙이다. 결국 경건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위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은 길선주에게 경건의 삶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고자 하는 부동의 신앙이 바로 길선주 목사의 경건이였다.

그의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김인서 목사는 그의 영결식 애도사를 통해 “선생이 나시매 근세조선에 위인이 있고, 선생이 개종하시매 조선교회의 기초

21) 이성호 편, 『길선주목사 설교사』 (서울:혜문사, 1977) p.225

가 되고 선생이 목사가 되시매 조선노회가 조직되고 선생이 계시록을 만독하시매 하늘나라 세계의 비밀이 밝혀진다”고 말하였다.²²⁾

실로 한국 기독교 100년사를 통해서 길선주 목사를 평가할 때 길목사는 경건주의적 부흥운동의 중심인물이다. 그의 이러한 보수적이며 경건의 신앙은 박형룡에 의하여 계승되면서 그에 의하여 장로교 보수신학이 집대성되게 된다.

2. 박형룡 목사

유동식은 1930년대를 한국신학의 정초기라고 말하고 있다.²³⁾ 그것은 이시기에 외국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많은 신학도들이 많은 신학논문과 저서들을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학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는 1930년 초기부터 자유진영과 보수진영의 양대 신학 사상 사이에 충돌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1930년대 한국 장로교회에 있어서 보수주의자와 자유주의 신학의 대립 속에서 보수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박형룡 박사였다. 왜냐하면 그는 한국 장로교 신학의 정초를 놓은 인물이자 장로교 신학의 보수주의적 전통을 엮어 간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는 1926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쳤으며 (Th. B. Th. M) 특히 메이첸(J. Gresham Machen)과 로벗슨(A. T. Robertson) 하에서 더 공부하고 난 후 한국에 귀국했다.²⁴⁾ 그리하여 박형룡은 20세기 개혁주의 신학을 대변하였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신학인 성경원본의 문자적 영감과 무오성을 철저히 강조하는, 즉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강조하는 정통주의 신학의 대변자가 되었다. 이러한 프린스턴 영향을 받은 박형룡은 한국에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신학을 확립케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박형룡 박사가 가르치고 옹호했던 정통주의 장로교는 “메이첸의 근본주의” 또는 “극단의 보수주의” 그리고 “근본주의적 정통주의”였다고 주장한다.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는 박형룡에 대하여

22) 박상택, “길선주목사의 영성신학”,(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 p.124

23)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서울:전망사, 1982) p.134

24) 신종철 “근본주의가 한국 장로교회에 미친 영향”(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대학원, 2000) pp.136-137

이렇게 평가한다.

“박형룡 박사는 저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 포스딕(H. Fosdick)을 이단으로 정리 하던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보수 진영의 영수인 메이첸(G. Machen)박사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던 전형적인 근본주의자였다. 그는 한국 교회의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 나름의 신학의 ‘창작’이 아니라 사도적 전통적 정신앙(正信仰)을 그대로 보수하는 신학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성서 무오설과 축자 무오설에 든든히 서서, 성서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단죄하고 1935년 5월 이후로는 김재준 목사의 글을 평양신학교의 <신학지남>에 더 이상 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면으로 대결했다.”²⁵⁾

민경배 교수는 박형룡을 반 지성주의, 고립주의 폐쇄주의 사상을 가진 근본주의로 몰아 부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신학 사상이 창의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평은 그의 신학 활동의 의도와 목적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형룡 박사는 그의 <교의신학>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물론 필자의 아는 것이 적은 탓이지만 또한 본의에 맞는 일이기도하다. 필자의 본의는 칼빈주의 개혁과 정통신학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데 있고 감히 무엇을 창작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옛 사람이 말한 바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라 할 것이다. 8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여 준 그대로의 바른 신학을 새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자의 염원이기 때문이다.”²⁶⁾

즉 박형룡은 그의 신학활동의 목적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배웠던 개혁주의적 정통 신학을 이 땅에 소개하는데 있었다. 박형룡은 이렇게 말한다.

25)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pp.412-413

26) 박형룡 『교의신학』 제1권 서론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청교도적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을 확고히 보수하면서 그것의 해석에 필요한 보완을 행할 것뿐이다.” “청교도적인 영미 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를 받아 출발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들을 교의와 구례의 표준으로 채용하여 수행하는 신학” “구주대륙의 칼빈개혁주의에 영미의 청교도사상을 가미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에 구현된 신학”²⁷⁾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신학의 특색은 첫째로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유효소명(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요, 셋째는 성수주일과 경건생활에 치중하는 훈련이요, 넷째는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박형룡은 칼빈주의적 보수신학 위에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박형룡 박사는 신학적으로 미국의 구 프린스턴 정통신학을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청교도적 경건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의 신앙관은 총신은 물론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형룡 박사는 그의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적 전통”이란 글에서

“한국에서의 청교도적 경건생활을 언급하면서 평안북도 신천같은 곳에서는 장날이 안식일이 되면 기독교 신자들이 철전(撤塵)하고 매매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폐장이 된다고 서양에까지 소문이 났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매일 열며 통성기도와 철야기도를 자주 드리는 것은 이 교회 경건 생활의 특징이었다. 서양의 여행객이 세계를 편답하다가 한국에 와서 평양 같은 도시에서 한 안식일을 지나며 교회의 예배에 참관하면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고 증언하였다.”²⁸⁾

박형룡 박사는 칼빈주의적 영미의 청교도적 경건신앙을 이 땅에 정착시키기를 염원하였다. 박형룡 박사는 경건생활을 위하여 새벽기도를 강조하였으며, 통성기

27) 박형룡 “한국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43권 3집 p.19

28) 신학지남 1976년 가을호

도와 철야기도를 경건생활의 하나의 표준으로 보았으며, 경건의 삶을 위하여 주일성수를 엄격하게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박형룡 박사는 1961년 고려파에서 출간하는 잡지 ‘파수군’에 ‘근본주의 신앙’이라는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 글은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신앙 변증서였다.

“우리 교회는 숭고한 권위를 믿음으로 성경공부, 경건치중, 직접 전도, 자급 연보에 노력하여 교세에 왕성하였고 일인의 신사참배 강요와 핍박에 순교자와 옥중 순교의 적지 않은 수가 있었고 공산군의 핍박과 전란 중에 순교자가 많았으며 피난지에서도 교인들이 천막치고 예배 봄으로 외인의 이목을 놀라게 했다.”²⁹⁾

박형룡 박사는 근본주의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하게 살게 하는 원동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신사참배 강요와 핍박에 순교를 각오하게 만들고, 어려운 환경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만든 원동력을 근본주의적 경건주의에서 찾고 있다.

박형룡 박사의 경건은 삶의 모든 부분에 구석구석 박혀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경건의 태도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와 같은 태도로 사셨던 분이다. 박형룡 박사는 진정으로 한국 교회가 낳은 위대한 신학자요, ‘진리보수’의 기수였으며, 경건하게 살고자하는 위대한 신학자였다. 그의 ‘진리보수’의 부르짖음은 최권능 목사는 ‘예수천당’의 부르짖음과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의 외침과 더불어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박형룡 박사는 시대적이며, 환경적인 제약성 속에 살다간 신학자요 한국교회의 지도자였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가 가르친 제자 목사들이 오늘날 한국 장로교회의 주역들로서 종사하고 있음은 또한 엄연한 사실이며 한국 교회 내의 보수, 자유진영을 막론하고 그의 ‘보수신앙 열기’와 ‘고결한 인격적 감화력’에 대하여 고개를 숙이지 않을 분이 별로 없는 줄 안다. 아무리 박형룡 박사의 보수신앙이 탁월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고결한 인격적 감화의 경건이 없었다면 그의 영향력은 결코 미미하게 끝났

29) 파수군 106(1961.1) pp.25-26

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분의 고결한 경건 때문에 박형룡의 영향은 21세기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의 권위를 출발점으로 하고,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전개된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신학, 그리고 영국의 많은 교인들에 의하여 이 사상이 경건과 정열로 받아들여지고 여기에 독특한 신학적 특징들이 가미되어 이루어진 청교도주의 이러한 것이 한국 보수신학의 전통이 된 것은 선교사들의 뜨거운 열정이고, 초대 선교사들이 심어준 감격한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과 경건의 삶의 모습을 박형룡 박사는 그대로 우리의 것으로 옮겨주었으며 또 해석해 주었다.

3. 박윤선 목사

한국에서 개혁주의 신학의 정초를 놓은 인물은 박윤선(1906-1988)박사이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주경 신학자로서 그의 신학은 박형룡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박윤선 박사의 저작들, 특히 성경 주석은 일반 목회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읽혀졌으며, 그의 방대한 저술과 30여 년간의 신학 교육과 목회적 활동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공표하고 가르치고 대중화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박윤선 박사는 1931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34년 신학교를 졸업하고 두 차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하였다(1934-36, 1938-1939). 특히 이 기간 동안에 메이첸의 문하에서 헬라이어와 신학 연구에 주력하였다.

박윤선 목사의 신학사상은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이어온 평양신학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엄격한 경건생활과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내포하고 있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의하여 3년 동안 서서히 무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박윤선 박사가 청교도적 개혁주의 신학자인 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청교도적 경건생활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그는 개혁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신학자였다. 그는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삶을 몸으로 체달(體達)했으며, 겸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박윤선 박사는 평양신학교 시절부터 선교사들로부터 경건의 신앙을 전수 받았는데 특히 평양신학교 교수진의 믿음과 덕의 감화는 박윤선 목사를 경건하게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외국 교수로서는 마포삼열(Samule A. Moffett), 라부엘(Stacy L. Roberts), 이율서(William D. Reynolds), 어드만 (W. C. Eerdmans), 엽아력 (A. F. Robb), 콕안련(Charles A. Clark), 그리고 왕길지(G. Engels) 등이었고, 내국인 교수로는 남궁혁, 이성휘, 그리고 박형룡 등이었다. 박윤선 박사는 “교역자는 재주가 부족하여도 진실하면 된다.”는 교훈을 종종 나부엘 선교사에게 들었으며 또한 마포삼열 박사의 신앙의 인격적 감화를 많이 받았다.

박윤선목사는 개혁주의를 사랑했다. 개혁주의만이 가장 성경적인 사상체계가기 때문이다. 박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교회의 기초요 인간 윤리와 가치의 표준이며, 세속사와 구속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박윤선 박사는 개혁주의 신학사상이 그의 몸에 깊이 배여 있어서 설교와 저술과 생활과 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물씬하게 풍겨 나오곤 하였다. 우리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의 그늘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그의 냄새는 계속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김명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박윤선은 개혁주의적인 삶을 몸소 실천하는 분이였다. 한국 교회안에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개혁주의라기 보다는 근본주의 또는 보수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박목사님은 한국교회 안에 개혁주의 신앙이 무엇이며 개혁주의적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였다. 칼빈주의 신학은 하나의 신학체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 뜨거운 신앙의 원리로 나타남을 보여 주셨고, 소극적 분리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포용과 교제의 삶인 것을 보여 주셨으며, 세상사에 무관심한 반문화주의가 아니라 사회문제와 구제사역 등에 적극적 관심을 나타내는 문화변혁주의인 것을 가르쳐 주셨다.”³⁰⁾고 회고한다.

정암은 개혁주의 신학에 바탕을 둔 개혁주의의 경건의 삶을 몸소 실천하였던 분

30) 김명혁, “내가 좋아하던 박윤선목사님” 『신학정론』 제7권 2호 (1989.12) p.160

이다. 박윤선 박사의 신학사상의 형성과정은 이론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이 있는 실천신학이었다. 그 중의 하나는 ‘기도운동’이었다. 그가 이 시기에 기도생활에 힘쓴 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승실시절에도 신앙운동에 열중하는 중, 특별히 4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운동에 힘을 모았다. 몇 몇의 동지들(이유탉, 송영길, 김철훈, 박기환, 김진홍, 방지일)과 함께 약 1시간쯤 걸어가서 모란봉 뒤 숲속에서 기도하곤 하였다. 우리가 기숙사에서 새벽 3시, 혹은 4시경에 출발하여 기도처에 갔기 때문에, 학생들이 우리에게 ‘조기부대’라는 별명을 붙여 주었다. 그 시절에 나는 기도에 열중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또 매우 힘 있게 기도하였다. 그는 이때를 회고하길 ”이 시절에는 기도에 열중하였기에 기도만 하면 마치 병에서 물이 쏟아지는 말이 끊임없이 잘 나왔고, 그 말이 매우 힘이 있었다.“고 하였다. 조기부대 동지들은 후에 모두 목사가 되었고, 해방 후에 이유탉, 송영길, 김철훈, 세 분은 공산치하에서 순교하였다.”³¹⁾

박윤선은 경건의 기도 모임 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쳤던 사람이다. 박윤선 박사가 미국의 유학 생활하는 동안 편지의 ‘나의 기도’의 글 한편에 그의 기도의 모습 속에 경건을 볼 수 있다.

“주여 나는 처자도 모르옵고, 부모도 모르옵고, 친구도 모르옵고, 사업도 모릅니 다. 다만, 성신만 알기를 원하오며, 다만 경건생활만 알게 하옵소서, 어떤 주의를 중심하여 사물을 취급할 것이 아니옵고, 성경에 가르친 경건생활의 호흡이 나에게 건설되는 것만을 위하여 사물을 취급케 하옵소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다만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힘만 쓰게 하옵소서. 나의 주의를 없이하시며, 나의 사업도 없이 하시며, 다만 경건생활만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비읍니다.”³²⁾

31) 노진현 “말씀과 함께 산 중”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p.98

32) 방지일,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pp.57-58

박윤선 박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겠다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요 희망이었던 것이다. 전 고신대 총장 이근삼 박사는 정암의 기도생활을 이렇게 회고한다.

“선생님은 언제나 기도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연구실에서 말씀연구와 강의 준비중에 말씀 앞에 목 놓아 큰 소리로 기도하시던 그 소리를 기억합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흘러나오던 기도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깊은 밤중에도 거실에서 흘러나오던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³³⁾

그가 실천신학의 선구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도생활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박윤선 목사의 기도에 대해서 김명혁 교수는 회고한다.

“하나님께 붙잡힌 박 목사님의 삶은 여전히 기도 생활과 말씀연구 생활로 나타났다. 박 목사님은 기도를 생활화하신 분이였다. 총신에 계실 때, 매일 새벽 택시를 타고 총신에 오셔서 뒷산에 올라가 2~3시간씩 기도하시는 모습을 한 6개월 동안 옆에서 목격한 일이 있다.”³⁴⁾

이렇게 평생을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았던 박윤선 목사를 손봉호 교수는 평가하기를

“박윤선 박사님은 내가 만난 어느 목사님이나 신학자보다 더 겸손하셨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인다’는 격언을 그 분만큼 잘 증명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박윤선 박사님께서서는 학문이 경건으로 이어지고 경건과 온전히 융화되어 있었다. ‘이론’과 ‘실천’은 그에게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었고, 신학과 신앙이 혼연일체를 이루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고 성경말씀의 권위를 진정 존중하는 목회자들 가운데는 박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

33) 이근삼,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p.116

34) 김명혁 “말씀과 기도의 목사 박윤선”,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p.116

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박윤선은 일생동안 개혁주의 신학의 확립을 위하여 일관된 생애를 살았는데, 한국교회를 위한 그의 중요한 봉사는 주석 집필이었다. 그는 1938년부터 40년간 노고 끝에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완성하고 1979년 10월 9일 총신대학교 강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린다. 그의 주석 분량은 구약 총 7,347쪽, 신약은 총 4,255쪽에 달해 신구약 주석은 총 11,602쪽에 달하며 매년 약 240쪽의 주석을 집필한 셈이다. 그는 성경을 주석 할 때 항상 기도하는 자세와 실제로 기도하며 썼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또한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주석을 집필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경건의 자세가 박윤선 목사로 하여금 한국 장로교 보수신학의 가장 훌륭한 주경 신학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경건과 학문의 각고의 노력 끝에 평생의 결정체로 남겨 놓으신 신구약 성경의 주석 완간은 우리들의 성경 연구의 지침서이며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등불이 되어 길이길이 빛을 발하고 있다. 박윤선 박사의 주석들은 특히 은혜로운 설교들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어서 읽는 자로 하여금 영혼의 양식을 삼아, 박 박사 자신의 생애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의 경건한 모습을 가지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박윤선의 경건의 삶은 신학교에서 그대로 학생들에게 나타났다. 신학교에서 가장 인기있는 강의를 꼽으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그의 강의를 지목하였다. 그야말로 그는 명강의를 하였다. 물론 학생들이 그를 존경한 것은 강의 때문만이 아니었다. 경건으로 다져진 인격 때문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기도하다가 죽었다는 말은 들어보라고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박 박사에게서 배운 것은 신학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박 박사로부터 기독교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기도생활이 무엇인지, 얼마나 정직하며 하나님을

35) 손봉호, “순수한 신앙의 사표” 『빛과 소금』 1988년 8월호, p.195



깊이 사랑해야 하는지, 때로 혼자 있을 때에라도 얼마나 원칙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학문에도 역점을 두고, 공부 안하면 거짓말밖에 할 수 없으니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말도 들어보라고 강조하였다. 경건생활과 생활의 순결을 말끝마다 강조하였다. 그의 몸에 배어 있는 경건한 인격의 향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진하게 뿌려지는 것을 우리는 실감한다.

박윤선 박사는 1979년 9월 3일 미국의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5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 사람이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이 가운데 브루스 헌트 선교사도 들어 있다. 이 학위는 “전 세계 각국에서 복음의 전파에 공헌하고 훈련된 봉사의 기술과 신실한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이었다. 웨스트민스터는 박 박사를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성서학자”로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신실한 삶의 모범을 보인 경건한 신학자”로 평가하였던 것이다.

박윤선 박사는 합동신학교의 학장으로서 인터뷰에서 자신의 경건의 소신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저의 신학교육의 이상은 간단합니다. 저는 신앙 인격을 강조합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명확한 신학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론보다 중요한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론을 가르치지만 경건이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³⁶⁾

박윤선 박사의 교육이념은 분명히 학문에 앞서 신앙의 인격을 강조하고 있다. 경건이 교육의 중심이 됨은 박윤선 자신이 바로 경건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박윤선 박사는 그의 합동신학교의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였다.

“예, 기도를 정밀하게 하는 학교가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학문일변도의 신학의 자유주의로 떨어지고 맙니다. 학문이 물론 귀합니다. 또 부지런히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경건을 연습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

36) “박윤선 학장과의 인터뷰” 『합동신학교보』 1980년 12월30일

은 디모데전서 4장의 원리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경건과 학문성을 대조시키고 있는 분명하다. 그리고 그는 이 가운데서 경건에 더 비중을 두었다. 물론 그 경건은 기도생활에 의하여 달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예수처럼 살기를 애쓰셨던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였다. 한국교회는 위대한 신학자요 스승인 거목을 잃었으나 그의 신앙과 인격과 학문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스승이라면 당연히 박형룡과 박윤선 박사를 거론한다. 물론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청교도적 개혁신학이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경건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실제적으로 개혁주의적 삶을 실천으로 보여주신 스승이 참 스승이 아니겠는가! 아무리 신학적으로 학문의 체계가 잘 정립되어도 경건의 모습이 없었다면 진정한 한국교회의 스승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제5절 제자훈련

1. 제자훈련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왔다. 이로 인해 한국교회는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의 급성장’(양적요소)과 ‘신자들의 강한 영성’(질적요소), 사회 각 분야에서의 ‘기독교적 운동(삶)의 확산’이라는 말은 한국 개신교회를 특징짓는 표현이 되었다.³⁷⁾

제자란 ‘그리스도를 모델로 하여 따르는 자’요, ‘그를 통하여 배우는 자’요, ‘그에게 속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한편으로는 기독교 복음의 외적 확산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37) 문석호, 『영성시대속의 기독교 위기인가 기회인가』 (서울:신앙과 지성,2000), p.17

하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볼 때는 ‘기독교’의 확산이 과연 ‘복음의 확산’, 또는 ‘신앙의 확산’인지, 아니면 단지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성’이라는 이름아래 번지는 ‘왜곡된 신앙’인지를 자세히 살피는 자세가 요구된다.³⁸⁾ 기독교를 언급하면 ‘제자’의 삶과 제자도의 정신이 요구되어지고 있지만, 오늘날 형편은 제자의 삶은 멀리 가고 왜곡된 신앙으로 종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훈련은 점점 세속화 되어가고 경건성을 잃어가는 한국교회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해 왔다. 실제로 제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훈련받음으로 변화를 체험해 나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제자란 어떤 모범을 앞에 두고 이를 닮아가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 그 분을 닮아가려는 훈련 속에서 이뤄진다. 특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제자라는 용어는 세상적인 스승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 삼아 그 분의 신앙과 그 분의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신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되지 않고 때로는 혹독한 훈련 속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인데, 특히 말씀 안에서 거듭되는 훈련을 통해 신앙과 인격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신자개개인의 바른 삶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회관의 정립 역시 경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풍성하고도 바른 경건의 생활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삶을 영위하게 되며 교회는 더욱 교회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의 생활화는 곧 그리스도 안에 올바르게 자연스런 삶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이요, 이는 곧 성령 안에서의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그러므로 제자도란 단순히 논리나 이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에 따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곧 삶이요, 삶의 자세요, 또한 내면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외면적 삶의 행실이다. 이 변화된 삶은 때로는 감격스런 입술의 고백으로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친 삶으로 때로는 승리의 기쁨과 넘치는 환희로 이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다. 진정한 제자

38) 문석호, 『길을 따라서』 (서울:도서출판 신앙과 지성, 2001), p.79

도로서의 삶이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증거를 드러내는 고로 분명한 신념과 용기가 없이는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³⁹⁾

제자의 삶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 이러한 제자로서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자세와 더불어 그분 안에서 친밀한 관계로서 양육 받으면서 생의 목표와 방향을 만들어 가게 된다. 삶의 모든 국면들이 그 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우러지며, 그 분을 향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바로 여기에서는 신뢰와 믿음이 일어나되 자연스럽게 ‘경건’이라는 모습이 형성된다.⁴⁰⁾ 그러므로 ‘제자’와 ‘경건’이라는 모습이 형성된다. 그러므로 ‘제자’와 ‘경건’은 나누어 생각할 수 없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소그룹을 통한 성경공부와 훈련이라는 측면에서 이미 경건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며 사랑의교회를 통한 제자훈련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신약에서 교회를 말할 때, 그것은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각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라는 영적 교제 그룹 속에서 참 교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배웠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참된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속에서 양육 받아야 하며 성도와의 영적교제를 통해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대형적인 그룹보다는 작은 그룹을 통해 신앙을 더 직접적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므로 현대 사회에서 소그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은 오늘날처럼 대형화되고 기계화되어가는 문화 구조 속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요청되는 교회구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소그룹이야말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화(마28:20)를 실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39) 『영성시대속의 기독교 위기인가 기회인가』 p.80

40) 『영성시대속의 기독교 위기인가 기회인가』 p.82

교회가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눈뜨게 된 것이 전적으로 외부에서 온 환경적인 자극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더 직접적인 원인은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데 있었던 것이다. 즉 소그룹 활동은 일종의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 소그룹의 인식과 실천이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성경적인 소그룹의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⁴¹⁾

소그룹은 서구를 중심으로 1960년대에 대규모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전에는 교회내의 하위그룹들은 주로 주일학교에 모였다. 성경공부모임, 기도모임, 선교모임들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교회건물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모임을 가졌던 작은 소그룹은 교회 이탈적인 모임으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60년대 이후 소그룹은 서구의 교회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특히 북미에서는 인구의 20%가 교회에 속한 소그룹에 참석하고 있고, 15%정도가 지역사회의 소그룹에 참석한다. 이러한 그룹들은 평신도가 인도하고 있고 참여율도 높다.

오늘날 소그룹에 관한 개념을 전문가들 사이에 언급되는 정의를 김만형 목사는 그의 책 「SS혁신보고서」에서 일곱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그룹이란 상호작용이 있는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둘째, 그룹이란 멤버십에 대한 인식을 가진 모임이며,

셋째, 그룹은 상호의존적인 모임이라는 것이다.

넷째, 그룹은 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한 자들의 모임이다.

다섯째, 그룹이란 서로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를 가진 자들의 모임이다.

여섯째, 그룹이란 규칙과 역할이 주어진, 조직화된 관계가 있는 모임이다

일곱째, 그룹은 구성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이다.

이와 같은 정의를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그룹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의 모임으로서, 얼굴을 맞대고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그룹에서의 멤버십을

41) 오석주, 『경건주의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2002), p.141

인식하고 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서로의 목표를 성취하는 사실을 능동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다.”⁴²⁾ 즉 소그룹이란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헌신한 사람 세 명 또는 열두 명의 의도적 모임이다.”

소그룹을 통한 ‘경건의 모임’은 한국교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독일 전역에서 경건주의의 근간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으며 독일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경건주의 삶의 영향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즉 경건주의는 ‘경건한 모임’을 비롯한 여러 ‘모임’을 통해서 ‘좀더 긴밀한 친교’라는 원동력을 체험했다. 이러한 소그룹은 한국교회의 초창기 네비우스 선교정책에서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으로 나타났으며 오늘날은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모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제자훈련은 지도자가 혼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을 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100년 전 D. L. 무디가 추구했던 것이다. 그는 “내가 혼자서 열 사람의 일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열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라!”고 말하며 평신도를 깨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했다.⁴³⁾

전통적인 교회관에 젖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소명의식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 왔던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교회의 네 가지 본질(거룩성, 동일성, 보편성, 사도성) 중에서 사도성을 소홀히 여겼던 것도 사실이다. 한스킹은 이러한 사도성은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계승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역자들만 이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도 아니며, 평신도를 포함하여 전 교회가 사도성을 계승한다고 믿었다. 사도성의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⁴⁴⁾

그러므로 교회의 참 본질은 바로 사도성의 토대 위에서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며 증인의 삶을 살도록 평신도들을 일깨워 주는 일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옥한

42) 김만형, 『SS혁신보고서』 (서울:규장문화사,1999), pp.208-210

43)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다』 (서울:생명의말씀사, 1999), p.282

44) 『경건주의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p.143

흙 목사의 평신도 운동의 신학적 출발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무리 사도성을 재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성의 재발견이 제자훈련으로 이어져 제자 삼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를 날마다 물어야 한다. 교회의 본질과 소명에 일치한 교회관의 확립을 위하여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교회관이 바로 목회 철학이다. 이 목회 철학에서 목회 전략이 나오고, 또 이 목회 전략에서 목회 방법이 나온다.

이러한 제자훈련의 목적은 평신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따르게 하는 것이며 교역자를 도와서 상호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하는 데 있다. 즉 제자훈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옥석을 가르는 시금석과 같이 교회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서 진정으로 경건한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요 도장인 것이다.

2. 초기 한국교회의 제자훈련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제자훈련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오히려 초창기 한국교회는 비록 “제자훈련”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았지만 제자훈련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가령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근본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신도 운동이었다. “한국인에 의한 한국선교”를 구가하도록 만들었던 네비우스 선교정책의 기본 정신이 바로 평신도 제자화에 있었던 것이다.⁴⁵⁾ 네비우스 방법에 들어 있는 몇 가지 원리 가운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세 번째 원리이다. 그 원리는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된다.”는 것이다.⁴⁶⁾ 이것은 신자라면 누구든지 자기가 전도 받은 그곳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개인 사역자가 되어야 하고, 또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웃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평신도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⁴⁷⁾

45)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두란노, 1998) p.244

46) 객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pp.184-185

네비우스 정책은 사역의 모든 분야에서 성경이 중심이 되게 하려는 정책이며 누구든지 조직적인 성경공부를 통해 성경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한 평신도로 세우게 되기 때문에 성경공부는 전체 교회에서 날마다 조직적으로 시행되어야 했다.

초기 한국교회는 평신도 일꾼들을 키워 자립하고 스스로 전도하고 양육하여 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전교인들을 가능한 한 제자화 하는 일에 열중했다. 초기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 남자와 여자 구분이 없었으며 노인과 아이 사이에도 구분이 없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학생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성장하여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갔는데, 각자 자기보다 신앙이 앞선 선배로부터 개인 양육을 받으며 동시에 자기보다 신앙이 뒤떨어지는 후배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초기 한국 교회는 평신도 중심의 목회 정신으로 모든 성도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3. 사랑의교회 제자훈련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 복음주의의 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제자훈련을 통한 전인적인 그리스도인 양성이다. 사랑의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이 은사 운동을 통한 교회 성장 못지않게 바람직한 교회 성장의 방향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오늘날 사랑의교회의 놀라운 성장은 제자훈련을 통한 한 개인의 바른 영적 양육이 가져다 준 결과였다. 오늘날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은 경건주의 운동 당시의 슈페너의 ‘경건의 모임’을 통한 제자훈련과 한국 초대교회의 네비우스 선교정책을 통한 성경공부 중심의 제자훈련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사랑의교회의 제자훈련은 조금도 수도원적인 신비주의적 경향이 없이 평신도를 제자화하여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경건의 훈련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이원론적인 신앙관, 타세적인 신앙관, 염세주의적 역사관, 기복적인 신앙관을 극복하고 균형 있는 복음주의 신앙관을 심어 주었다. 그러므로 제자훈련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종 된 인격과 삶을 가르치는 것이다.

옥한흠 목사가 평신도의 제자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한스킹의 ‘교회론’을 통한 교회론의 재발견에 있었다.⁴⁸⁾ 옥한흠 목사는 오늘의 교회는 선교를 위한 가장 큰 잠재력인 평신도를 초대 교회의 제자들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사랑의 봉사자로 무장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교회론을 통해서 정립하였다. 그는 교회의 사도성이 갖는 신학적인 바른 의미를 재발견하는 일이야말로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평신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인 동시에 우리의 교회론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⁴⁹⁾

또한 옥한흠 목사의 이러한 평신도 운동에 대한 신념과 확신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였던 만인 제사장 원리에 근거한다고 본다.⁵⁰⁾ 옥한흠목사는 종교개혁가와 경건주의자들이 강조한 신자의 제사장직을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안에 다른 형제들과 세상에 있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까지 발전하여 나갔다. 옥한흠목사는 평신도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훈련시키는 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을 그의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고집스럽게 목회 현장에 실천해 왔다.

옥한흠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 목사 위주로 이어온 한국교회에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으며 평신도 운동을 제자훈련을 통해 구체화시켜 성공한 모델을 보여 주었다. 옥한흠목사의 “평신도를 깨운다.”는 목회 철학은 그가 새롭게 발견한 교회관, 사도직의 재발견, 만인제사장직의 회복에 철저히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옥한흠목사의 독창물도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였고, 종교개혁가들의 재발견이었으며 경건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다만 지금까지의 기성 교회에서 소홀하게 다루었던 점들을 이 시대의 교회에 새롭게 적용시킬 필요성을 인식시켜준 것이다.

오늘날 제자훈련은 경건주의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교회사 속에서 계속하여 움직여 왔다. 소그룹 운동을 통한 제자훈련에 대한 신학적 재발견은 우리시대 경건주의 유산의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한

48) 『경건주의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pp.149-150

49) 『평신도를 깨운다』 p.86

50) 『평신도를 깨운다』 p.100



제자훈련은 이천년 교회사 속에서 이루어 놓은 빛나는 결정체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경건주의 값진 신앙의 유산을 이 땅에 회복시킨 것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제7장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칼빈에게서 출발하여 청교도들, 독일 경건주의자들, 미국대각성 운동기의 설교자들, 그리고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경건”이 어떤 모습으로 당대 속에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앙함에 있어 “경건”이라는 말은 신앙생활을 대변해 주는 본질적인 말이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경건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된다.

칼빈은 경건을 단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갖는 영적 태도로 보지 않는다. 악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까 염려해서가 아니라 형벌을 받지 않고자 함일 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겁내는 것은 어느 때든 그것이 자기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들의 경우는 하나님의 징벌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 자체를 두려워하는데 동시에 징벌을 받을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훨씬 더 조심하게 된다.¹⁾ 그러므로 신자가 경건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자 한다. 이런 칼빈의 정신은 전시대를 통해 경건을 열망하는 모든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의 신앙과 인격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저들의 경건한 영적태도는 소멸해 가는 불씨에 바람을 불어 넣으면 불씨가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역사 속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불타오르게 했다.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칼빈의 경건사상은 영국 종교개혁에 있어서 큰 힘이 되었고, 후에는 청교도운동에 영향을 준 주요 동력이 되었다. 칼빈은 개인적으로 영국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대륙에 살고 있던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영국으로 돌아옴으로써 영국교회와 대학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칼빈이 죽은 후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도 영국에서 칼빈의 영향력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후계자인 데오

1) 존 칼빈 『기독교강요』 최종판, 원광연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3.2.27

도르 베자(Theodore Beza)에 의해 계속되었다.²⁾ 청교도들에 의해 계승된 칼빈의 경건사상은 영국교회를 개혁하고 정화하는 방편이 되었다.

청교도들은 경건을 실천하여 영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죄를 억제하고 자기의 가정을 다스리고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여 통달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기적이며 끊임없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하고 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한 교훈을 부지런히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으며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일에 힘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중심은 경건이었다. 그들의 경건 속에는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 가려는 영적개방성이 있었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려는 겸손함이 있었다. 또 연단을 통해 바르게 만들어져가려는 태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요구하는 도덕적 수준에 이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었다.

흔히들 독일 경건주의는 루터교회 속에서 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나 본 연구에서는 영국 청교도들이 상당수 독일 경건주의에 영향을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청교도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경건주의는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두 운동은 교회사적으로 다른 시대와 다른 장소를 배경으로 하였다. 그러나 많은 개혁교회 경건주의자들이 영국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경건주의가 청교도주의의 강력한 뒷받침 속에서 꽃핀 것임을 살펴보았다.

17세기 초반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다시 등장함으로써 루터교는 교리의 경색화의 길을 가게 되었다. 정통주의자들은 루터교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보존하면서 진리를 용인된 문구로 전달하려 했지만 용인된 어법에서 조금만 이탈해도 이단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고 성경 자체의 권위보다는 성경에 대한 정통적인 관점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성화를 위한 일체의 노력도 인간편에서의 자기 공로로 여긴 나머지 경건을 향한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 바로 이런 환경 속에서 17세기의 루터교 내에서는 자기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경건주의 운동의 흥기는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작되었

2)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도서출판하나,1996), p.96

다.

독일의 경건주의는 특히 모라비안을 통해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며 영국의 웨슬리에게도 깊은 감명을 줌으로써 독일교회의 영적부흥과 더불어 영국교회의 영적갱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여기에서 시작된 영적부흥은 19세기 미국 대각성운동으로 연결되어 한 세기 이상 미국교회에 경건한 열풍을 선물로 주었다. 특히 독일경건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공부 모임과 기도모임은 미국교회에 경건의 씨앗을 심어주었고, 그 바탕 위에서 다수의 신학자와 설교가들이 배출되었다. 특히 19세기 말 무디를 통하여 영적운동은 미국 젊은이들에게 선교의식을 고취하였고, 수많은 청년들이 세계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바로 칼빈에게서 비롯되는 경건한 사상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입국하여 한국의 신앙부흥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인 네비우스 방법을 통해 이미 초기부터 성경공부반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교회적인사경회 등을 통해 경건사상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한국교회의 경건사상은 20세기 후반 제자훈련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다. 제자훈련은 사랑의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교단체를 통해 교회에 소개되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다가 사랑의교회 제자훈련의 결과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회에 유입되게 되었다. 제자훈련은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이미 선교사들이 하던 경건한 성경공부반과 새벽기도회 등에서 일관되게 전수되어진 것이며 경건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경건한 사상과 삶, 그리고 칼빈주의적 가르침을 통해 한국교회에 알려졌지만, 교회역사 속에서 신자들의 삶에 성숙의 열매가 더디 맺힘으로 사회에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사랑의교회가 보여준 열매들로 인해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매우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다. 최근의 정부통계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상당수 줄어들었다. 그 만큼 전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동시에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사회적 현상에서 찾아 출산율의 저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교회가 대사회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필요가 있다. 교회의 대형화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나 대형화를 추구하려는 그릇된 열망 등이 교회 내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유입하였고 물량주의적이고 세속화된 방법들이 부흥을 위한 거룩한 방편인양 소개되기도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혀 경건한 신앙과 삶을 이상적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다수인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세속적인 소망이 교회의 경건에 상당한 위해요소가 되고 있음은 심히 걱정되는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선교사들로부터 경건한 칼빈주의적 신학을 받아들인 경건의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런 소망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음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 하겠다. 이제라도 한국교회가 신앙의 유산인 경건을 회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회복시켜 주길 바라며 사회적 영향력을 높여 복음의 진진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란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참 고 도 서

외국서적

- A. J. Brown, *The Mastery of far East*,(NY:Charles Scribner's Sons 1919)
- A. Skevington Wood, *The Inextinguishable Blaze: spiritual Renewal and Advance in the Eighteenth Century* (Grand Rapids:Eermans Publishing Company, 1960)
- F. Ernest Stoeffler, *German Pietism during the Eighteenth Centry* (Leiden:E. L. Bill,1673)
- I.D.E.Thomas, compiled, *The Golden Tresury of Puritan Quotations*(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5)
- John Cotton, *Christ the Foundation of Life*(London, Printed by Robert Ibbittion, 1651)
- Jonathan Edwards,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1(Hendrickson Publisher, 2000)
- Lionel Greve 『Freedom and Discipline in the Theology of John Calvin, William Perkins and John Wesley』
- M.M.Knappen, 『TPuder Puritanism』 (Chicago&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39)
- N. H. Keeble, ed. *The Autobiography of Richard Baxter*, (London: J. M. Dent & Sons Ltd., 1974)
- Peter Toon, *Puritans and Calvinism* (Swengel, Pa.:Reiner Publication, 1973)
- Perry Miller, *Jonathan Edwards* (Toronto: William Sloane Associates, Inc, 1949)
- Philipp Jacob Spener, *Sendschreiben An Einen Cbristeyffrigen ausslendishen theologum*(Frankfurt a.M.,1677), 영인본 Philipp Jacob Spener Schriften 제 1권 (Hilde shei, New York,1979)



Spener, Erbauliche Evangelisch-und Epistolische Sonntags Andachten,
(Frankfurt,1716)

The Complete Works of Richard Sibbes, vol.2(Edinburgh: James Nichol;
London::James Nisbet and Co.; Dublin:W. Robertson, 1862)

W. L. Swallon, A Story of Korean Prayer, K.M.F., Oct, 1909

한서

김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종로서적, 1980)
 김만형 『SS혁신보고서』 (서울:규장문화사,1999)
 김영재 「기독교 교회사」 (서울:이레서원, 2000)
 곽안련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정책』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4)
 문석호 『영성시대속의 기독교 위기인가 기회인가』 (서울:신앙과 지성,2000)
 문석호 『길을 따라서』 (서울:도서출판 신앙과 지성, 200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박용규 『한국교회를 깨운다』 (서울:생명의말씀사, 1999)
 박아론 "새벽기도 신학의 회고와 전망" 『보수신학연구』
 박아론 『"새벽기도의 신학』 (서울:세종문화사, 1975)
 박용규 『한국장로교 사상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96)
 박운선 『성경과 나의 생애』 (서울:영음사,1997)
 박세환 『존칼빈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도서출판영문, 2001)
 박세환, 『조지핿필드의 신학사상과 설교』 (서울:도서출판영문, 2002)
 박영호 『칭교도 실천신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박건택 개신교 역사와 신학(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1988)
 백금산 『에드워즈처럼 살 수는 없을까』 (서울:부흥과개혁사, 2003)
 배경식 『경건과 신앙』 (서울: 한국장로교회 출판사, 1998)
 서창원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 (서울:도서출판 진리의깃발, 2003)
 송길섭 『한국신학사상사』 (서울:대한기독교출판사 1988)
 송삼용 『위대한 설교자 조지 핿필드』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이기문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박스터” (서울:기독교문사, 1986)
 오덕교 『청교도 이야기』 (서울:이레서원, 2001)
 오덕교 『언덕 위의 도시』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4
 이성호 편 『길선주목사 설교사』 (서울:혜문사, 1977)
 양낙홍 『조나단에드워즈의 생애와 사상』 (서울:부흥개혁사, 200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두란노,, 1998)
 유동식 『한국신학의 광맥』 (서울:전망사, 1982)
 원종천 『칼빈과 청교도 영성』 (서울:도서출판하나,1996)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 (서울:총신대학출판부, 1988)
 주도홍 편저, 『독일의 경건주의』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번역서

Dargon, Edwin C. A History of Preaching, 김남준역, 『설교의 역사』 (III), (서울: 솔로몬, 1994),
 Fant&Pison, 20Century of Great Preaching an Encyclopedia of Preaching. 신
 문구역, 『세계명설교대전집』 2권, (서울:성서연구사, 1984)
 마틴 슈미트, 구영철역 「경건주의」(서울:성광문화사, 1992)
 Richard Henry Tawney, Religion and the Rise of Capitalism(New York, 1926)
 리차드 백스터, 『참된 목자』, 지상우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89)
 리차드 백스터, The Saint's Everlasting Rest. 김기찬역, 『성도의 영원한 안식』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로날드s.윌레스 『칼빈의 기독교생활 원리』 나용화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1988)
 뱁트 헤르룬트, 「신학사」 박희석역 (서울: 성광문화사,1995)
 브루스 셸리,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 박희석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스탠포드 편저, 홍치모, 이훈영역,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 (서울:크리스찬다이제
 스트, 1993)
 에르네스트 슈투플러 송인설,이훈영역 『경건주의 초기역사』 (서울:솔로몬,1993)
 존 칼빈 Catechism(1537), Ford Lewis Battles의 번역편집, (Pittsburg::Pittsburg



Theological Seminary, 1972)

존 칼빈 『기독교강요』 최종판, 원광연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4)

존 칼빈 『Christian life』, 원광연역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존 칼빈 『칼빈의 경건』 이형기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J. I. Packer, Among God's Giants. 박영호역, 『청교도사상』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J. C. 라일, 홍종락역 『세기를 뒤흔든 전도자 휘트필드』 (서울:홍성사, 2003)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일기」 김영운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지상우역, 『성경을 상고하라』 (서울:도서출판여수문, 1992)

Keith J. Hardman,, 박응규역, 『부흥의 계절』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하워드 스나이더, 명성훈역 『교회를 통해 본 성령의 표적』 (서울:나단, 1994)

학위논문 및 저널

김명혁, “내가 좋아하던 박윤선목사님” 『신학정론』 제7권 2호

김명혁 “말씀과 기도의 목사 박윤선”,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노진현 “말씀과 함께 산 중”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마삼락, “마펫박사의 선교일지” 교회와 신학 제7집, 1975

McNeill, Modern Christian Movement, (Phila.:Westminster Press, 1954), 65. 김명혁, “독일 경건주의 운동 소고” 『신학지남』 제185호 1979.9 「교회사 연구」 합동신학교.

박경립, ‘경건주의 운동이 현대 선교에 미친 영향’(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1984)

이철신, “한국 초기 장로교의 사경회에 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6

지형은, “소그룹 경건의 모임의 시작” 『그 말씀』 1966년 3월

지형은, “경건주의와 슈페너의 「경건한 소원」”, 『기독교사상』 (1996년 2월호)



Justo L. Gonzalez, 이형기 차종순 역, “기독교 사상사”(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출판부, 1988)

박형룡 『교의신학』 제1권

박형룡 “한국교회의 신학적 전통” 『신학지남』 제43권 3집

박상택, “길선주목사의 영성신학”,(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5)

방지일,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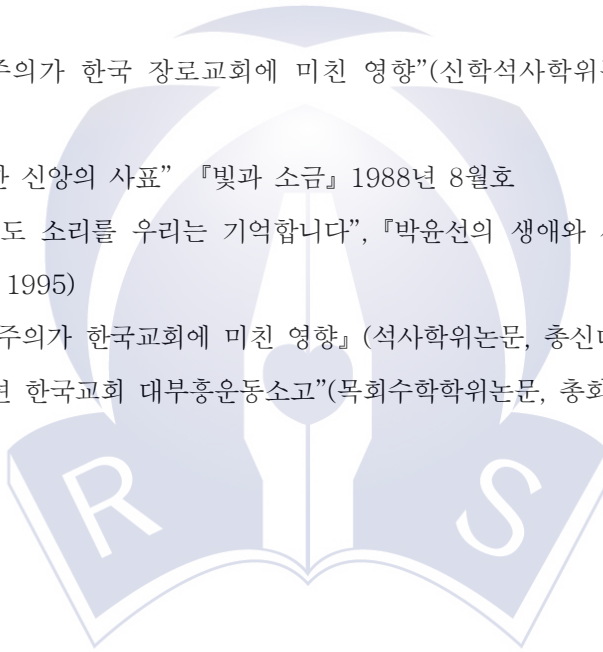
신종철 “근본주의가 한국 장로교회에 미친 영향”(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대학원, 2000)

손봉호, “순수한 신앙의 사표” 『빛과 소금』 1988년 8월호

이근삼, “그 기도 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박윤선의 생애와 사상』 (서울: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오석주, 『경건주의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 2002)

한용덕 “1907년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소고”(목회수학학위논문, 총회목회신학원,1989)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